



현대불교

제 77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2월 10일(음력 12월 27일) 수요일(주간)

내달 신계사 성지순례 합의

조계종, 조불련과 3대 합의 · 6대 사업 이끌어내

1월 30일~2월 2일 평양을 전격 방문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북측과 3월 신계사 성지순례 및 불교문화재 복원 등 포괄적 교류확대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기획실장)과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대표단 방북 브리핑'을 열고 △북측 불교문화재 복원보수 사업 △201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 1000년 기념 협력사업 △세계불교도대회 공동참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조계종과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합의문에서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평양 불교회관 건립 지원 △남북 사찰 결연 · 교류사업 △부처님오신날 묘향산 보현사 및 평양 남북불교도합동법회 봉행 △6 · 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 금강산 신계사 합동법회 봉행 등 남북불교 6대 논의사업도 명시했다.

원담 스님은 "조불련과 남북불교 등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1일 사회부장 혜경 스님과 리규용 조불련 부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에 지속적인 남북 교류와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북측이 '조불련을 통해 총무원장스님이 재방북해 줄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종단은 조불련 요청이 있을 시 형식을 갖춰 재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를 남북불교 교류를 위한 단일 창구로 지정하고 조불련과 합의된 남북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노덕현 기자

#조계종 · 조불련 3대 합의사항

1. 양측은 우리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해 북측지역의 불교문화재 복원보수와 유지관리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 양측은 2011 팔만대장경 목판제작 1000년을 맞으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3. 양측은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조계종과 조불련 6대 논의사업

1. 금강산 신계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지순례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2. 평양시내에 불교회관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3. 남측 사찰과 북측 주요사찰간의 결연을 통해 교류협력을 시행한다.
4. 2010년 부처님오신날 평양 광법사 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5. 6 · 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금강산에서 남북불교도합동법회 또는 남북 동시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6. 남측 불교단체와 조불련 간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승 스님 "남북교류 이유불문 지속돼야"

"남북불교 교류를 포함한 민간교류 활성화에 북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민간교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평양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일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귀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단이 나서) 남북불교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정부차원의 교류 확대를 촉구했다.

스님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교류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속돼야 한다"며 "직접 북한에 가서 보니 속히 남북교류 사업의 재개를 원하는 북측 입장을 느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날 "남북교류협력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물질 · 재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향후 종단 차원의 남북교류 기금 마련에 대한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도 당부했다.

이번 방북에서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평양 광법사를 참배하고 덕동 돼지공장, 정성의학종합센터 등 남북협력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또, 환영 · 환송만찬 등을 통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최성익 · 한영만 부위원장과 조선불교도련맹 심상진 위원장, 리규용 부위원장 등을 만나 남북불교 교류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5 현장-2010 내나라 여행 박람회 ▶14 선지식-동원 스님 ▶8 인터뷰-법만 스님



입춘 맞아 부처님 씻어드리기 법회

2월 4일 입춘을 맞아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은 불상에 먼지를 터는 '부처님 씻어드리기(浴佛)' 이색 법회를 봉행했다. 신도들은 이 날 법회에서 바라만 봤던 불상을 직접 손으로 옮겨 붓으로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냈다. '부처님 씻어드리기 입춘법회'는 부적이나 삼재풀이로 한해의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닌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 항상 마음을 닦는 수행자의 자세로 한해를 살아갈 것을 발원하는 법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사진=박재완 기자

국정원 조계사 압력 후폭풍 거세

경불련 등 11개 불교단체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조계종도 유감

국정원 직원에 의해 조계사 행사가 철회된 사건을 불교단체들이 '공권력에 의한 조계종단 자주성 훼손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될 조짐이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사)보리, 사찰생태연구소 등 11개 불교단체는 2월 2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 '국정원의 탈법 및 종교탑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교단체들은 '시민의 자율적인 행사와 종교의 권위마저 짓밟은 국정원의 조계사 사찰을 현 정부에 의한 민주질서 파괴라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회견문에서 "시민의 행사가 국가기관 외압으로 취소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교단체들은 "민심을 읽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보살행을 실천해야할 불교가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심장인 조계사가 권력에 의해 유린됐다는 점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다"며 "국정원의 반사회적 · 탈법적인 민간 사찰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조계사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불교단체들은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 보장 △국정원의 민간 사찰에 대한 대통령 공개 사과 △실정법 위반 책임에 대한 국정원장 자진 사퇴 △불필요한 기관권의 전국 사찰 출입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강력한 대처 등을 촉구했다.

회견문 발표에 앞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이번 사건은 현 국정이 MB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대와 문제제기 등에 대해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통한 해결을 일삼은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MB의 국정운영 기조가 국민 화합과 소통, 수용으로 변화하길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불교단체들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18일을 즈음해 조계사에서 (가칭)'종단 자주성 수호 · MB정부 규탄법회'를 개최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대정부 규탄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에 앞선 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은 "조계사 행사에 대한 국정원 개입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기관원의 조계사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4대강 의견 경청"

자승 스님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공동집행위원장 최영찬 外) 소속 교수들의 예방 자리에서 "수경 · 지관 스님께서 불교계 대표로 활동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은 귀담아 듣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예방한 운하반대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종교계에서 힘을 보태 환경 재앙을 막게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조계종 환경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환경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불교환경연대가 3월 4일 개최하는 심포지엄 등에서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 령

위촉

임연태 논설위원

김재경 논설위원





社說

남북불교 합의는 화합 디딤돌

조계종과 조불련이 남북불교 교류와 관련해 9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3월에 5000여 명의 불자들이 금강산 신계사를 순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막혀 있던 금강산 길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부처님오신날과 6·15선언 10주년에 즈음해서는 평양에서 남북불교계가 동시·합동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평양의 불교문화유적 복원도 추진된다.

합의 내용 중 수년이 걸리는 문화유적 복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복원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 수행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댈 것이다. 때론 다름을 확인하며 진통을 겪기도 하겠지만,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장(場) 안에서 함께 한다는 인식에 이를 것이다.

남북불교교류는 불교 안에 머무는 사안이 아니다. 민족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는 대작불사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을 절감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남북의 화해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조계종과 조불련의 합의는 시동을 건 것이다. 이후 실무적인 논의가 차근차근 이어져, 책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승 스님은, 남북교류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성과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화합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

해인사 문제 단호하게 대처해야

강제 경매, 토지 매각, 골프장 등 법보종찰 해인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 내용인즉, 납골당인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이 강제 경매에 부쳐졌다. 또 '대장경 천년 엑스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천군청이 해인사 토지를 강제수용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해인사가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인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조계종 종정이 주석하는 사찰이며, 세계문화유산인 판전과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성지이며, 인류의 자산이다. 해인사가 건재함으로써 한국불교와 조계종은 당당하고 드높다. 국민들은 해인사를 큰 자랑으로 여긴다.

해인사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 조계종이 최근 불교단체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 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불암 무량수전 강제 경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관련자의 종법 위반 여부도 가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주요 사찰의 문제에 대해 총무원이 시간을 질질 끌며 유야무야했던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조사가 밋밋할 경우 종단의 정치문제로 비화돼 소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수행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교수 · 북한학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1월 2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조건 없는 연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둘러싼 청와대 내의 혼선과 기존 입장 변화로 인식되는 데 대한 부담,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 전제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확고한 원칙'을 강조했다. 파장을 의식해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가기는 했지만 연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잠재의식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재조정에 실패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됐다. 올해마저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면 임기 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통령의 임기라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올해 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 새해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조성돼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에는 실무접촉 외에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조문사절과의 면담과 비밀접촉을 통해서 북측이 정상회담 용의를 표시하고 있지만 북한 태도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면전환을 결심하고 대남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실리는 챙기면서 체제위협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북한의 이중노선 때문에 남측은 북한의 유화 움직임을 경계 중이다.

북측이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안보차원과 대북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실리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최대관심은 평화협정 체결문제이다. 북한은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체결을 근본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연일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남북갈등이 지속되는 한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가중도 남북정상회담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남측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했다. 매년 들어오던 남측의 인도적 지원이 끊긴데 따른 식량난 가중, 제재에 따른 외화부족,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 등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과 남북정상회담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하는 부담과 함께 후계구축을 위한 사전정비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후계구축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핵문제해결에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 지지세력 중의 일부에서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 추진에 강한 의구심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남측 정부는 대가없이 핵문제를 주 의제로 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북측은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핵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하고 미국 또는 6자회담에서 다루려 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남측이나 북측 어느 한쪽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정상회담 성사가 어렵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2월의 테마-인연

베품과 용서가 좋은 인연 짓는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수행의 절반을 완성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렇지 않다.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잡아함경>

부처님은 늘 이렇게 좋은 벗과 인연의 소중함을 말씀했다. 수행자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보살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장자를 존중하고 아랫사람 보살핌을 피력하시곤 했다. 함께 탁마하며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이를 일컬어 도반(道伴)이라고 한다. 절에서 맛있는 간식을 '차담'이라고 하는데, 함께 인연 맺은 도반들과 차를 마시면서 법담을 나누며 서로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승가(僧家)'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의 선지식이었던 함허 스님은 "이 한잔의 차는 옛날의 내 정(情)을 표하는 것… 그대는 한번 맛보시오"라고 하며 다른 스님들과의 따스한 인연을 표현하기도 했다.

좋은 인연은 비단 승가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매우 소중하다.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과거 어느 생에서부터 시작된 소중한 인연이다. 가을의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데도, 봄의 소쩍새와 여름의 천둥이라는 시간적인 연기 법칙이 존재하며 물·공기·햇빛·바람 등 공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한 개인으로 볼 때도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주위 모든 존재들과 인연화합으로 이뤄져있다. 즉 부모·형제·친구 등 주위의 많은 이들과의 얽힘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으며 결국 이런저런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미치 앨봄(Mitch Albom)의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전에 한번쯤은 만난 사이며 서로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일 뿐이다"라는 구절이다.

우리 인연은 다 전생의 가족이다. 인연 맺은 이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사랑을 나눔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그런데 가족 간의 인연이든 친구와의 인연이든, 그냥 맺어졌다고 해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어떻게 좋은 인연으로 지속되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첫째,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거듭나야 하는 법이다. 상대방의 베품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선지식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번째, '용서'라는 이름으로 좋은 인연을 엮어가야 한다. 우리 모두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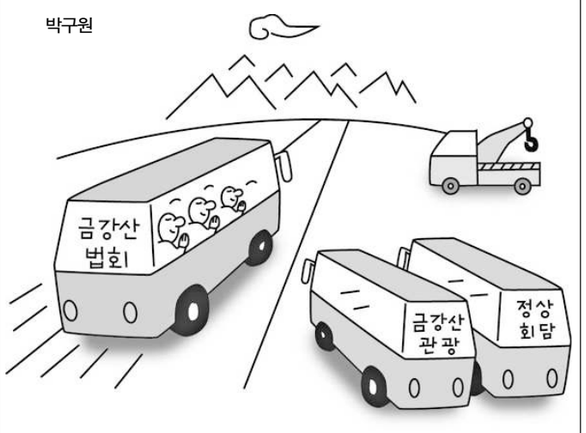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 소중한 사람들끼리 좋은 인연을 꽃피운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현불만평

박구원



리콜 없이 잘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정토선종 창종 대법회를 마치고

귀의 삼보하옵고
마침내 사부대중이 넓고 깊은 공덕을 이뤄 모든이에게 두루 회향코자 대한불교정토선종창종 법회의 발걸음을 내 딛었습니다.
정토선(淨土禪)은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염불하여 선과 정을 동시에 닦는 자성염불의 수행으로 명심견성을 목표로 정토발원을 세운 사부대중이 동참해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토선수행에 동참해 견성성불의 길로 나가길 발원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장 굉송 등정

교 구 원 장

• 총본산 고성 서방사
• 6교구 양산 관음정사 법 경
• 11교구 영천 심곡사 법 산
• 13교구 전북 지장암 일 각
• 5교구 부산 수영구 대성사 대 명
• 8교구 대구시 북구 명곡사 보 해
• 12교구 포항 유리사 법 철
• 15교구 수원시 정월선원 체 정
• 원로원 법 천 • 교육원 등 법 • 문화원 지 연 • 선원 무 상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73-1 서방사 ☎ 055)673-3719

- 입종안내 -

■ 정토발원 수행으로 명심견성 하려는 사부대중
■ 입종서류 총무원 비치
■ 입종문의 총무원 및 각 교구

남북교류 빗장 열리나

자승 스님 방북, 남북정상회담 고위 접촉에 일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나흘간의 평양 방문 결과물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스님의 이번 평양 방문을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차원 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논의 중인 남북정상회담의 신호탄 격으로 정부 당국의 고위급 접촉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제공=조계종 총무원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남북 합의사항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이다. 서울 도선사 108순례단(단장 혜자)이 3월 중 5000여 명 규모의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방북하면 2008년 총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막힌 지 3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금강산 신계사는 1951년 한국전쟁 중 폭격으로 소실된 것을 2001년 조계종과 조선불교도련맹이 함께 2007년 복원을 마쳐 이번 남북불교교류에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조계종은 신계사에 남측 스님을 상주시켜 통일불사의 교두보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남북한 공동 북한 문화재 복원

북한 성보문화재 및 사찰 복원을 위해 남북 불교계가 힘을 합친다. 북한 문화재 복원불사는 양측 불교계가 각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신계사 복원 불사를 모델로 국보급 사찰 및 문화재 복원에 나서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남북 공동법회

부처님오신날에는 평양 광법사 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불교도 합동 · 동시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이번 평양 합동법회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북측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만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불교회관 건립

남북 불교계가 뜻을 모아 건립할 평양 불교회관은 완공 후 북한 내 남북교류 본부로 활용된다. 조계종은 평양 불교회관을 통해 종단 차원의 의료지원 등도 펼칠 예정이다.

#<고려대장경> 인경본 南 전시

2011년 대장경 1000년 축전에서는 평양 보현사가 소장한 <고려대장경> 인경본 전시가 추진돼 민족문화유산 홍보에 남북이 공동으로 나서게 된다. 축전 기간 중에는 북측 불교대표단의 답방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제무대서 한목소리 내기로

남북 불교계가 세계불교도대회(WFB)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남북 합의로 해외약탈 문화재 환수 등과 관련한 남북 공조의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남북이 공동성명서 등을 내 준다면 반출된 우리 문화재 반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6 · 15공동선언 10주년인 올해 금강산 신계사 합동법회 등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혀 합의서 이면에서 진행 중인 남북공동 사업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고불암 문제 정식 입건 조사"

조계종 해인사에 실무진 합동조사팀 파견

조계종이 해인사 골프장 건립, 합천군의 토지 강제 수용과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강제 경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불교단체연석회의가 1월 29일 제기한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립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납골당) 등에 대한 질의서에 2월 5일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호법부장 덕문 스님 명의의 답변서에서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강제경매 사실에 대해 1월 14일 해인사에 보고를 요청해 현재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강제경매 신청권자인 명신건설로부터도 2월 1일 진정서가 접수돼 고불암 건을 정식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법부는 "무량수전 강제경매 건에 대한 종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력해 강제 경매에 따른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혜경)도 공문을 통해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부는 "조계종 환경위에서 빠른 시일 내 해인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을 면담할 계획"이라며 "환경위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및 공람에 관한 종단 입장을 전달하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답변과 별도로 총무원은 감사국 · 재무부 · 호법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해인사에 파견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도 2월 10일 총무 · 호법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종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조계종 재무부(재무부장 상운)는 8일 불교단체연석회의에 별도의 답변을 발송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사은품 증정
죽육기 145,000
주문 02) 2004-8216

스님 폭행 은폐의혹 도마에

MBC PD수첩, 경찰 진상조사 발표 촉구

경찰청의 유감 표명과 당사자 지관 스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 표명 속에 경찰의 축소 · 은폐 조사 의혹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MBC 'PD수첩'은 2월 2일 방송에서 "사건발생 2주가 넘게 공식발표가 미뤄지는 동안 일방적 폭행이라는 스님의 주장이 쌍방 폭행으로 왜곡 됐다"고 소개하고, 경찰의 진상조사 발표를 촉구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방송을 통해 "경찰은 1월 19일 김포경찰서 조사 당시 쌍방피해로 몰아갔다. 수사과정에서 조서내용이 진술 내용과 달라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피의자가 조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하고 이를 명시토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청정승가대중결사 등 34개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지관 스님 폭행사건 대책위원회'는 2월 1일 경찰청을 찾아 △진상조사 및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경찰청장 사과 △권위주의 통치 행태 전환 등을 요구하는 항의문서를 전달했다.

이날 모강인 경찰차장은 불교계 요구를 수용하며 진상조사를 비롯해 관련자처벌, 경승예우교육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일 경찰청 이승규 정보국장 등 경찰청 간부들의 사과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해당 경찰관들도 가장으로서 각각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사태의 수습을 언급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9일 신년인사차 총무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민간교류단체들 현안 공동대응해야"

종단협 5일 '남북불교교류' 워크숍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교단체 워크숍이 최초로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남북한 정세분석과 불교교류의 방향'을 주제로 교류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불교계 남북교류단체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북한 평화협정 제기 배경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을 공유했다. 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본부 등 종단 기구의 사업계획 소개와 더불어 불교계 남북교류단체와 일반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키로 결의했다.

사무총장 홍파 스님은 인사말에서 "남북 해빙 국면을 맞기 위해서는 민간교류단체들이 현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 조계종 사회부,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좋은벗들, 중앙신도회, 불교인권위원회, 부산참여불교운동본부 등 불교계 남북교류 제종단 및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죽비와 목탁

서구 불교 호감도 상승 · 국내 하락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미국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선호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미국인 중 58%가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 미국인 53%가 이슬람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는 미국인의 상당수인 91%가 개신교를, 71%가 유대교에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고도 밝혀, 아직까지는 불교가 미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네덜란드 영자신문(NIS News Bulletin)도 지난해 "불자 증가 추세가 이슬람교에 월등히 앞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NIS는 "인구 1600만 명인 네덜란드에서 25만 백인이 불교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순수 네덜란드인 4000명과 아시아 이민자 중 불자를 합해 1만6000명이었던 1998년의 조사결과에 비교해 불교가 놀랄만한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문명국인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불교의 입지가 굳혀지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에서의 불교는 어떨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김동호)이 2009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신뢰 ·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는 3위였다. 가톨릭(35.2%), 개신교(26.1%)에 뒤쳐진 것도 문제지만 22% 밖에 되지 않는 낮은 호감도도 문제였다.

특히 2008년 실시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국민의 불교 호감도 하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교의 봉사 및 구제활동 등 사회참여도가 이웃종교보다 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교가 서구에서 선전하는 것은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서구인들이 불교 본연의 법향에 흠모된 까닭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국내의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우리 모두 방법은 안다.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국내 최대 규모 영산재 봉행

영산재보존회 3월 11일 서울 체조경기장서

태고종(총무원장 인공)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회장 일운)는 영산재(靈山齋)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국가안녕 · 불교발전과 태고종단의 대화합을 기원하는 '2010 영산재'를 봉행한다.

3월 11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영산재'는 108명의 어산단과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산대법회로 봉행될 예정이다.

2010영산재봉행위원회(위원장 인공)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중요한 행사인 만큼 영산재의 문화적 예술성을 강조해 보다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번 영산대법회 중 전국신도회장 취임법회도 함께 봉행해 전국신도회 조직 정비 및 종단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태고종은 영산재 봉행 대법회 이후에도 영산재 상설공연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공연 확대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등 영산재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영산재는…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여러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 장엄의식이다. 국가의 큰 행사 등에도 봉행되는 영산재는 불교음악인 범패에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 무용과 불보살도와 감로탱화 등 미술적 요소가 가미돼 불교 예술의 백미로 꼽힌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는 매년 서울 봉원사(奉元寺)에서 시연되고 있다.


모델 : 前 세계 〃미세스 진〃 (촬영 : 방필석 법사)

★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니 ★

신생아 작명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갈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739-82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법사

주역 개인지도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3회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승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耕當問奴(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일이 잘 안풀릴때 개명 하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조심·자비·정성 깃든 태도가 마장 없애

열린선원 4일 입춘법회 새 모델 '부처님 씻어드리기' 봉행

24절기 중 맨처음 찾아오는 입춘(立春)은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다. 해마다 입춘이면 전국 사찰에서는 민간 세시풍속에 맞춰 삼재(三災: 홍수, 태풍, 화재 혹은 질병, 기근, 도적)부적을 쓰고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는 입춘방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어왔다.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쓰였던 부적 등은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일반 신도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찰에서도 부적을 나눠주는 풍속이 점차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춘을 맞아 불상의 먼지를 터는 이색 법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살벌한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2월 4일 입춘, 서울 역촌시장 내에 위치한 저잣거리 포교원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에서는 '부처님 씻어드리기(浴佛)법회'가 봉행됐다.

법현 스님을 비롯한 30여 신도들은 흰 장갑을 끼고 삼존불 뒤에 모셔진 원불(願佛) 300여 좌를 조심스레 내렸다. 불상을 직접 만져본 신도들이 살짝 들떠 흥분하자 법현 스님은 "천천~히 내리세요.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라며 신도들을 진정시켰다.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을 옮기는 신도들의 손길은 막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품은 듯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40여 분이 걸려 내려진 불상을 순서와 줄에 맞춰 일렬로 가지런히 모시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수행이었다. 원불이 모두 내려지자 신도들은 부드러운 털로 만들어진 솔을 들고 지난 1년 동안 불상에 쌓인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부처님 머리 부분의 나발(螺髮), 육계(肉髻)까지 구석구석 말끔하게 닦여진 불상을 원래 위치로 옮기는 데는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다. '부처님 씻어드리기 법회'는 부적보다는 불상을 옮기고 닦을 때와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 정성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3재 마장을 없애 준다는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새해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자 근무시간을 쪼개 법회에 참석한 임영래(50·서울 우이동)씨는 바쁜 업무가 있지만 마음 닦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 시간을 냈다. 그는 "마치 몸과 마음에 쌓인 묵은 때를 털어내는 것처럼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라며 곳곳의 먼지를 털어냈다.

지난해에 이어 참석한 정서 보살(52·경기 산본)은 "부적을 받고 기도를 하는 것 이상으로 부처님에 대한 예경심이 들고 내 마음도 개운하다. 기복적인 행위가 아닌 실천을 통한 신행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능숙한 움직임으로 스님과 함께 의식 진행에 앞장섰다.

법현 스님은 신도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 몸에 먼지를 털며 새봄을 맞아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과 생활의 조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2006년부터 부처님 씻어드리기 법회를 열어왔다. 스님은 "입춘이면 문화적 이유를 들어 업장소멸, 삼재풀이 법회가 열리지만 불교적인 의미가 담긴 새로운 입춘 법회가 필요했다"며 "불제자로 평생 닮아야 할 부처님 몸에 쌓인 먼지를 털어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터는 것을 상징한다. 또 부처님께 먼지를 털어드리 듯 누구나 마음의 때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일본 제사문화서 술 들어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명절·기제사에 술 대신 차' 캠페인



명절 차례·기제사에 차를 올릴 때에는 제주가 제배를 올리는 동안 주부가 옆에서 차를 우려 올리면 된다. 사진제공=불교생활의례문화원

설 차례를 앞두고 술 대신 차(茶) 올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직무대행 김규범)은 '명절과 기제사에 술 대신 차를 올립시다' 불자생활 캠페인을 통해 전통문화 복원과 함께 현대에 적합한 제사문화를 확산 보급해 나간다.

종교와 집안, 지역 전통과 풍습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술이다. 술을 올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과 일제강점기 일본 제사문화가 한국에 유입되면서부터 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통문화처럼 정착된 것이다.

차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술 사용금지가 아니라 차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차례나 기제사에 차를 공양하는 것은 간단하다. 제사를 지낼 때에 제주(祭主)가 제배를 올리는 동안 주부(主婦: 한 집안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사람의 아내)가 차를 만들거나 미리 우려낸 차를 올리면 된다. 차 종류는 녹차, 홍차, 말차 등 제한 없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부설 불교생활의례연구소 순남숙 소장은 "종교를 떠나 어느 가정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차를 통해 전통문화 복원과 현대에 적합한 제례문화보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불교식 의례는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맞다. 제사상에 술을 올리는 의미는 '강신(降神)'을 위한 것으로 죽음과 혼백이 둘이라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불교적으로 맞지 않지만 차를 올리는 것은 부모님께 새해 차 공양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서울시, 예지원, 중앙신도회, 조계종 총무원,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기본 교육 내용을 교재로 만들 예정이다.

사실 차례상에 차 올리기 운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법현 스님(열린선원 선원장)은 '차례상에 차 쓰기' 운동을 펼쳐왔다. 스님은 "중국, 한국의 불교와 유교 문헌을 보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차를 많이 쓰며 조상과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며 "추석과 설 차례(茶禮)에는 꼭 차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상언 기자



정운찬 총리 자승 스님 예방

정운찬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찾아 세종시 수정안으로 촉발된 지역 분열에 불교계가 대승적 화합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의 종교지도자 회동 일정으로 이뤄진 2월 3일 예방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평양 방문, 국립공원 문제, 지관 스님 폭행사건 등을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 노덕현 기자

100字 뉴스

조계종 임시종회 3월 8일 개회

제183회 조계종 임시종회가 3월 8일 개회 예정인 가운데 총무원장 선거법 등 선거 과정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종법들의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선거기간 및 선거인단 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총무원장선거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도 직능대표 선출조항의 보완, 거주승제도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종회 선거법개정특위는 2월 5일 위원장 일문 스님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봉원사 토지 분할 강제조정

조계종·태고종간 소유권 문제로 8년간 재판이 진행돼 온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이 타결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20부는 2월 1일자로 조계종과 태고종에 신촌 봉원사 토지 분할 강제조정안을 발부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봉원사 토지 10만평 중 7만 8000평은 태고종이, 2만 3000평은 조계종이 소유토록 했으며,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 제3자 매도 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9일 조정안 수용 여부 등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10일 자비나눔 종단 모금행사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1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10 자비나눔 확산을 위한 종단 모금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동행이 201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개하는 자비나눔 모금운동의 시작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교육원장 현응 스님·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이하 부실장스님, 산하단체 종무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불교인권위 북녘상품 판매전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북한상품 전문 거래업체인 '한민족 유통'과 손잡고 2월 8~9일 국회의사당 내 의원회관 로비에서 남북한간 내부거래 인식 확대를 위한 '북녘 상품 전시 판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판매전은 각종 나물과 야생 더덕을 비롯해 전통식으로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장류, 북녘의 천연기념물인 강서청산수, 상황버섯과 차가버섯, 백두산 들쭉술을 비롯한 각종 주류 등을 직접 시식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열린 장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서화작품과 공예품 등을 공개 전시하고 현장 판매도 병행한다.

조계종 호법부 장기기증 동참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스님들은 2월 1일 총무원 호법부장실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장기기증 행복릴레이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장기기증신청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기기증신청서에는 호법부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무관 스님(호법국장), 선웅 스님(조사국장), 법상 스님(호법과장), 혜만 스님(상임감찰), 덕림 스님(상임감찰), 명본 스님(상임감찰), 행관 스님(상임감찰) 등 호법부 스님 8명과 일반직 종무원 2명이 서약했다.

덕문 스님은 "본부에 조용히 장기기증 신청서만 전달하려 했으나, 장기기증 행복릴레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행복릴레이 첫 번째 등록자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前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이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대학장 : 호 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0년 3월 8일 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교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0년 3월 9일 화요일

제천금강사기로원 입소자모집

실 버 타 운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님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 (방1개, 베란다, 욕실)
◇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 입소비용 : 평생 거주 5,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산사에 시름 내려놓고 가세요

2010 내 나라 여행 박람회



① 백양사의 컵등 만들기.
② 용문사의 <반야심경> 인경.
③ 대흥사가 마련한 차담.
④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가득 매운 인파들.
⑤ 명원문화재단의 다도.
⑥ 수덕사가 선보인 단청 그리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스님들과 봉사자들은 "고단해도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절에 가면 단청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렸을까' 하면서 신기했는데, 제 손으로 직접 그리니 뿌듯해요. 집에 걸어 놓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집이 고요한 사찰이 될 것 같아요."

'2010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마지막 날인 1월 30일. 행사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 때 아닌 여름이 찾아온 듯 봉사자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사람들은 '보물찾기' 하는 아이처럼 뒤꿈치를 들어가며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곳곳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장 부스 중 기와지붕이 유독 눈에 띈다. 산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홍보관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의 맛보기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OECD가 인정한 '성공적 문화상품'답게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봉사자와 스님들은 넘치는 인파속에서 동분서주하며 방문객을 맞이하기에 바쁜 잔칫집 분위기였다.

사람은 드물다"며 "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고 사색적인 맛을 느끼며 내면을 채울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컵등 만들기의 재미에 푹 빠진 박은아(18 · 삼성동) 학생은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본 적은 없는데, 절에 가게 된다면 스님들과 차도 마시고, 명상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10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내 나라 숨은 보물찾기'를 주제로 국내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린 것은 '템플스테이'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최우수 이벤트 상'을 수상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 최고 인기 부스 '템플스테이'

일회성 홍보 아닌 템플스테이 활로 모색해야

이번 행사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금산사 대흥사 묘각사 법흥사 봉은사 삼화사 송광사 심향사 쌍봉사 영평사 용문사 전등사 화엄사 등 각 사찰에서 온 스님, 봉사자와 함께 템플스테이 홍보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다도, 오방색 다식체험, 컵등 만들기, 연꽃 · 단청그리기, 꽃 누르미, 차담 등에도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푹 빠져있었다. 부스마다 누르고 붙이고 자르고 칠하는 참가자들 틈을 지나치던 사람들도 '다도' 현장만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한복보다 더 고운 미소를 머금고 '다도'를 지도하는 명원문화재단(회장 김의정) 봉사자들은 차(茶) 예절을 일러주며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했다.

"양손을 찻잔에 대고 얼굴을 향해 들면서 왼손을 잔 아래에 대고 오른손으로 잔을 감쌉니다. 이때 왼손은 꽃봉오리처럼 하고 양팔은 날개를 펼치듯 합니다. 먼저 차(茶) 향을 음미합니다. 한 번 마시고 옆 사람과 차담을 나누고, 두 모금을 마시고 차를 입안에서 굴리면서 맛을 느낍니다. 세 모금 째 차를 다 마신 후에는 차를 대접한 사람에게 '차(茶) 맛이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야 해요."

봉사자의 지도에 따라 차를 마시던 강현아(10 · 서울 서초동) 학생은 차의 떫은맛에 얼굴을 찌푸리더니, 다식을 입에 넣어주자 금방 얼굴색이 돌아왔다.

명원문화재단 이복형 경기북부지부 회장은 "차는 어디서나 맛볼 수 있지만, 차를 제대로 마시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행사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컵등 만들기'를 지도하던 백양사 포교국장 지정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가진 영향력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또 이번 템플스테이 홍보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템플스테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산중 사찰이 많고 도심 사찰이 없어 포교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아실현의 높은 욕구가 있고 재충전의 장소에 목말라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산중사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템플스테이는 전략적인 불교 유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템플스테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잠재 수요층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쳐 드러누웠던 원두막처럼 지친 마음을 식혀주는 템플스테이. 이번 박람회에서도 증명됐다. 한 잔 차를 놓고 도반과 마음을 나누고 물소리로 머리를 맑히는 산사에서의 하루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임을.

보고 싶은 '친구'처럼 불교포교와 수행의 발원지로 새롭게 태어날 템플스테이를 기대하는 마음만으로도 봉사자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던 땀이 사라지고 있었다.

박선주 기자



해 외 WORLD

“달라이 라마 중심으로 뭉칠 것”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정부 회동… 2002년 이래 아홉 번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 비공개 특사단이 중국정부의 회동 결과를 밝히고 있다.

달라이 라마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게리 로디(Mr. Gyari Lodoe), 칼상 갈첸(Mr. Kalsang Gyaltsen) 등 민간 대표단이 특별한 성과 없이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로 귀환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2월 2일 기자회견에서 “1월 26~31일 중국에 보내진 달라이 라마의 비공개 특사가 1일 다람살라로 귀환했다. 티베트-중국 정부간 회담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 정부간 회동은 1980년 처음 시작됐다. 1984년 이후 결렬돼다가 2002년 재교섭을 시작한 이후 아홉 번째 회동이다.

같은 날 중국행정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관 츄웬친(Zhu Wenqin)은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인의 복리를 위해 항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국-티베트간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는 티베트가 아무 조건 없이 중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항상 중국이 솔선해 양국 간의 교섭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중국정부 지도부는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도 달라이 라마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티베트 유혈 사태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도 중국은 티베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중국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는 항상 티베트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의 복리를 강조하며 대화를 요청하는 것에 티베트 망명정부의 입장은 비관적이었다.

티베트 망명정부 특사인 게리 로디는 “티베트-중국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중국지도부와의 대화를 나눴지만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리 로디는 “중국의 주권, 영토보존, 헌법을 비롯해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편향된 사고가 양국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상호 이익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달라이 라마의 무조건적인 협력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대승적 중도(中道)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는 티베트인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자유의 구현”이라며 “티베트인 모두가 겪는 고난의 해결 방안으로 특정인의 권리나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한 지분을 강조하고 이를 협상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티베트-중국, 양국간의 주요 입장 차이는 극명하다. 다행히도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망명정부는 실제상황을 직관하는 중도적인 시각으로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도 다람살라= 가연숙 객원기자

Mr. 해피니스 스님과 힙합을…

일본의 스님이 젊은이들을 위한 포교수단으로 힙합음악을 이용해 눈길을 끈다.

CNN은 2월 2일 법당에서 젊은이들과 힙합, 랩음악을 공연하는 일본 사찰을 소개했다.

청년층 포교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곳은 400년이나 된 전통사찰 큐지 절. 이곳에 있는 칸쇼 타가이 스님은 염불대신 랩을 외우기 시작한다.

미스터 해피니스(Mr. Happiness)로 불리우기를 더 좋아하는 스님의 영문이름 ‘Kansho Tagai’를 실제 유튜브(youtube.com)에 검색해보니 직접 법당에서 개조한 가사를 입고 공연을 한다.

현재 일본에는 7만5000여개의 사찰이 있지만 매년 수백 개의 사찰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스님은 힙합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인기가 좋아 절을 찾는 방문객이 예전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타가이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불교를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방식이 새롭다 해도 불교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설맞이 복지관 행사 ‘풍성’

어려운 이웃 위한 행사 다채… 공동차례에서 선물나눔까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짧은 설 연휴 탓에 친지 · 가족을 볼 시간도 부족하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결손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주위의 이웃들은 올해 같은 설 연휴가 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입춘이 지났지만 설 연휴까지 한파가 지속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춥게 만든다. 모두가 즐거워야할 명절인 설에 불교계 복지관마다 이웃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 02-6911-9555)는 2월 11일 센터 내 3층 강당에서 설 공동차례지내기 행사를 마련한다. 설 공동차례 지내기는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직접 차례를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는 중앙공원에서 윷놀이 · 제기차기 ·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과 설맞이 어르신 장기자랑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가섭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명절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만복이 깃든 새해를 기원하는 공동체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02-742-9500)은 8~12일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 400세대에 설맞이 미소나눔 행사 ‘까치까치 설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KT사랑의봉사단, 교보생명, 다솜이봉사단, 풀빛문화연대가 어르신들을 위해 만두를 직접 빚어서 떡국선물세트로 진행하는 후원행사다.

서울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 02-817-8052)은 10, 12일에 ‘설날맞이 해피타임 물품분출’ 행사를 열고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떡국나누기를 실시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 후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물우이웃들이 물품을 전달 받을 수 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 02-915-9200)은 9일 설날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1부에는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떡국 무료배식을 실시하며 2부에는 복조리만들기 · 민속놀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송파노인복지센터(관장 지선, 02-2202-3677)는 10일 기아자동차 직원들과 함께 기초수급자인 독거어르신 80명에게 생필품과 떡국 세트를 직접 전달한다.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 02-571-2988)은 11일 만두빚기 대회를 개최한다. 100여 저소득 어르신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두를 빚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해 상을 수여하며 사물놀이 · 난타공연 등 민속놀이도 진행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031-919-8677)은 10~11일 담당자와 가정봉사원이 복지관 재가복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설 명절 선물인 떡국 떡 세트와 식혜 및 생필품 세트를 전달한다. 대상자는 본 복지관 재가복지 대상자로 선정된 40명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독거 어르신 및 부부 세대로 구성됐다.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언, 031-393-3677)은 9일 케피코 직원 30여 명과 지역내 저소득가구, 독거어르신 등 160 가정에 사과와 한과세트를 전달하고 어르신 집에 직접 방문해 안부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관장 경운, 032-667-0261)은 1~11일 관내에서 후원모금행사인 ‘사랑의 떡국떡’을 실시해 모연한 금액으로 기초수급자들에게 명절선물을 지원한다.

부산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정련, 051-264-9033)은 6일 새터민 80세대와 함께 공동차례지내기를 실시했다. 10일에는 지역 독거어르신, 장애인, 조손세대가정 100세대에게 생필품 선물 세트와 떡국용 떡을 전달한다.

마산금강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곽인철, 055-221-8445)은 10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 20세대에 물품과 떡국세트 등을 전달한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 051-231-8017)은 8~12일 생활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 결손가정세대에 사랑의 떡국 배달, 제례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실시하며 제례물품 및 현금 후원을 받고 있다.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혜총, 051-628-6737)은 10일 ‘설맞이 나눔한마당’을 개최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장애인세대 등 총 400세대에게 떡국거리 · 생필품 등을 전달한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서울노인복지센터 재수탁 체결

가섭 스님 “개관 10년 새 시작 준비할 터”

노인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재수탁 협약이 체결돼 불교계 복지운영의 공신력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2월 2일 서울시와 재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개년 운영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가섭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도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2010년은 그간 쌓아온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스님은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조계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은 2001년 개관한 이래 9년 동안 인근 지역사회에 주체적이고 활기찬 신노년상을 제시하며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왔다.

가섭 스님은 “앞으로 자원의 보고, 문화의 중심, 사회참여 선도, 상담의 중심지로서 건강한 노인문화 발전과 주체적인 신노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수탁 과정에서는 서울복지재단이 2009년 12월 9~10일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사업과 회계 및 법인의 재정과 운영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해 15일 재단 상임이사와 기관장의 최종 면접 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확정했다. 이나은 기자

청각장애 남편 배웅하다 쓰러져

생명나눔 2월의 환우 이우순씨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의 환우로 선정된 이우순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의 환우로 이우순(여 · 48)씨를 선정했다.

이우순씨는 2009년 12월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응급실에서 두개골을 절개해 혈종을 제거했지만 아직 명확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 현재까지 130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고 앞으로도 2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씨가 갑자기 쓰러진 날은 캄캄한 새벽 일터로 나가는 청각장애 환경미화원인 남편의 아침을 챙겨주려고 했던 날이었다.

이씨의 갑작스런 발병에 대학진학을 앞뒀던 큰 딸은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어머니를 간병 중이다. 둘째딸도 근로장학생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 부담이 워낙 커 2학년 진학이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빠와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겨온 두 딸의 올 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부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상담가 2010학년도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경은 방대한 상담사례집,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인가 2년제 특수교육기관으로, 불교의 기본소양과 상담심리분야의 전문능력을 두루 겸비한 불교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상담가의 원력을 세우신 분들을 모십니다.”

불교상담대학장 **담교 스님**

▣ 불교상담심리사란?

불교상담심리사는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 및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불교상담개발원에서 그 자격을 관리하는 불교상담심리전문가, 불교상담심리사 1급, 불교상담심리사 2급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요망)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원서문의 및 접수

조계사 교육관 4층 불교상담개발원

☎ 02)737-7378, 8803 FAX 02)737-8802

www.jabi24.org에서 불교상담개발원 검색

*** 접수마감 : 2010년 2월 말까지 ***

불교상담대학

■ **교육일정**
- 개 강 :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 교육기간 : 2년제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수, 목 저녁 6시 30분 ~ 9시 40분
- 모집정원 : 40명 내외

■ **불교상담대학 교과과정**

1학기	불교교리(필수)	불교역사(필수)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개론
2학기	불교상담(필수)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전화상담실습
3학기	경전의 이해(필수)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사이버상담실습
4학기	불교심리학(필수)	학습심리학	적응심리학	면접상담실습

■ **입시요강 및 접수일정**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 대학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 입 학 금 : 2만원
- 등 록 금 : 4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4452 (예금주 : 불교상담개발원)

※**교육비 할인대상**
- 자비의전화 상담원, 포교사 등 종단 포교자격자 및 군법사
- 종무원, 협력단체 및 사찰 직원, 동국대 불교대학생
- 조계종단 스님 및 이사 사찰 신도
- 본원 이사사찰 신행상담실 상담원

▣ **불교상담대학 졸업특전**
-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응시자격 부여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는 교계최초의 전문상담기관인 ‘사)자비의전화’의 각 상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 (전화상담실, 사이버상담실, 청소년사이버성상담실, 면접상담실)
- 사단법인 자비의전화의 법인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워크숍 및 행사에 참가

불교상담대학원

■ **교육일정**
- 개 강 :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 교육기간 : 2년제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금요일 9시 30분 ~ 17시 30분까지
- 모집정원 : 30명 내외

■ **불교상담대학 교과과정**

1학기	초기불교 수행과 상담(필수)	대승불교 수행과 상담(필수)	성격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
2학기	불경과 상담	자아초월심리학과 불교상담	정신역동상담 고급집단상담
3학기	유식학과 상담	수행 실참 인지행동치료	대상별 상담
4학기	명상과 심리치료	특수분야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사례발표/슈퍼비전)

■ **입시요강 및 접수일정**
- 입학자격 : 1. 본 대학의 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
  2. 정규 대학 과정 이상, 또는 상담관련학을 전공하여 졸업을 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3. 종단에서 인가한 불교교육기관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로 필수과목을 별도 이수해야 함.
  4.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5. 타 교육기관에서 본교 개설과목 가운데 일부를 이수한 경우, 나머지 과목에 대한 과목별 수강이 가능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 입 학 금 : 3만원
- 등 록 금 : 6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4452 (예금주 : 불교상담개발원)

▣ **불교상담대학원 졸업특전**

1. 불교상담심리사 1급 응시자격 부여
2. 자격증 소지자는 심리평가 및 불교적 심리상담 가능
3. 자격증 소지자는 불교상담에 관한 연구가능
4. 자격증 소지자는 교계 내외의 상담 행정업무 가능
5. 자격증 소지자는 불교상담심리사 1급 및 2급 수련중인 자에 대한 멘토링 가능

"한 세상 눈 뜨는 공부에만 매진하라"

경봉 스님 학술적 조명 최초 시도… 문손 정도 스님 東大 박사학위 논문 청구

경봉 스님(1892~1982)은 만해 · 효봉 · 구하 스님 등과 교류했던 인물로, 영축총림 통도사의 선풍을 크게 떨친 선지식이다. 경허 · 용성 · 만해 · 성철 스님 등 여러 선사에 대해서는 불교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나, 경봉 스님은 학술적인 조명이 시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경봉 스님의 문손인 정도 스님이 동국대 박사학위 청구 논문 '경봉 선사 연구'에서 스님에 대한 학술적 조명을 최초로 시도해 눈길을 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저서인 <법해> <사바세계를 무대로 멋있게 살아라> <삼소굴 일지> 등을 비롯해 <경봉 스님 말씀> 등 후학이 편찬한 스님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간화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통도사를 중심으로 가람수호와 교화에 남다른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에게 선과 교는 둘이 아니었다. <화엄경>이 설한 세계가 선의 세계와 같음을 누차 강조했을 만큼 스님에게 선과 교가 가리키는 세계는 하나였다"며 경봉 스님의 선사상을 선교일치와 생활 · 간화선풍으로 설명했다.

만일참선결사와 화엄산림결사를 주도하며 선풍을 진작시켰던 경봉 스님은 1700공안 외에 자신만의 화두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경봉 스님은 자신만의 화두를 통해 대중과 법담을 나누고 법거량 하면서 마조 · 임제 등의 조사선풍을 활발발(活潑潑)하게 드날렸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선풍을 펼친 경봉 스님(오른쪽)과 문손 정도 스님(위).

법어집에서 "경봉 스님이 법좌에 올라 주장자로 법상을 세 번 치고 이르시기를, 주장자 머리에 눈이 있는데 밝기가 태양 같고 순금은 불에 넣어봐야 알 수 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길에서 도를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 필요없다고 했으니, 대중은 무엇으로 이 도인을 대하겠는가?"라는 물음이 그 예이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심적 경지는 법어집 단락마다 게송으로 들어가 있다"며 "특히 스님만의 화두는 경봉 스님이 간화선을 대중화하고 현대화한 공로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경봉 스님의 선교겸수는 (성철 스님에게 내교외선內敎外禪이라 비판 받은) 보조 국사의 선교일치와는 다르게 선과 교가 하나인 차원"이라며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양노염불만일회'와 지금까지 통도사에 이어지는 '화엄산림결사' 등 결사는 개인적인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더불어 수행하고 실천하는 불교를 이루고자 하는 경봉 스님의 원력이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삶을 재가시기(~16세), 출가구도기(~36세), 전법도생기(~62세), 회향기(~91세)로 구분했다.

스님은 "경봉 스님의 삶과 사상 속에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용광로와도 같이 모든 불교계의 고민과 대안이 담겨져 있었다"면서 "경봉 스님이 주석하던 삼소굴은 근대 선지식들과 출 · 재가 수행자들이 녹아 하나가 된 용광로 같은 곳이었다. 이는 범성(凡聖)과 출 · 재가, 선교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모두 아우를 수 있었던 경봉 스님의 회통적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봉 스님은 정화운동에도 참여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선리참구원과 선학원 등을 중심으로 일제의 불교정책에 맞서 간화선의 선풍을 진작시키고 해방 이후 측면에서 정화를 후원했다"고 말했다.

정도 스님은 "'한 세상 안 나온 셈 치고 바보가 돼 오로지 눈 뜨는 공부에만 매진하라'며 납자들을 경책하던 경봉 스님이었다. 최근의 선풍토가 교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도 경봉 스님의 영향이 있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오늘날 한국 불교가 부산 · 영남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한 것은 경봉 스님의 선풍과 교화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경봉 스님은

양산에 장이 설 때면 커다란 걸개와 불화를 들고 나가 장터 한가운데서 법문했던 스님은 '입전수수'를 몸소 실천한 선지식이었다.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번 멋지게 해보라"고 호탕하게 외쳤던 스님의 장터 법문은 지나가던 사람과 물건 팔던 상인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듣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재미난 법문이었다.

경봉 스님은 24세에 모친상을 당한 뒤 인생무상을 느껴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합천 해인사, 김천 직지사 등 제방의 선방을 돌며 수행정진을 거듭했다. 경봉 스님은 "통도사로 돌아오라"는 은사 성해 스님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구도의 열정이 남달랐다.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돼가고 있다고 판단한 경봉 스님은 그제서야 통도사로 돌아왔다.

스님은 "옛 부처도 이렇게 가고/ 지금 부처도 이렇게 가니/ 오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 청산은 우뚝 섰고 녹수는 흘러 가네/ 어떤 것이 그르며 어떤 것이 옳은가 쯧!/ 야반 삼경에 춤을 볼지어다"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1982년 세수 91세, 상좌인 명정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스님이 가신 뒤 스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경봉 스님은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는 말을 남기고 이승과의 인연을 접었다.

"원효의 화쟁은 다원주의"

박재현 교수 '불교학연구'서 주장

지금까지 통일주의 혹은 통섭이론으로 알려졌던 원효의 회통 · 화쟁 사상이 통합주의보다 다원주의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재현 서울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간행된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 刊) 제24호에 기고한 논문 '해석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본 원효의 회통과 화쟁'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효의 사상과 핵심을 이루는 화쟁과 회통의 논리는 상이한 불교이론이나 종파 간 갈등을 전제로 통일 · 종합 · 화해의 메시지로 읽혀져왔다. 박 교수는 이러한 견해는 고려시대 의천 국사와 근대 최남선 등의 원효에 대한 시각과 평가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제했다.

박재현 교수는 "원효의 회통 · 화쟁 사상을 통섭으로 이해한 것은 오해 내지 선입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효는 서로 모순되거나 정합되지 않는 불교의 다양한 이론(주장)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무리 없이 소통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신론>은 법의 실체성을 해체해 깨달음의 문제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식론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을 <기신론>은 '섭(攝)'이라 표현했지만 원효는 <기신론>을 해석하면서 '통섭'이라는 말로 바꾸어 의미를 보강했다.

박재현 교수는 "그냥 '섭'이라고만 하면 모아들인다는 의미에만 치중하게 돼 통섭(統攝, Consilience)이라는 의미만을 갖게 된다. 원효는 '섭'에 '통(通)'이라는 한자어를 추가해 상이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는 의미를 보강해 통섭(統攝)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통'은 곧 소통"이라면서 "소통이 전제돼야만 '섭'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 원효의 통찰"이라며 "원효의 화쟁은 종교 집단 간의 갈등상황이나 중관 · 유식 등 특정 이론체계의 상호모순 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실체론적 사고가 서로 맞부딪히는 포괄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현 교수는 "화쟁과 회통의 논리를 통해 원효 사상을 규정하자면 무종파주의 · 종합주의 · 초월주의보다는 반실체론이나 다원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학연구> 제24호에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대승불교사상과 사회참여 일고'를 비롯해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유가행파 수행도에서 이타행의 문제', 우제선 동국대 교수의 '논쟁의 관점에서 본 인도 후기 유가행파의 중지', 박형신 고려대 박사의 '풍경소리를 통해 본 불교문화운동' 등 15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031)985-1627

조동섭 기자

천은사 성보문화재 집대성

국립중앙博 '천은사의 불교미술' 발간

지리산 천은사, 연곡사의 연혁과 불교회화 · 불교조각 · 불교공예 등 불교문화재 일체를 조사한 보고서가 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지리산 일대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2005 · 2008년에 천은사와 연곡사의 불교문화재를 조사하고, 그 결과물로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제1집 <천은사의 불교미술(부록: 연곡사의 불교미술)>을 발간했다"고 2월 4일 발표했다.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가 전국 사찰을 실사해 진행 중인 사찰종합조사 결과를 수록한 <미술사학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1993년에 제1집(흥국사 편) 발간에 이어 1997년 제2집(선암사 편), 2000년 제3집(선운사 · 내소사 · 개암사 편), 2007년 4집(은해사 · 동화사 편)까지 <미술사학지> 4권을 발간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권강미 학예사는 "앞으로 사찰소장 문화재를 비롯한 불교미술 관련 전시와 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로 그 폭을 넓히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병행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천은사는 828년(흥덕왕 3) 덕운 조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감로사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나옹 화상의 원불로 알려진 고려시대 금동불감(보물 제1546호)과 극락보전의 아미타불회도(보물 제924호), 괘불(보물 제1340호) 등을 비롯해 장르별 주요작품을 소개했다.

부록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걸출한 석조미술품이 남아있는 연곡사의 불교미술을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청 '고서·고문서 조사편람' 발간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해인사 대장경판 등 기록유산 조사에 관한 최초의 종합안내서인 <고서 · 고문서 조사편람>을 발간했다.

한국의 기록유산은 국가지정(국보 · 보물) 동산문화재의 40여 퍼센트를 차지한다. 해인사 대장경판을 비롯해 <직지심체요절> <동의보감> 등 기록유산 7건은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돼 있으나 지금까지 고서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와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편람은 153페이지에 걸쳐 고서 · 고문서 조사와 연대표, 관련 법령에 관한 자료 등을 담아, 각 기관의 고서 · 고문서 조사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기록유산의 보존 · 관리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기획 · 제작됐다.

문화재청은 편람을 전국 관련 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올려놓아 누구나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사상과 문화' 창간호 나와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연구 성과 묶을 것"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미산)은 최근 <불교사상과 문화> 제1호를 발간했다.

창간호에는 '붓다론: 우주적 사실과 마음의 사고방식으로서의 붓다'(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화엄경>에 나타난 불타관'(중앙승가대 본각 스님), '밀교적 불타관의 형성과 전개'(허일범 진각대 교수) 등 지난해 연구원이 불타관을 주제로 개최했던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이 수록됐다.

불타관과 관련한 '불타관의 발달사를 통해서 본 불교신앙'(노권용 원광대 교수), '<법화경>의 불타관'(중앙승가대 성우 스님)을 비롯해 '서산대사의 승군활동과 조선후기 추념사업'(황인규 동국대 교수) 등 투고논문도 게재됐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도널드 K. 스웨러 소장의 강연문 '21세기의 도전들에 대한 불교적 대응방안'이 실려 있다.

미산 스님은 창간사에서 "중앙승가대 부속 연구소들의 연구 성과를 하나로 묶어내고 학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교사상과 문화>를 발간하게 됐다"며 "중앙승가대 학문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인접학문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서울불교문화대학
Seoul Buddhist Culture College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승가학과(2년과정) 주간반/인터넷반

스님들께 수행의 바쁜 일정 속에서 불교 교육의 원을 실천하여, 체계적인 불교사상과 의식을 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에서 4기 승가학과 학인을 모집합니다.
강원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강의와 교계 최우수 교수진으로, 스님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과목들을 선정하였고 2010년 원전강독과 훨씬 보강된 불교의식 교육을 선보일 본 대학의 입학을 스님들께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법화경강의, 근본불교사상, 불교의식,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법화경강의, 인도불교사, 불교의식, 대승기신론
2학년	법화경강의, 중국불교사, 불교의식, 금강경강의, 유식·중관학	법화경강의, 천태소지관(원전강독), 화엄사상, 불교의식
특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대승기신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상담론	

※졸업자격 : 50% 이상 출석한 분만 졸업가능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 출석체크)

▶ 강의시간표 (1학년 1학기) - 주간반 기준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 20분				법화경 입문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2교시	오후 3시30분~5시				불교의식	근본불교	

■ 신입생 모집 : 총 60명 ■

구분	주간반 30명	인터넷반 30명
수업료	53만원(한 학기 분)	55만원(한 학기 분)
	입학금 10만원(입학식 1번만 납입)	

※주간반 개근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 성직자 교육을 원하시는 모든 승려, 법사, 행자(단, 은사 추천 시)
▶ 특 전 : 1) 2학년 과정 이수 후 일본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불교학과(6개월과정) 주간반/인터넷반

일반불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불교' 라는 교육이념 아래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5기 졸업생 3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불교를 바르게 알고 알리는 불자들을 양성하는 본 대학에 6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내 마땅히 중생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일깨워 줄 소중한 인연도량에 입학을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

▶ 교과목 소개 - 6개월 과정

교과목	강의 소개
근본불교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학 교수님으로부터 불교를 학문적, 철학적 논리로 보면서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전 과정을 배우는 강좌
불교신행강좌	이론적으로 배운 불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보현보살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입각하여 배우는 강좌
불교문화와사회	불교가 우주를 포섭하고 있음을 기초 교리에서 공부했다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자, 영어, 포교 대화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좌

▶ 강의 시간표 - 주간반 기준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20분					불교신행강좌	불교문화와 사회
2교시	오후 3시20분~5시					근본불교	

■ 신입생 모집 : 총 120명 ■

구분	주간반 60명	인터넷반 60명
수업료	18만원	20만원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바른 마음을 내신 모든 분들

■ 교수진 소개 ■

교과목	교 수	소 개
대승기신론	이평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학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불교학회 이사장 역임
법화경 강의	박 종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동국대학 사범대학 부고 교사역임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역임, 현 동산불교대학 교수
근본불교, 금강경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 · 박사 수료 인터넷 불교대학 지도교수
불교학개론 중국불교사	신규탁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석사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도 · 중국철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불교의식 강의	혜담 스님	1992년 인간문화재 정지광 스님 법상좌 범패·장엄부문 문화재 이수자
초발심자경문	운산 스님	전 강원 강사, 원전강독 강의
유식 · 중관학	양승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 · 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 강의, 티벳불교 전공
경전개설	이동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 대학원 금속공학 석 · 박사 학위 신락원(信樂苑)에서 매주 법화경 강의
불교신행강좌	여여 스님	불교학과 불교신행, 불교문화와 사회 강의
특 강	홍파학장님을 비롯한 교계 최상의 선지식, 교수진을 모신 강의 · 경장, 율장, 논장및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 초청 예정	

■ 접수 안내 ■

▶ 접수기간 :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반명함판) 2매
▶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홈페이지 공고)
▶ 입학일 : 입학일시 2010년 3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 원서 교부 접수 및 문의처 :
1) 교 학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 (우)110-550
2) 연 락 처 : 관음종 종립 서울불교문화대학 교학국
Tel 02)763-3001(9909) Fax 02)763-5851
3) 홈페이지 : http://www.seoulbcc.kr (입학원서 다운가능)
4) E-mail : yeodiamond@naver.com

일주문



불우이웃돕기 1000만원 전달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은 2월 2일 서울 성북구청 서창교 구청장에게 설 연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설맞이 쌀전달

진각복지재단 이사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2월 10일 설연휴를 앞두고 월곡동 불우이웃에게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



화엄경 산림법회 봉행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3월 1일 부산 문수선원에서 화엄경산림법회를 봉행하고 화엄경을 강연한다.



'헬로 달마스쿨' 출판기념회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어린이 영어법회 교재 '헬로 달마스쿨'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파라미타 2010 지도자 대회 봉행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2월 6~7일 마곡사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파라미타 2010 지도자 대회를 봉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중결사, 움직이는선원 동참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진오 스님은 2월 8~9일 경남 산청 대원사에서 움직이는선원에 동참, 간담회를 봉행했다.



평화재단 제36차 전문가포럼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2월 9일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우리는선우 2010 열린 법석

수원대 철학과 이주향 교수는 2월 6일 우리는선우가 주최한 '2010 선우 열린 법석'에서 '화두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전국행정대학원장협 회장 선임

동국대 행정대학원장 정창근 교수(국제통상학과)는 최근 전국행정대학원장협의회장에 선임됐다.

"최고 종책연구소로 만들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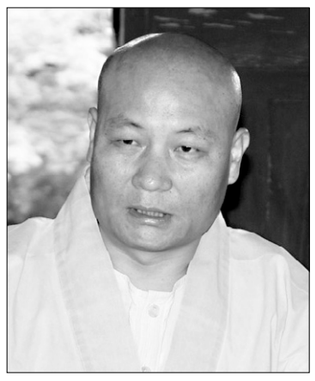
불교무설연구소 신임 소장에 법만 스님 선출

2009년 2월 개소한 불교무설연구소 신임 소장에 법만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이 선임됐다. 불교무설연구소 운영 주체인 무설포럼은 1월 28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정호 스님(대각사 주지 ·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후임으로 법만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법만 스님은 연구소장 취임에 앞서 "종단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무설포럼 스님들의 뜻을 모아 무설연구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설연구소가 종단 최고의 종책연구소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설포럼은 종단 중진스님들이 모여 매달 사회 각 분야의 핵심의제에 대한 토론과 학습을 병행하는 모임이다. 불교무설연구소는 포럼 회원스님들이 뜻을 모아 세운 종책연구소이다.

현재 무설포럼에는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범해 스님(개운사 주지 · 종회의원), 법안 스님(금선사 주지 · 교육원 교육위원장), 일화 스님(무우사 주지), 정념 스님(초심호계원장), 정호스님(대각사 주지 · 포교연구실장),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 종회의원), 진원 스님(해외선원 정진 중), 호성 스님(고운사 주지) 등 10명의 스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불교무설연구소는 지난해 <정부예산 중 불교계지원예산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계 대안교육현황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중포럼을 개최해 사부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법만 스님

법만 스님은 "불교무설연구소는 연구소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중 불교계지원예산 분석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2010년에는 청년층포교전략연구를 비롯해 6월 2일 예정된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선거후보자 종교성향 리서치'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만 스님은 1982년과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태허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선운사 재무국장과 포교국장 등을 거쳐 2007년 4월 선운사 제15대 주지로 취임했다.

법만 스님은 현재 선운승가대학, 고창종합복지관 운영위원장, 미당 서정주 문학관 이사장, (전북)남북청소년지킴이 추진위원장, 승려노후수행관 추진위원장, 백파사상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자승 스님 취임 100일 '아바타'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줄 왼쪽 세번째)이 '3D안경'을 쓰고 영화 아바타를 관람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전직원 150여 명은 2일 5일 오후 명동 한 극장을 찾아 영화 '아바타'를 단체관람했다.

총무원은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종무원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함께 관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선후배간 '교류의 장' 만들어

대불련, 경주서 KBUF 리더연수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경호, 이하 대불련)는 1월 25~31일 경북 경주에서 KBUF 리더연수를 개최했다.

'삶은 항상 빛나고 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대불련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직접 신라 불교 강의를 진행해 선후배간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대불련은 이번 연수에서 답사와 체험, 수행 실참, 토론, 공동체프로그램, 교리학습 등을 진행했다. '신라인의 불교와 나의 불교' '오늘 붓다는 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등 토론과 교리학습을 비롯해 황룡사지, 경주 남산, 대왕암, 사천왕사지, 선덕여왕릉,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흥륜사, 천수암, 수오재, 월암재 등 문화유적답사도 함께 실시했다.

수행에는 108배, 독경, 아미타불 염불기도, 참선 등의 실참수행으로 새학기 준비를 마쳤다. 이상언 기자

제16대 통리원장 지성 종사 취임



총지종은 1월 29일 역삼동 총지사에서 제16대 통리원장 지성(知性 · 사진)종사 취임식을 봉행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종조의 구국도생(求國度生)원력을 이어 나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지성 종사는 1993년 10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수계를 받았다. 동년 정혜서원당 주교와 통리원 재단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부 기획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총지종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 통리원장 직무대행, 학교법인 종립 관음학사 이사, 사감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 만보사 주교로 재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 양성위해 5억 기탁

東大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심산)가 장학금 5억원을 기탁했다"고 2월 1일 발표했다.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 심산 스님이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는 불교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장학회를 설립해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장학회 초대 이사장은 1 · 2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강선태 前 회장이 선임됐으며, 미래 불교 인재로 추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동문회장인 심산 스님은 "불교인재 양성의 큰 서원을 세우고 그 뜻을 모아 실천하는 일은 21세기 한국불교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인재의 양성과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맑고 향기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2010년 군포교지원 확대 실시

1억원 예산 편성 지난해 규모보다 2배

대학생불교학생연합회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단장 박호석)은 2010년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군포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 대불련 군포교 지원 사업은 최전방 부대 및 법사가 없는 군법당을 중점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군포교지원단은 육군 제1공병여단을 비롯해 20여 부대 군법당에 월 40명의 법사를 파견하고, 2200여 불자장병들에게 불서 · 법구 등의 비품을 지원한다. 또 의례집전 능력 등 법사 자질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합숙훈련을 전개하고 한국사이버불교대학(학장 정병조)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010)5055-2079 이상언 기자

멕시코 태권도 정착 기념 법회

2010년은 멕시코에 태권도가 전해진 41주년. 한국불교금강선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멕시코시티 태권도 도장 무덕관(관장 문대원)을 방문했다. 멕시코는 태권도 월드투어 개막전이 열리는 등 태권도 보급이 한창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활안 스님, 법일 스님, 대덕 스님, 성주 스님과 보현 법사는 무덕관에서 발우공양 및 참선 수행의 자리를 통해 멕시코 현지 사범들이 한국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도 제 36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불교학과 (2월개강)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18과목
교 수 진	무진장 대종사, 최종석교수, 백도수교수, 윤열수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박종교수정병조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주명철교수, 정엄스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 강의일시 및 모집인원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6시 (60명)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2시 (60명) ▶ **통신반** (60명)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입학금** 250,000원

■ 개강일시
▶ 불교학과 2010년 2월 접수중

■ 본회사무처 TEL : 732-1206 FAX : 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www.dongsanbud.net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팜프렛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관련학과 (3월개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중국고전(노자), 초발심자경문, 한문해석 금강경(1),(2) 등	임채우교수	3월 4일(매주-목) 오후7시
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일본차문화사(한국, 중국, 유럽) 재다학(1), 한국의 한다례	박전열 • 이춘실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2시
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3월 11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2시

불교대학원 (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유식 30송 (2)	묘주스님	3월 8일(매주-월) 오후7시
	아함의 교리와 사상	김형준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7시
	초기불교의 수증론(1)	최봉수교수	3월 11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 (2년과정)	다경,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신전	김진숙 • 혜성스님	3월 16일(화) 오후4시30분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 (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3월 6일(매주-토) 오후2시
범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	인각스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3시

동산 정오아카데미가 3월부터 시작합니다.

- 직장인을 위한 경영, 경제, 마케팅, 재테크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곳
- 2010년 3월 새롭게 문을 연 "동산 정오아카데미"는 만나기 어려운 최고의 교수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도심속의 교육장입니다.
- 동산불교대학의 색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오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와 강사들이 수강생과 함께 소통 하며,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엣세이 강의로 수업을 합니다.
- 점심시간을 활용한 정오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모든 직장인과 일반인들에게 쉽고 알찬 교육프로그램으로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교육타임을 제공합니다.

동산 정오 아카데미 (3개월과정)

제 목	내 용	교 수	교육일시 및 개강
재테크특강	• 증권재테크(3월) • 금융재테크(4월) • 부동산재테크(5월)	• 김영호교수 • 송승용교수 • 이승화교수	• 매주 수요일 11시 40~12시 55분(50분강좌) • 2010년 3월 10일(수) 개강 • (3개월과정 15만원)

동산 불교 교리강좌 (3개월과정)

제 목	내 용	지 도	교육일시 및 개강
불교교리강좌 제 4 2 기 (봄반)	• 불교의 정의, 불교의 분류, 삼보설 • 삼과설, 사제설, 연기법, 수도론 • 대승보살, 육바라밀, 불교문화 등	문종순법사 전정봉법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2010년 3월 10일(수) 개강 • (3개월 과정 6만원)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학장 무 진 장 / 이사장 안 동 일

법화종 동해교구장 현담 스님 선임

법화종 동해교구는 1월 27일 영덕 서남사 현담 스님을 신임 교구원장으로 선임했다.

스님은 위덕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포항교도소 종교위원과 영덕경찰서 경승, 영덕불교사암연합회 총무와 승가회 총무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현담 스님은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교구행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화종 동해교구는 포항과 영덕 지역의 50여 법화종 사찰로 구성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대구 대성사 신도회장 이 · 취임식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도산)는 2월 1일 경내 서원당에서 정기법회 및 제19대 신도회장 이 · 취임식을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신임 윤수현 신도회장은 "관음기도 정진을 통한 수행 풍토 강화와 신도 포교 극대화를 기조로 신심 깊은 신도를 확충하겠다"며 "각종 신행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 포교 강화, 대사회 봉사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윤 신도회장은 <불경의 이해> 등 4편의 편 · 저서와 전국교원불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금강불교대학 학장 소임도 맡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공주지역 포교키워드는 '복지'

마곡사 교구종회서 복지 시설 · 지원 확충 공감대 형성

충남 공주지역 불교가 '복지'를 키워드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2월 2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원혜 스님을 비롯해 60여 교구 주지 스님이 참석한 종회에서는 신년 예산 심의안 의결과 각 국별 업무보고 및 공주 지역 포교전략 등이 논의됐다.


2월 2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6교구 교구종회 모습.

포교전략 논의 과정에서 교구스님들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포교전략 수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주시 포교당 감원 원묵 스님은 주제발표 '청소년 포교전략'에서 공주시의 꿈의 교회, 중앙교회 등 이웃종교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공주지역 청소년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과 대학생 프로그램 개발과 포교전략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꿈의 교회만 해도 중등부, 고등부마다 찬양 · 봉사 · 드라마 · 광고 · 기도 · 워십댄스 · 러브레터팀 등을 따로 두고 300여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외에도 독거노인 돕기 · 반찬 배달 봉사 · 연탄은행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국내외에서 선교활동 체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종교와 달리 원묵 스님이 조사 · 분석한 공주시 청소년 포교 실태는 통계를 잡기도 어려울 만큼 소수였다. 공주대 · 공주교대의 대불련 활동만 해도 법회 참석인원이 3~4명에 지나지 않았다.

스님은 "청소년 포교를 위한 중심사찰이 없는 것을 비롯해 포교담당자, 인프라, 포교전략이 부재한 사무(四無)가 근본 원인"이라 지적했다.

원묵 스님은 "청소년 포교의 부재가 대불련과 청년포교의 부재로 이어져 공주지역은 물론 한국불교가 침체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마곡사 공주시포교당과 공주시 사암연합회와의 적극적인 포교형태와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관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전담 인프라와 담당자 구축 △공주시 사암연합회와 연계한 포교전략 수립 △어린이 법회와 중 · 고교 불교학생회 부활 △청소년 법회에 대한 지역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원묵 스님은 "공주지역 불교계가 앞장서 충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창립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금강사회복지관장 정운 스님은 '복지사업전략'에서 재가복지 등 다양한 복지사례를 통해 금강사회복지관이 공주지역 종합복지관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스님은 "대전 · 충남지역 복지시설 36곳 중 개신교가 29곳을 불교가 3곳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 시설이 기능교실 등 수익사업 중심으로 꾸려지는데 반해 불교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운 스님은 "이웃종교에 비해 수적 열세인 불교계 복지시설의 특성화를 위해 금강사회복지관을 사례관리 중심 거점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관리 중심 거점센터는 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먼저 반응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합서비스 시설이다.

스님은 "공주 불교가 지역민들과 가까워지려면 '1사찰 1복지' 운동이 필수"라며 "교구내 사회복지 지역법인을 설립해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 △자원봉사인증센터(청소년복지) △방문요양센터(여성복지) △노인여가교실 (노인복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노인복지센터 노휴 스님은 주제발표 '마곡사 사회복지전략'에서 공주지역 노인복지 전략을 방문요양 중심으로 소개했다. 스님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공주지역 복지수요에 대한 교구 차원의 시설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휴 스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복지가 국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됐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축인 방문요양서비스는 시설과 법인 자부담이 없어도 누구나 서비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공주시 교회마다 방문요양 복지센터가 생겨나는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불교계도 방문요양서비스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휴 스님은 "마곡사 말사마다 방문요양시설을 갖추기 위해 본사에서는 방문요양센터 설립과 요양보호사 소양교육, 복지센터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마곡사 본말사 요양센터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 소개했다.

한편, 지금껏 교구종회는 형식적이거나 문중 중심의 사안 해결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를 키워드로 지역 포교전략 수립을 결의한 마곡사 교구종회의 신선한 변화가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희망을 발원하는 등불 밝혀

천태종 광수사, 만등불사 점등 법회 봉행

천태종 계룡산 광수사(주지 도정)는 1월 30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행복한 대전건설과 새해 희망을 발원하는 만등불사의 소원등불을 밝혔다.


1월 30일 천태종 광수사 만등불사 점등법회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법회에는 대전사암연합회장 도안 스님과 부회장 효경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박성효 대전시장, 김학원 대전시의회의장,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등 대전지역 각 기관장이 참석했다.

도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대전 시민 개인이 행복해야 대전이 행복하고 대전이 행복하면 나라가 또 더 나가 세계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며 "사부대중 모두가 이번 점등법회를 통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마음속에 담자. 내가 행복해지면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사암연합회장 도안 스님은 덕담을 통해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큰 스님이 만등불사를 하신 것에 대해 불자들은 발심으로 등을 밝혀서 찌든 모든 것을 버리고 새해에는 밝은 마음, 밝은 행동으로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효 대전 시장도 축사에서 "나의 시정목표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자'이다"라며 "대전불자들이 큰 뜻을 모아 만등불사로 기원해 주신 덕분에 대전은 지난해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보문산 삼문사(주지 경혜)에서도 만등불사 점등법회가 개최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가정 · 아동 · 성폭력 사라져야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 예방 캠페인 실시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센터장 진원)는 1월 28일 경북 상주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장사씨름 상주한마당을 찾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 아동성폭력 · 스포츠 성폭력 반대 서명운동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 진원 스님(가운데)이 캠페인에 앞서 봉사자들과 웃어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는 2009년 11월 9일 여성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수탁 받아 사회복지법인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위탁 · 운영 중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시인들 머물던 곳 명승 되다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명승 제70호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월 4일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 제70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명승 지정된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은 나옹 스님을 비롯해 김시습, 이황 등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 머물며 글을 남겼던 곳이다.

청평사 고려선원은 아늑한 분지를 이룬 환경 속에 물이 거울같이 맑아 오봉산 견성암이 못에 투영된다는 영지(影池)와 계곡,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우러진 절경을 간직한 명승지이다.

한편, 청평사는 선종도량으로 고려 선종 6년 진락공 이자현이 문수원을 중건하면서 선원을 확대했다.

청평사는 조선 초기 상 · 하지 구조의 쌍지(雙池)로 개축된 한국 전통 연못의 조경시설인 '영지'를 비롯해 보물 제164호 회전문과 강원도 기념물 제5호 청평사지, 문화재자료 제8호 청평사 3층 석탑 등 다수의 유구 및 유적을 간직한 역사문화유적지이다.

조동섭 기자

자비 손길 곳곳에 청원 석문사

호국불교 효예종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 신도회장 이광례)와 미혼모센터 자비원(운영회장 조권섭)는 2월 3일 청주 소년원에 생필품 선물상자 30박스를 전달한데 이어 청주 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 옥천 배 50박스를 전달했다.

혜전 스님은 "설을 맞아 좀 더 많은 선물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늘 아쉽고 죄송하다"며 "판로를 찾지 못한 배를 구매해 농가도 돕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

명법사 화정 스님, 10여 년 전부터 도와


백용성조사 추모행사에서 도문 스님이 법문하는 모습.

평택 명법사 총무 화정 스님은 1월 31일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지도법사 도문, 회장 한명옥)에 1000만원을 후원했다.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백용성조사 유훈 사업에 5억 여원을 후원해왔다. 화정 스님이 이번에 후원한 1000만원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불사의 일환으로 발간 · 유포될 <참 아름다운 인연, 변화하는 연기생활의 365일>불서 간행비로 쓰일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발전에 더욱 정진해 달라

명성 스님, 제8회 법계장학금 전달식

운문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1월 29일 청도 운문사에서 제8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명성 스님(가운데)이 학인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이날 스님은 "정법구현과 불교발전에 더욱 정진해 달라"며 동국대 선학과를 수석 졸업한 비구니 백비 스님 등 7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

명성 스님은 불교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 법계장학회를 만든 뒤 지금까지 스님과 재가불자 53명에게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한편, 운문사승가대학(학장 명성)과 보현율원(율원장 흥륜)은 28일 각각 제46회와 제1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4대강 개발은 무모" 부경종교평화연대

부산경남지역 종교지도자 모임인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공동대표 도관 스님, 방영식 목사, 박창균 신부)는 2월 2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현 시국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는 성명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와 남북현안 논의 및 개선 △무모한 4대강 개발 중단 △세종시 사업의 원안 실천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실천 △현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차별 감사와 언론 감시, 통제 중단 △검찰 인사제도 개혁 △무소불위 권한인 감청을 자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경찰의 스님에 대한 집단 폭행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경찰청장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어르신들 위한 설 연휴 영화 상영

마산 금강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곽인철)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8~11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인기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는 8일 '달마야 서울가자', 9일 '태극기 휘날리며', 10일 '청담보살', 11일 '꽃피는 봄이 오면'의 순으로 복지관 내 별관 강당에서 해당일 오후 1시부터 상영한다.

곽인철 관장은 "이번에 상영할 영화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유쾌한 장르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인 만큼 공감할 만한 시대극 등을 선정했다"며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055) 221-8445

박지원 기자

부처의 마음 깨닫는 것이 '선'

월암 스님의 '행복선禪수행학교' 2기 모집

"간장 · 된장 맛이 짠지 싱거운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참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만큼 선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참선은 어려운 경지라서 아무나 할 수 없다는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 도심의 미타선원(주지 하림)에 문을 연 '행복禪수행학교'(교장 월암, 문경 석항사 용성선원장)가 2010학년도 제2기 입학생을 모집한다.

교장인 월암 스님은 "선종은 과거 중국사회에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본래부처'라는 쉬운 가르침을 통해 대중화됐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불교이론을 마스터하고 고수들만이 참선을 한다고 잘못된 생각이 일반화돼 일반불자들은 참선이 너무 어려워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이를 수 없다고 좌절해버리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행복禪수행학교 교장 월암 스님은 "선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스님의 원력이 오롯이 담긴 행복禪수행학교는 참선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진실과 함께 행복을 모토로 한 수행, 그것이 곧 참선이고 간화선임을 가르치고 있다.

스님은 학교의 설립취지문에서 "마음이 부처요, 사람이 부처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고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선이다. 선에 대해 올바른 이론(정견)을 정립하고, 실참수행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이르며(상구보리), 자비의 실천으로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는(하화중생) 행복선수행자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교 2년차를 맞은 행복禪수행학교는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2년 과정을 1년 과정으로 대폭 축소했다. 수학기간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대신, 2년 전문지도자과정을 신설해 선택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과정은 변경됐지만 생활 그대로가 선이 되어야지 참선과 삶이 둘이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념은 변함없다.

"삶 자체가 선으로 꽃 피워 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의 삶을 떠나서 진리란 없죠. 선을 어렵게 생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세태가 안타까운데, 본래 선의 모습으로 돌리자는 것이 학교의 목표이고 취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작된 선수행의 불씨가 전국 선불교와 불교 중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는 3월 12일 개강을 앞둔 행복선수행학교 2기 참선전문교육과정은 1년 2학기제로 참선입문에서 심화과정에 이르는 이론과 실참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30분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이론과 참선수행을 조화롭게 겸비해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선수행자들이 많아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개강에 앞서 2월 21일, 2월 28일, 3월 7일 3일간 오전 10시 30분에는 '선 수행의 대중화와 선풍 진작을 위한 선지식 초청 행복선 참선안심법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법회에는 월암 스님을 비롯해 설우 스님(청주 법인정사 선원장),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등 한국선 진작을 위해 용맹정진 해 온 덕망 높은 선지식들이 차례로 법석에 올라 감로법문을 펼칠 예정이다. (051)253-8686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국민통합 · 경제회복 바라며

법연원, 벡스코서 구구천도대재 성료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구구천도대재에 앞서 사부대중들이 삼귀의례를 하고있다. 맨왼쪽이 조연 스님.

대한불교법연원(회주 조연)은 2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구구천도대재를 봉행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구구천도대재는 지난 81일간 진행된 기도의 회향법회로 육법공양, 기도문 봉독, 시식, 헌령, 반야연, 조연 스님의 법어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이어졌다.

행사에는 조연 스님을 비롯해 정각스님(미룡사 회주 ·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불교신도연합회장)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지원 기자

청년불자들에게 장학금전달

BTN 염불공양회, 창립 15주년 정기총회 등 봉행

불교TV 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청년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염불공양회는 2월 2일 부산 동양빌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염불공양회의 장학금은 경희대 의학과 석사과정 김지연 학생과 영도여고 2학년 권지혜 학생 등 14명에게 총 800만원이 전달됐다.

하정선 회장은 "부처님 정법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창립된 염불공양회가 벌써 15주년을 맞아 감계무량하다.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통해 불교를 알리고 불교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힘을 기울여 온 것이 큰 보람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여생을 회향하고 싶다"고 말했다.

1995년 염불을 통한 봉사를 목적으로 창립된 염불공양회는 현재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염불공양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부산대병원 법당에 정기적으로 불서를 법보시하는 등 꾸준한 염불공양 외에도 다양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염불공양회는 2009년 조계종으로 부터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재)범어청소년동네 영희네 집

아이들 퇴소할 땐 예쁜미소 되찾아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이사장 정여 · 범어사 주지) 산하 영희네 집(소장 도관 · 범어사 총무국장)에는 9~24세의 가출한 여자청소년 1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단순 가출보다 가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탓에 부득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법으로 일시 · 단기 · 중장기 등 단계별 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희네 집은 1년간 머무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한 기관으로 최대 2년간 가출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영희네집 소장 도관 스님.

윤희선 국장(지도교사)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만큼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력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출 기간이 길어져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정고시 공부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학력을 취득한 후에는 스스로 선택한 진로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을 저축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술 등을 가르친다. 어려서부터 가정과 부모에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요리, 설거지, 양치질, 개인위생 관리 등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지도교사들로부터 배운다.

윤 국장은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눈 꼬리가 올라가 무언가 잔뜩 화가 나있는데, 1~2년 후 퇴소할 땐 정말 예쁜 미소를 되찾아 밝고 예뻐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지도교사, 관장스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었다. 갓 입소한 아이들은 쉼터에 대한 선입견과 규칙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한다.

범어청소년동네 이사장 정여 스님 및 여러 이사스님들의 관심과 사랑 또한 차갑게 얼어붙었던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데 큰 힘이 된다. 오랜 가출생활에 건강이 염려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약을 지어주는가 하면, 매달 쌀 60㎏을 지원해 주고, 명절이면 세뱃돈과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기도 한다. 공부방 한켠에는 현직 교사들이 후원해 준 문제집들이 있고, 지하실에는 얼마 전 사회체육기관을 통해 후원받은 탁구대와 운동기구가 있다. 불교계 기관이라고 종교 활동을 강요하진 않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스님과 불자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알게 된다.

윤 국장은 "청소년은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소외계층 중에서도 유난히 소외받는다. 최소한의 옷이나 용돈을 넉넉하게 줄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결연, 단기 및 장기 등 여러 형태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영희네 집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보면, 지도교사들과 같은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받았던 배려와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회향하려는 착한 마음씨에서 불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영희네 집 10명의 천진불들을 다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뿐이다. (051) 581-1388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신안 섬마을 불교잔치 마당 열려

광주지역 재가단체 '섬 불교포교단' 결성 후 암태도서 첫 활동

광주지역 재가불자들이 '섬 불교포교단'을 결성하고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불교잔치를 열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과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은 대한불교진흥원 후원을 받아 '섬 불교 포교단'을 창단하고 첫 행사를 1월 30~31일 신안군 암태도에서 개최했다.

'노만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기념의식, 문화공연, 어르신 점심대접, 이·미용봉사, 한방진료, 사찰조경 및 연지공사 등이 진행됐다.

31일 암태도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기념의식에는 대흥사 총무 도정스님과 노만사 주지 범도 스님을 비롯해 여규옥 암태면장, 전남도 임흥빈 의원, 주영균 신안농협장, 박덕례 암태여성단체 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섬 불교포교단은 1월 30일 ~31일 신안군 암태도를 찾아 암태도 주민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도정 스님은 격려사에서 "노만사는 대흥사의 말사지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범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와야 하는 이곳 암태도까지 와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많은 이들과 함께 하는 노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개회의식이 열리는 행사장 주변 노인회관에서는 무료한방진료가 진행돼 섬마을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사 3명의 도움으로 진행된 이번 진료에는 200여 주민이 좁은 섬마을 길을 따라 줄지어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씨쓰리 미용아카데미의 자원봉사로 마련된 이·미용봉사도 암태도 어르신들의 호응이 컸다.

이날 행사에 앞서 30일부터 섬 불교 포교단원들은 노만사에 연지(蓮池)를 조성하고 사찰주변 축대를 정비하는 등 울력을 펼쳤다.

행사를 주관한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섬포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암태도 등 섬포교에 힘써 도서지역 불교 활성화에 큰 힘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만사는 조계종 제22교구 대흥사 말사로 1973년 창건돼, 신안군 향토유적 전통사찰 제1호로 지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회적·지구적 삼재풀이 나서야"

광주 문빈정사 법선 스님

광주에는 사찰을 문화공간으로, 소외받는 이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내려는 이가 있다.

2월 4일 경인년 입춘일, 전국 사찰에서 삼재소멸을 위한 기도가 진행된 가운데 광주 무등산 입구에 있는 문빈정사(주지 법선)에서는 특별한 의미의 삼재기도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

주지 법선 스님은 "삼재소멸 기도에는 개인적인 삼재(三災)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사회적·지구적 삼재로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삼재풀이인 것 같다"며 "각 사찰의 삼재소멸기도를 사회적 삼재의 소멸을 기원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최근 삼재를 당한 곳으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아이티다. 아이티를 돕는 것은 삼재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아이티를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선 스님의 원력에 문빈정사 신도들도 동참했다. 문빈정사 신도들은 이번 아이티 삼재소멸기도에 자발적으로 나서, 동전과 보시금을 모아 아이티에 성금을 기부했다.

기복적인 기도를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시키기에 앞서 스님은 불교적 가치관의 확립과 신심이 갖춰져야 함을 강조했다.

법선 스님은 "신심을 갖추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불교는 사회성 결여를 극복할 수 없다. 법회 속에서 작은 사회적 실천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예가 사찰에서 하는 발우공양과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운동이다.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운동 등 불교적 생활 실천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찰법회는 생명존중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법회가 돼야 합니다."

현재 문빈정사는 '지렁이학교'와 '올챙이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지렁이학교에서는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을 보여줘 불자들에게 자연의 순환과정, 음식쓰레기로 인한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스님은 "깨달음을 거대한 담론으로 형상화하기보다, 삶 속에서 느끼고 실천하고 즐거움을 얻도록 돕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불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빈정사에 '바라밀 자원봉사단'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바라밀 자원봉사단은 매주 1회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한다. 사찰에서는 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선 스님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봉사단 운영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문빈정사는 '어린이 생명평화학교'도 운영 중이다. 올해 3회째 열린 행사에는 50여 어린이가 참여했다. 생명평화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무등산 역사와 생태, 생명의 소중함을 지도해 자연과 세계를 보는 인식을 스스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문빈정사 청년회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매주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단체별로 사회적 실천의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중인 스님은 "지혜는 불교지식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다. 실천방법 하나는 철저한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위한 바라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독재시대에는 독재를 반대하는 것이 실천행이지만, 이제는 자원봉사나 환경운동을 사찰에서 경쟁력 있게 선도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실천과제"라고 주장했다.

문빈정사를 무등산의 문화적 공간으로, 또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법선 스님의 바람이다.

스님은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이 활동했던 1980~1990년대에 무등민족문학회를 통해 암울한 대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법회와 강연을 했듯이, 문빈정사도 2000년대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법선 스님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실'을 열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실은 청소년들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법선 스님의 새로운 바람은 문빈정사에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어 1980년대 민주화와 통일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특히 스님은 "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이다. 환경단체는 무등산의 생태적 복원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산에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살아 있어야 아름다운 산이 된다"며 사찰 주도의 새로운 생태운동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법선 스님의 원력처럼 사찰이 사회를 위한 열린공간이 되고 문화를 선도하는 장소가 되길 소원하며, 문빈정사 신도들은 입춘기도를 회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봄 맞아 자비 손길이어져

광주 비전사·금선사 자비의 쌀 전달

입춘(立春)은 봄이 시작하는 날이다. 해마다 입춘이면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천장에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을 맞이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뜻)이라고 써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실천을 시작하는 광주지역 사찰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2월 4일 신도들이 공양 올린 '자비의 쌀' 1800㎏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하남농협노인복지센터(조합장 박종명), 광주시 월곡2동주민센터(동장 임승순), 두암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나숙희)에 각각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지역의 복지단체에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사찰에서의 기도가 널리 지역사회에 회향될 수 있는 법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이주성 센터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불자들의 따뜻한 정을 전달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비전사는 2004년부터 '자비의 쌀' 1만㎏을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왔다. 이번 입춘에는 1인 10㎏씩 120여 신도가 동참했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도 입춘을 맞아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바라밀실버하우스(이사장 현고),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등에 1000여 ㎏의 쌀을 전달했다. 쌀과 함께 신도들이 집에서 모금해온 저금통을 자비신행회와 광주공군부대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일명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 실천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자

우리문화연구원, 창립 선포식 개최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공동체 우리문화연구원(대표이사 원행·금산사 주지)이 창립선포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월 30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봉행된 우리문화연구원 창립 선포식 모습.

우리문화연구원은 1월 30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창립 선포식을 열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투자와 지속적인 계승 노력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연구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등 50여 지역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우리문화연구원은 우리문화를 아끼는 사람들을 결집해 시·군 단위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우리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연구단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창립선포식에서는 지부 결성이 끝난 정읍지부(지부장 일광사 승천 스님), 익산지부(지부장 박중근), 무주지부(지부장 안말순), 남원지부(지부장 윤평호) 지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원행 스님은 "창립선포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꾸리고 연구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족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정진에만 몰두하되 늙어서도 권태 느끼지 않았다”

27 천년 은행나무도량 용문사

양평 용문사의 트레이드마크는 은행나무입니다. 나이가 천년 하고도 백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은행나무는 의상대사의 지팡이라는 설과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올라가다가 ‘지팡이마저도 버리자’며 꽂아 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설이나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마의태자의 지팡이라는데 마음을 더 줍니다. 학식 높은 고승보다 비운의 태자에게 더 쏠리는 것이 중생의 마음인가 봅니다.

목불(木佛)을 조성하는데 은행나무는 좋은 재료입니다. 목질이 부드럽고 우윳빛 색이 좋으며 무엇보다 해충이 슬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죽어서 목불로 환생할 수도 있는데, 용문사 은행나무는 꿋꿋이 목숨줄을 붙잡고 삶을 지탱합니다. 살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외경(畏敬)을 풍기며 혹한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수령 1100년이 넘은 은행나무, 용문사 경내의 부도밭, 장식을 생략해 단아한 풍모로 수행자의 본분을 강조한 정지국사 부도.

용문사 부도밭은 은행나무가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본당으로 오르는 길 왼쪽에 소담스런 텃밭 같은 부도밭이 있고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밭과 은행나무가 본당과 각 전각들로 형성된 용문사의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 형세입니다. 세상 어느 것인들 시간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은행나무가 살아 온 천년이 넘는 시간도 사실은 한 점 티끌에 지나지 않으니, 지나 온 시간보다는 다가 올 시간의 무량함을 생각하며 더 숙연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부도밭에 내려 앉아 있습니다.

용문사 부도밭 안쪽 풍경은 소박합니다. 제법 규모가 큰 사적비 하나가 오른쪽에 서 있고 주인을 알 수 없는 여섯 기의 옛 부도와 최근에 세운 듯한 두 기의 부도가 엇비슷한 키로 서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움츠리지도 않은 풍경을 들여다보는 동안 은행나무 앞에서 용솟음치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합니다. 용문사에서 반드시 친견해야 할 부도는 절 뒤로 난 좁은 길을 따라 200m 쯤 올라 간 곳에 있습니다. 1398년 조선 태조 7년에 세워진 정지국사(正智國師)의 부도(보물 제531호)입니다. 먼저 부도를 살펴봅니다. 215cm 높이의 정지국사 부도는 전체적으로 양식이 간결합니다. 보존도 잘 된 편이어서 정갈한 수행자의 풍모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상대석과 몸돌과 지붕돌이 팔각원당형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문양을 생략하고 간소한 마감처리로 검박한 몸매를 보여 줍니다.

무덤덤한 장대석으로 부도의 영역을 다지고 네모반듯하게 지대석과 하대석을 설치했습니다. 하대석과 상대석은 연꽃잎으로 각각 복련과 앙련의 형상을 새겼는데 이것이 이 부도에서 가장 화려한 조각입니다. 다른 부도에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문양이 정지국사의 부도에서는 ‘신경 쓴’ 문양인 셈이니 질박하게 안쪽살림을 살다간 수행자의 면모를 부도로 드러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정지 국사는 고려 말 조선 초기를 살았던 고승입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천마산 적멸암에서 입적한 정지국사의 부도와 탑비가 용문사에 세워진 것은 그의 제자인 조안(祖眼)이 용문사 중창의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지 국사는 살아서 국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사후에 태조가 추증하여 국사로 받들었습니다. 단단한 안살림이 풍기는 법향에 왕이 감복하여 국사로 추증하고 부도와 탑비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정지 국사의 탑비는 부도에서 80m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연석에 홈을 파고 빗돌을 끼워 넣었는데 키가 110cm로 작은 편입니다. 귀부도 이수도 없이 빗돌만 다듬어 자연석에 끼워 둔 탑비는 국사의 탑비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보전 상태가 좋은 것이나 정갈하게 새겨진 글씨들이 풍기는 단단한 분위기는 어느 호화스런 탑비에 비해 뒤떨어짐이 없습니다.

정지 국사의 시대는 혼란기였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시절, 이름을 드러낸 고승도 있지만 이름 따위는 초야에 묻고 ‘부모미생전’의 ‘본래진면목’을 참구하는데 몰두한 고승도 있었습니다. 정지국사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권근(1352~1409)이 지은 비문에 그 풍모가 역력합니다. 비문을 읽어 봅니다.

최대한 간결한 조각으로 무욕의 아름다움 드러내
무학 대사와 함께 나옹의 제자 된 정지 국사 초야에 이름 묻고 수행에 전력
몸돌만 자연석에 끼운 탑비에 정갈한 수행 담겨

나옹과 무학 두 스님은 서로 이어서 명망이 높았으므로 왕사가 되어 종풍을 크게 떨쳤다. 사부대중이 물결처럼 달려 와서 앙모하여 따랐지만, 그러나 스님은 항상 홀로 명예와 자취를 감추고 산중에 은둔하여 수행하였고 한 번도 회상(會上)을 차리고 대중을 지도하거나 강주로서 강원을 주도하지 않았고 오로지 정진에만 몰두하되 늙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계속하고 조금도 권태를 느끼지 않았다.

입적하던 날, 시자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가부좌를 맺고 앉아 조용히 입적하였다. 화장 후 사리의 기적이 나타남을 보고서야 비로소 대중들이 그의 도덕에 탄복하여 참으로 도를 얻으신 분이라고 경탄해 마지 않았다.

이 짧은 글에서 챙겨 보아야 할 내용은 크고 큽니다. 나옹과 무학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 노닐었던 정지 국사이지만, ‘명예와 자취’를 감추고 홀로 산중 수행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란기에는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성입니다. 자신의 위상과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수행자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나옹과 무학처럼 당대의 최고 권력을 배경으로 행화를 펴는 길도 있고 정지 국사처럼 세상을 잊고 산중에 은거하며 수행본분에 매진하는 길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지 국사의 비문 가운데 ‘오로지 정진에만 몰두하되 늙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계속하고 조금도 권태를 느끼지 않았다’는 대목이 눈길을 잡아당깁니다. 난세에 세속적 욕망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절집에서도 배운 티를 내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의 안살림만 다지며 사는 것을 한결같이 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판은 날마다 싸움판이고 국가 안보는 여전히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열강들의 이권싸움은 계속 됩니다. 100년 전이나 600년 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난세이고 혼탁한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사바세계는 언제나 사바세계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불교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속적 욕망을 끊고 부처의 씨앗으로 복전을 일구고자 하는 출가자들이 오히려 세속의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세속의 중생보다 집요하게 물질에 집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고나면 새로운 종단이 만들어지고 눈길만 돌리면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는 행사가 열립니다. 물욕에 초월하지 못하는 수행자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수행자의 탈을 쓴 늑대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를 경계하셨지만 시절이 혼탁하여 부처님 말씀도 ‘귀찮은 잔소리’가 되어 버린 듯합니다.

정지 국사의 삶은 오늘의 한국불교계에 날카로운 사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공부한 무학 대사가 왕사로 잘나가던 시절에도 도반과 다른 길을 한결같이 걸으며 권태롭지 않았다니 그 뚝심이야말로 수행자의 본래면목이 아니겠습니까?

용문사 은행나무처럼 천년이 넘는 세월을 묵묵히 살아내는 저력, 그것은 바로 정지 국사의 수행자다운 삶과 맥이 통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 앞에서는 움츠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지 국사도 열반에 든 뒤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 다소 ‘유치한 쇼’를 한 바탕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문에 나오는 ‘사리의 기적’입니다. 비문의 첫대목에 바로 사리의 기적을 묘사하고 있으니 그대로 읽어 봅니다.

홍무(洪武) 28년 을해 7월 7일 고승 지천(智泉, 정지 국사의 법명) 스님이 천마산 적멸암에서 입적하였다. 화장을 마친 후 몇 일만에 스님의 제자인 지수(志修)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너는 어찌하여 사리를 방치하고 거두지 아니하는가?”라 하므로 깜짝 놀라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화장하였던 장소로 달려가서 무수한 사리를 얻으니 오색이 영롱하고 광채가 났다. 산중의 모든 스님들이 그곳으로 달려가 예배하고 정대하면서 미증유의 신비를 찬탄하였다. 주상(主上)이 소식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시고 정지국사(正智國師)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문인 조안(祖眼) 등이 미지산 용문사로 가서 부도를 다듬어 사리를 안치하였다.

정지국사의 쇼가 우리 시대에도 한 번쯤은 간절합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성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 23일 (15일)**
▲코 스 :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일리 → 불불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준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의료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인 원 : **30명 선착순.**
▲참 가 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입금계좌 :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접수마감 : **4월 2일 (금)**
▲사전설명회 : **4월 3일 (토) 오후 4시** (장소-개별공지)
▲문 의 : 임연태 (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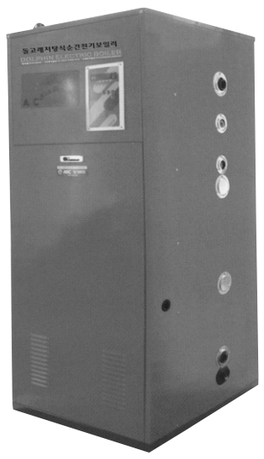
공동 주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



영봉 (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

어찌, 알고 모름이 '도'이겠는가

조주 선사는 남전 스님 문하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은 시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18세 전후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조주록> 첫 장에서는 "남전 스님과의 대화중에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말에 깊은 뜻(玄旨)을 돈오(頓悟)했다"고만 기록했을 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무엇이 도입니까?"
남전 "평상심이 도이다."
조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도 좋습니까?"
남전 "헤아린즉 어그러진다."
조주 "헤아리지 않고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남전 "도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망각(妄覺)이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기(無記)이다. 만일 참으로 헤아림이 없는 도에 도달하면 마침내 허공과 같아 말끔하게 트인 것이다. 어찌 가히 무리하게 옳다 그르다 하겠느냐."

조주 스님은 언하(言下)에 깊은 뜻(玄旨)을 깨닫고(頓悟) 마음이 마치 밝은 달과 같아졌다.

평상심은 선악시비 분별이 없는 고요한 마음

공부가 깊어질수록 수행자는 평범한 소처럼 산다

師問南泉 如何是道 泉云 平常心是道 師云 還可趣向不 泉云 擬卽乖 師云 不擬爭知是道 泉云 道不屬知不知 知是妄覺 不知是無記 若眞達不擬之道 猶如太虛 廓然蕩豁 豈可强是是非也 師於言下 頓悟玄旨 心如朗月.

평상심은 선악시비 분별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다. 선악시비로 마음이 들끓을 때는 평상심이 아니다. 아무 일이 없어 고요할 때가 평상심이다. 평상심은 평소 마음이다. 도는 원래 그렇게 사람에게 갖춰져 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헤아림이다. 도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 도는 알고 모름과도 전혀 상관없다. 앎은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만 그렇게 아는 것일 뿐이다. 모름은 전혀 기억조차 없다. 그런데 어찌 알고 모름이 도이겠는가.

만일 마음이 헤아림이 없고 알고 모름에 유혹되지도 않는다면 그 자체가 큰 허공과 같아서 확연히 트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도를 행하고 있다. 다만 마음이 선악시비에 이끌려 갈 때는 도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도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이 더 이상 무엇을 찾지 않고 선악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혹되고 안되고는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주인공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당신은 곧 돈오(頓悟)한 것이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그대 자신은 원래 부처이고 행복하다.

<조주록> 앞부분에는 조주와 남전 스님의 선문답이 나오므로 본 <조주록> 선해에서도 두 스님의 선문답을 먼저 소개하도록 한다.

남전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자, 조주 스님이 물었다.
조주 "밝음에 합합니까, 어둠에 합합니까?"
남전 스님은 곧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조주 스님은 곧 법당을 나와서 말했다.
조주 "저 노스님이 나의 질문을 하나 받고 곧바로 할 말이 없었던 거야."
수좌(首座)가 말했다.
수좌 "노스님께서 말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대 자신이 모를 뿐이다."
조주 스님은 즉시 수좌를 때리고 말했다.
조주 "이 방망이는 당두(堂頭)이신 저 노화상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南泉上堂 師問 明頭合暗頭合 泉便歸方丈 師便下堂云 這老和尙 被我一問 直得無言可對 首座云 莫道和尙無語 自是上座不會 師便打 又云 這棒合是堂頭老漢喫.

밝음이 기쁨이라면 어둠은 근심이다. 밝음이 희망이라면 어둠은 절망이다. 밝음이 부처라면 어둠은 중생이다. 밝음이 부귀라면 어둠은 가난이다. 세상사는 이렇게 양쪽의 가치에 얽매여있다. 그런데 밝음과 어둠은 본래 없는 것이다. 밝음과 어둠은 사람들이 정해 놓은 허망한 가치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양변에 유혹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당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밝음이라고 해야 할까, 어둠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대답이 될까? 도를 깨달은 선사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남전 스님은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그마저도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말없이 돌아간다 해도 결국 틀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저 노화상이 주장자 일방을 먹어야 할 당사자"라고 일성을 날렸다.

이 선문답은 2 · 3중의 그물이 쳐져 있어서 좀처럼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선문답을 보고 조주 스님의 최후 일성이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2중의 그물은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주의 주장자를 면할 것인가? 만일 이 납자에게 밝음과 어둠을 묻는다면 조주 스님에게 즉시 일방(一打)을 날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본 납자는 3중의 그물에 걸린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적토마를 타고 곧장 달려가 정봉에 깃발을 꽂겠는가?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불법을 아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남전 "산 밑 시주 집의 한 마리 소(牛)가 된다."
조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전 "지난 밤 삼경에 달이 창을 비추고 있었어."

師問南泉 知有底人 向什麽處去 泉云 山前檀越家 作一頭水牯牛去 師云 謝和尙指示 泉云 昨夜三更月到窗.

지유저인(知有底人)을 직역하면 '있음을 아는 사람'인데, 도를 아는 사람, 불법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안다(知)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아는 것을 말한다. 즉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도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남전 스님은 "사람들의 소가 된다"고 말했다. 소는 주인을 위해 묵묵히 일한다. 밭을 갈고, 수레를 끌어 물건을 나른다. 소는 말이 없고 힘들어도 불평이 없다. 불평이 없고 말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이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수행자는 한낱 평범한 소처럼 산다. 권위가 없고 형식이 없으며 따로 불교라는 테두리도 두지 않는다. 몇 명이나 도움을 받을지 생각하지도 않고 묵묵히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뿐이다.

지난 밤 삼경에 달이 창을 비추고 있었다는 말은 진작 자네의 그릇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뜻이다. 선사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바로 알아들으니, 자네 참 훌륭하구먼" 하고 말하는 방식은 선가의 말이 아니다.

선(禪)은 절대 단정(斷定)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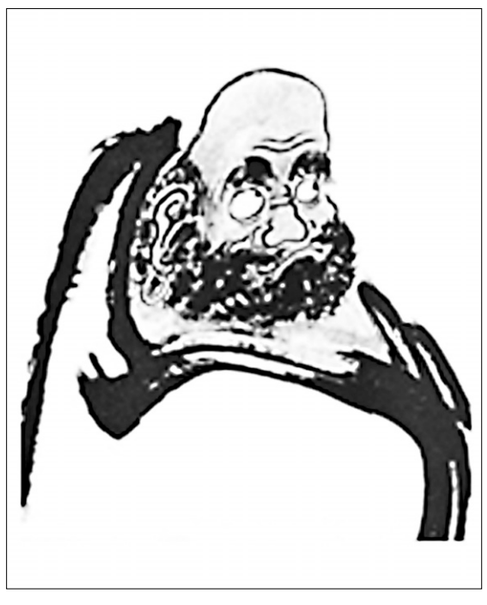
삼독심이 항하의 모래수 같으나

[원문]

又答阿僧祇問曰此 則三毒心也 胡名 阿僧祇 漢言 不可數 此心中 有恒沙惡念 一一念中 皆有一劫恒沙者 不可數也 以三毒惡念 如恒沙故 言不可數也. 眞如之性 旣被三毒之所覆 若不招彼恒沙惡念 云何名解脫 今者 能除貪瞋痴 卽超過三大阿僧祇劫 末世衆生 鈍根 不解大覺 甚深妙義三阿僧祇?密之說 遂言歷此塵劫 方得成覺 末劫 豈不疑誤修行之人 退菩提之道也.

또 아승지가 무엇인지를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승지는 삼독의 마음이니라. 호나라에서는 '아승지'라 하지만 한나라 말로는 수를 셀 수가 없다는 말이니라. 이 마음속에 항하의 모래수 같은 나쁜 생각이 있는데 하나 하나의 생각마다 모두 일 겁씩이 있느니라. 항하의 모래라 하는 것은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것인데, 삼독으로 생기는 나쁜 생각이 항하의 모래와 같으므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라.



동성 스님 作.

진여의 성품이 삼독에 덮였으니 항하의 모래 수 같은 나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찌 해탈이라 하겠느냐. 지금 탐 · 진 · 치 삼독의 마음을 없앨 수 있으면 바로 삼대 아승지 겁을 뛰어넘게 된다.

말세의 중생들은 우둔해 여래의 깊고도 묘한 뜻인 세가지 아승지 겁의 비밀스런 말씀(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 말하기를, '무한히 긴 세월을 보내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겁(말세)에 수행인을 의심하게 하고 잘못 알게 해 보리의 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설]

'아승지'란 한나라(중국)에서는 '셀 수 없는 수'를 말하지만 호나라(인도)에서는 삼독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탐 · 진 · 치 삼독에 의해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욕심을 끊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욕심이 끊어지면 마음은 편안해 집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게 되니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은 큰마음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면 끝이 없습니다.

'항하'는 갠지스 강입니다. 그 강의 모래알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수없이 많은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1겁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셀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한 번씩 할 때 마다 1겁 동안 윤회를 하게 됩니다. '항하의 모래 수 같은 나쁜 생각'은 항하의 모래처럼 우리의 나쁜 생각이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것인데, 삼독으로 생기는 나쁜 생각이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쓸 수 있고 해탈을 이루는 것이 진여의 자리인데 중생은 그 자리가 삼독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쉽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해탈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삼계(색계 · 욕계 · 무색계)를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 · 진 · 치 삼독만 마음속에서 끊어내면 삼대 아승지겁 즉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설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들 말합니다. 탐 · 진 · 치 삼독을 끊어야만 윤회에서 벗어 날 수 있으나 정진은 하지 않고 말로만 수행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탐 · 진 · 치 삼독은 말로써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익혀온 습을 끊어 내야만 하는데 습을 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정진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만으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비밀스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무한한 긴 세월을 보내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퇴보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며 수행인을 의심합니다.

이런 중생심은 모두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부처님의 비밀스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우주를 하나로 보고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간다면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2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과정 ◆

■ 실기교육 : 홍은사 주지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개 강 일 : 양, 3월 2일 화요일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단 1회 시술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 경락마사지, 지압요법 등이 아님.
전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2009년 12월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된 특별 수기공요법 (전 세계 20개국 특허 출원중임)
20여년의 많은 임상중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약간명만 면담 후 1:1 특별 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발 ◇

개인별 맞춤 전수 (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 전수금 : 오백만원
◎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 특별 수제자 특전 :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 등 종교인 환영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8호 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

영원한 것이 있다면 불심 자성 본성 뿐



'잘 사는 길' 궁금해 경주 가던 길 들른 통도사서 출가

덕이 없다면 관음기도, 지혜 부족하면 문수기도하라

동원 스님은 ...
1966년 입산 출가했다. 월하 스님을 법사로 혜각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고암 스님에게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40년 넘는 세월을 붓을 들고 수행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2009년 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지정됐다.

단청장 · 사명암 감원 동원 스님

새 봄을 알리는 입춘(立春)이 지났다.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이지만 유난히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정부 인사의 발언과 달리 "건설업 체감경기 10개월 만에 최저"라는 류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처럼, 봄은 왔는데 여전히 춥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동원 스님(전통무형문화재 단청장 제48호)을 만나러 양산 통도사 사명암을 향하던 그 날도 추웠다. 서울은 영하 9도 수은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서울보다 남쪽인 양산은 얼음 없는 영상의 기온이었다.

서울에서 추위에 움츠린 몸을 펴게 돕던 외투가 양산에 이르니 이마에 땀방울을 맺게 했다.

장자는 '제물론(齊物論)'에서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善惡) · 미추(美醜) · 아타(我他)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좁은 땅덩어리라고 하지만 남북의 공기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보면 세속의 삶은 구별이 없을 수 없다. 또, 구별을 해야 서로 다름을 알고 준비할 수 있으리라.

통도사에 이르니 "불보종찰(佛寶宗刹) 국지대찰(國之大刹)"이라 쓰인 글이 눈에 들어온다. "부처님의 으뜸가는 사찰이요, 나라의 큰 절"인 통도사는 사찰을 창건한 자장 율사를 비롯해 구하 · 경봉 스님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식이 머물던 곳이다.

본사만큼 빼어난 암자가 영취산 기슭과 골짜기에 자리한 것도 통도사의 자랑이다. 통도사에는 빼어난 풍광과 저마다의 불연(佛緣)을 간직한 13개 암자가 있다. 장독대와 들꽃이 유명한 서운암, 금와보살이 나툰 자장암, 재미있고 독특한 도깨비상이 눈길을 끄는 안양암을 비롯해 백련암 옥련암 수도암 서축암 금수암 반야암 극락암 비로암 백운암 그리고 사명암까지.

일주문에서 차를 달려 5분쯤 지났을까? 본사에서 왼편으로 1km를 달리니 이정표가 보인다. 왼쪽으로 서운암 백련암 옥련암과 함께 사명암 글씨가 보였고, 이내 사명암에 이르렀다.

조선 선조 6년(1573) 사명 대사가 주석하던 곳에 이기 · 신백 두 스님이 중창했다는 사명암의 첫인상은 "아름답다"는 상투적인 표현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었다. 도량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갈하고 담백한 느낌이었다. 단청장인 동원 스님이 주석하는 곳이라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부질없는 나그네의 망상이었을 뿐. 그냥 여느 절과 같이 '아름다울' 뿐이었다.

하지만 동원 스님은 여느 스님과 달랐다. 인터뷰 내내 스님은 청산유수와 같은 선담(禪談)을 주저 없이 쏟아냈다. 그림 그리는 스님이라 조용할 줄 알았던 나그네의 선입견이 사명암의 여법한 단청에 이어 또 한번 깨어져 나갔다.

차 맛도 달랐다. 스모키 향 비슷한 내음이 찻잔 가득한 헛개나무차. 동원 스님은 "목이나 축이고 시작하자"며 바쁜 걸음으로 찾아온 나그네를 잠시 쉬게 했다.

"전생의 업인지 그냥 절이 좋았어요."

스님은 자신이 출가를 하고, 40여 년을 한결 같이 붓을 들고 살아온 삶이 전생의 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 스님은 나이 열여섯에 모친에게서 여비를 받아 무작정 길을 나섰다. "어찌 사는 것이 잘사는 길일까?"하는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고민을 했던 청년은 그렇게 고향인 대전을 떠났다. 집을 나선 청년은 그 길로 구름과 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운수행각(雲水行脚)의 삶을 살게 됐다.

청년은 내장산 백양산 무등산 유달산 등을 거쳐 제주도를 찾아 한라산에 올랐다. 그가 뭍에 올라 찾은 곳은 부산이었다. 영도다리에 오른 청년은 "경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버스터미널을 찾았다. 때마침 버스터미널에는 양산 통도사행 버스가 출발을 앞두고 있었고, 경주를 가는 길목이라는 생각에 청년은 통도사행 버스에 올랐다.

통도사에 도착한 청년은 이상했다. 처음 찾은 곳이었으나 전혀 낯설지 않았다. 통도사가 주는 푸근한 느낌에 청년은 묵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홍법 스님에게 묵어갈 방을 물었다.

홍법 스님은 청년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너 여기서 살면 좋겠다."

청년에게는 스님의 그 말씀이 인생의 지남철 같았다. 다음날 경주로 떠나려 했지만 청년은 떠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 하루 시간은 흘렀고 청년은 자연스레 스님이 됐다.

전생의 '업'이라 표현한 동원 스님의 말처럼 청년이 스님이 된 것은 필연이었다.

스님은 "자유, 경치 좋은 곳, 그림과 대금을 좋아한다"면서 "스님이 되고 나니 좋아하는 네 가지를 모두 하고 살게 돼고 또, 부처님 공부하다보니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훤히 보여 다른 세상일은 싱거워졌다"고 말했다.

<금강경>의 "무릇 세상에 존재하는 상은 모두 허망하다(凡所有相 皆是虛妄)"는 것을 동원 스님은 체득했기 때문이리라.

하고 싶은 네 가지를 모두 하며 살 수 있게 한 출가자의 길이었기에 스님은 그 불은(佛恩)에 보답코자 새벽 예불만은 꼭 챙겨 왔다. 그 때마다 동원 스님은 참회와 발원과 깨달음을 부처님 전에 기도했다.

살아가면서 잘못 듣고 행함을 참회했고, 어떻게 살아야 안으로 마음을 잘 닦고 밖으로 좋은 인연을 지을지를 발원했다. 잠들면 어디로 가는지 깨고 나면 한량없는 망상을 그치고자 깨달음을 추구했다.

동원 스님은 대자유인이다. 불화를 그리는 짬짬이 산을 탔다. 출가 초기에는 15년을 운수납자의 본분에 충실(?)하게 설악산, 지리산을 펄펄 날아다니며 지내기도 했다. 봄 · 가을에는 그림을 그리고 여름이면 바닷가를 찾아 자연을 품에 안았다. 산을 타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세월은 흘렀다.

40년 넘게 들어온 붓은 이제 처음에 들었던 재미는 간 곳없고 오랜 벗처럼 그저 '업'이 됐다. 지금은 '업'이 돼버린 탱화를 그리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통도사의 매력에 흠뻑 젖어 갓 출가한 동원 스님은 도량 서까래에 칠해진 단청이 색동저고리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어느 날 스님이 행자방의 관음도를 펜으로 그렸을 때, 대중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미술에 관심과 소질이 있던 것도 아니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생각이 곧 화두, 화두가 곧 생각

었는데 스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 때 동원 스님의 솜씨를 알아본 홍법 스님이 은사 혜각 스님(1905~1998)을 소개했다.

은사스님은 선수행을 겸비한 철저한 율사였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살았던 은사스님은 상좌가 도량에서 라면만 끓여먹어도 쫓아낼 정도로 엄했다.

은사스님이 제주도 한 사찰에서 단청할 때 일이다. 누군가가 사온 간식에 얇게 썬 오징어 조각을 모르고 먹었던 혜각 스님은 사실을 알고 난 후 해우소에서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 스님은 돌도 부처님이라면 절하고, 나물도 고기라고 하면 토해내던 깊은 신심과 천진한 성품의 선지식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엄했던 혜각 스님이었지만 동원 스님에게만은 한없이 따뜻했다.

스님은 "밀양 금강대 토굴에서 은사스님을 모시고 3년을 살았을 때도 야단 한번 맞은 적 없었다"면서 "사명암도 은사스님이 '조용히 둘이 살아보자'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동원 스님은 은사스님 시봉을 수행 삼고, 붓을 죽비와 목탁 삼아 평생을 살아왔다.

스님은 "생각 생각이 모두 선으로 선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나에게는 생각이 곧 화두요, 화두가 곧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음으로 생활하며, 선은 마음 닦는 것이라 일상생활과 선은 둘이 아니잖아요? 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허망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불심 자성 본성 뿐이지요. 때문에 누구나 마음 닦는 것을 일 삼아 살아야 해요."

동원 스님은 항상 바쁘다. 이 날도 스님은 화실에서 열축(탱화는 '폭'이 아닌 '축'으로 센다) 규모의 시왕탱을 그리고 있었다. 40년 넘게 단청과 탱화를 그려온 스님의 손길은 전국 사찰 곳곳 안닿은 곳이 없다. 캐나다 서광사, 청도 운문사, 대구 동화사 등 100여 사찰에 단청 불사를 하고 국내 최대 후불탱화로 손꼽히는 조계사 대웅전 탱화(750cm×450cm)를 그린 것도 동원 스님이다.

원력과 신심으로 올곧게 작업해 온 스님이기에 제방에서는 "고려불화에 준하는 세밀한 탱화를 조성하는 곳은 사명암 동원 스님 뿐"이라는 찬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나그네는 스님이 혹시 은사스님에게 남다른 필법이라도 전수받은 것은 아닐까 싶어 물었다.



"탱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발심하고 참회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경전을 대신하고 부처님 진리를 대신 한 것이 탱화에요. 탱화를 그리는 일은 부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일은 신명을 다해야 하고, 신명이 들지 않으면 영험 없다는 것을 근래에 알게 됐습니다."

우문에 현답이었다.

이어 스님은 "막상 세필(가는 붓)을 쓸 때는 숨도 크게 못쉰다"면서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듯이 탱화 그리는 것 또한 같다"고 강조했다.

동산 스님은 "아미타탱화를 그리기 전에는 <아미타경>을 읽고, 아미타회상을 상상하며 불보살을 출현시킨다. 산에 대한 진리를 표현한 것이 산신탱화이고, 물에 대한 생명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 용왕탱화"라고 설명했다.

동원 스님은 요즘 '아미타 수행'에 매진 중이다.

한때 매일 4000배 이상 절하며 기도정진을 그치지 안았던 스님이었지만 하루는 꿈에 귀신들이 보였다. 스님은 "<지도론>에 '수좌는 귀신도 속여야 한다'는데 꿈에서라도 귀신을 못다뤄어쩌나 싶었다. 꿈마다 귀신이 계속 따라 다니길래 '아미타불'을 부르니 귀신들도 합장하며 '아미타불'하고 지나갔다. 그 후로 '아미타불' 정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 스님은 "기도를 하기 전 자기부터 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도에 분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근기따라 수행법이 다르듯 자기에게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덕이 없다면 관음기도를 해야겠지요. 덕은 자비를 뜻하니까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문수행을 하고 문수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살아가는데 원망과 원결, 장애가 많다면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은 항상 많은데 실행이 따르지 못하는 분에게는 보현행과 보현보살 기도를 권합니다."

스님은 "자기 업을 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성, 돈, 기술 등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의 업이라는 설명이다.

동원 스님은 "팔만사천 법문이 곧 마음"이라면서 "펼치자면 시방세계를 두루 덮고도 남고, 감추기로 하면 실오라기 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을 그리는 탱화는 경전을 그려내는 작업"이라면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지장보살은 대원을, 관음보살은 자비를 그리는 것이며, 부처님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옛날에는 탱화를 '탱(幀)'이라고만 했지 탱화라고도 안했습니다. 예술작품으로 인식하면서 '탱화'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탱화를 보면 등분이 안 맞아도 그림에 힘(기운)이 느껴집니다. 원력과 신심으로 조성했기 때문인 것을 근래에야 알게 됐습니다."

스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은 앞·뒤를 비롯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린 탱화가 그런 부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우리시대 한 분야의 최고 장인을 일컫는 칭호이다. 40년 넘게 탱화와 단청을 그리며 은사스님을 이어 일가를 이룬 동원 스님. 스님의 겸손은 영취산을 넘어가는 태양과 같았다.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일이면 다시 원력과 신심 가득한 붓을 쥐고 부처님을 사바세계에 나투게 할테지만.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1. 미주 포교의 선구자 삼우 스님

캐나다와 미국 동부지역에서 서양불자들에게 미국식 한국선을 가르치고 있는 삼우 스님은 미주포교의 선구자다. '망치를 들고 불자들과 함께 절을 짓는 스님'이란 미국 언론의 소개는 스님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41년 범어사 동산 스님께 출가해 설봉 스님에게 선을 배운 삼우 스님은 1966년 일본 임제종 평림사와 광덕선사에서 수학하며 '무연대비'(無緣大悲)의 정신으로 세가지 원을 세웠다.

첫째는 바른 생각과 정직한 행동으로 개척불교에 앞장선다.

둘째는 서양불교 개척은 나의 역사적 사명이다.

셋째는 대화와 친선을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에 선원 개원… 미주불교 기반 다져

스님은 이러한 대서원을 갖고 1967년 8월 뉴욕에 도착했다. 맨해튼 42가 방 1개짜리 아파트를 얻은 스님은 UPS배달회사에 들어가 밤에는 일을 하며 낮에는 미국사람들에게 참선을 가르쳤다. 스님이 선방을 먼저 개설한 것은 첫째, 실참 위주인 '선'이 미국인들이 쉽게 따라 올 수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들뜬 생각만 가라앉히면 성적등지(惺寂等持)의 평화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스님의 맨해튼 선방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공부를 위해 찾아오는 이도 있었지만, 당시 베트남 전쟁 징병을 피해 해외로 도망치려하는 청년 학생들도 많았다. 스님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차라리 반전운동을 펼치다 감옥에 가면 참선운동을 하라"며 피하지 말고 어려움에 직면해 이겨낼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활동도 잠시 스님은 비자가 만료돼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스님과 인연이 닿은 프랑스 소르본대 룰만 교수가 콜롬비아대학 게리 제갸드 종교학과 교수와 호레이스 포리스 박사에게 소개해 한국선불교를 알릴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결국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스님은 1968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로 떠나 멕길대 철학과 교수들과 시민운동을 펼친다. 삼우 스님은 반전 운동과 연계해 시민선방을 만들고 그 곳 학생들이 참선 등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

몬트리올 멕길대에서 4년 동안 시민운동에 전념한 스님은 토론토 대학 근처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스님은 식당,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뉴욕 사회운동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2년간 한국선불교 연구를 진행한다.

스님의 포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스님이 후두결핵으로 인해 요양원에 수용된 1973년부터였다. 스님은 그곳에 있는 12명의 환자들에게 말없는 행동으로 '자타불이'(自他不二) '진속불이'(眞俗不二) '생사불이'(生死不二)의 가르침을 전했다.

40여일 만에 요양원에서 돌아온 스님은 선불교를 연구하는 것을 포기한다. 스님은 교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불교를 선양키 위해 3년 결사에 들어갔다. 스님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참선을 가르치는 한편 먼 타국에서 고생하는 한국교포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스님의 지하 아파트에는 참선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이 차차 늘기 시작해 1976년에는 제자 수가 15명에 달했다.

스님은 히피 문화 등으로 당시 미국 사회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미국청년들에게 선문화를 알리기로 결심한다.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토론토 우범지대 헌 집을 사찰로 가꾼다.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5시에 108배를 올리고 참선을 한 뒤 공사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스님에게는 망치가 '신심의 도구'가 됐고 공사현장은 수행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장이 됐다. 1979년 그렇게 토론토 선련사가 완공됐다.

스님은 토론토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지역에 불교를 널리 알렸다. 1981년에는 미국 미시건주 앤아버에 자혜불교회(Buddhist Society for Compassionate Wisdom)를 설립했으며 1991년에는 시카고에 선원을 열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에도 선원(Centro Zen Budista)을 설립했다.

스님은 선원 개원 외에도 1986년 시카고 미륵승가대학(Maitreya Buddhist Seminary)을 설립해 법사 양성에 나서는 등 미주불교의 기반을 다졌다. 또 스님은 1986년 미주 내 불교 종단의 교류와 협력를 위해 법사 모임인 '북미의 선불교(Zen Buddhism in North America)'를 주관했다. 또 87년 8일간 '북미세계 종교회의'를 성료하기도 했다. 스님은 불교수행지 '스프링 윈드'(Spring Wind)를 발행하는 등 문자포교에도 적극 나섰다.

미국포교의 기반을 다진 삼우 스님은 지금도 미주 지역에서 승려 및 법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스님은 노인불자들을 위해 공예부락, 장수마을을 찾아다니며 평화교원에 들어갈 때까지 안심입명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바랑을 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스님의 실천적 민중불교는 재미교포 나눠먹기식 불교운동을 혁파하는데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새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33>

이타 · 영혼 향상의 불교적 복지에 주목해야

아쇼카왕의 정치 · 복지관은 중국과 일본 제왕의 규범돼

불교의 정치관은 전륜왕의 사상 속에서 나타난다. 마다카국의 국왕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 아쇼카왕은 그의 재위 중 전륜왕의 사상을 실행하면서 복지정책을 펼쳤다.

불교성전인 <장아함경(長阿含經)>과 <유행경(遊行經)>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다음 일곱 가지를 설교하고 있다.

⑴ 회합을 통하여 정치를 논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을 엄히 지킨다.

⑵ 상하심(上下心)을 하나로 화합하고 더불어 국사를 논의한다.

⑶ 국풍(國風)을 존중하여 문란하게 하지 말며, 예(禮)를 소중히 하고 의(義)를 공경한다.

⑷ 남녀의 구별을 바르게 하고 장유(長幼)의 질서를 지켜서 사회와 가정의 순결을 잘 보전한다.

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에 봉사한다.

⑹ 조상의 제단을 우러러 받들며 제사를 모신다.

⑺ 도(道)를 존중하고 덕을 숭상하며, 덕이 높은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고 후하게 공양한다.

또 <법화경(法華經)>에 설파하고 있는 이상적인 왕은 백성들에게 '세상의 즐거움보다 올바른 가르침으로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의 책무는 백성을 지키는데 있다. 왕은 백성을 국가의 보배로 삼는다. 이것은 백성이 평안하지 않으면 정도(政道)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륜왕이 바로 이러한 이상적인 왕에 해당한다. 전륜왕이란 가계(家系)가 바르고, 신분이 고귀하고, 사방을 잘 제어하며, 또 불법의 가르침을 지키는 왕을 말한다.

아쇼카왕이 바로 이상적인 왕, 전륜성왕의 대표적인 예다. 아쇼카왕은 살육전쟁으로 큰 승리가 한창일 때 별안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종래의 무력주의를 버리고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평화롭고 자비로운 정치를 펼쳤다. 아쇼카왕이 '신들에게 사랑받은 따뜻한 모습의 왕'으로 자칭한 것은 전제군주에서 자신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개 인간으로서 백성을 따뜻한 관용으로써 접할 것을 원하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승(高僧)에 대하여는 절대 귀의의 태도를 취하고, 인민일반의 모범으로서 스스로를 바르게 보전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안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충분히 논의를 다하지 않으면 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쇼카왕은 '전 세계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나의 임무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정치의 첫째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 이익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 양면의 이익을 가리키고 있다.

둘째, '모든 국민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연대와 공평을 중시했다.

셋째, '법의 실천'을 설했다. 물론 이 법은 불법(佛法)이다. 우주의 법칙이며 사회규범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정도(政道)이다. <용수의 대승사상>(관음출판사)에서도 법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며, 그들이 감동할 때 최고의 정도라 설파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가난한 자에게 조세를 감면해주고 자산의 평등과 이


그림 · 김필헌

타(利他)의 실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왕은 국민이 불법승(佛法僧)에 귀의할 것을 권장하며 양친 및 연장자에게 순종할 것, 노예와 피고용인에 대한 바른 대우방법을 설명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살생을 금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를 권장했다.

구제책으로 인간과 동물을 위한 의료시설을 만든다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공원을 만들고, 녹음이 많은 나무(가지마루)나 열매가 여는 망고를 심고 음수대를 정비하며 당연히 동물 애호에도 진력했다. 또 여성 교육에도 힘썼고,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미신을 타파했다.

아쇼카왕의 정치가 그 후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왕의 규범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대승불교가 전파된 일본을 살펴보면, 불교의 흥융을 나라의 정책기조로 삼았던 성덕태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관개 배수를 위한 연못, 둑, 도랑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고 흉년에 대비하여 각지에 '미야케'(屯倉, 조정의 직활지)를 두었다. 또 병자, 가난한자 등을 구제하는 복지시설을 대도시(오사카 등) 큰절(사천왕사)에 지어 그들을 양호했고, 그 후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시대에는 약초원(藥草園)등의 사회복지시설도 건립했다.

복지정책의 근저에는 인간의 생명과 같은 연대관계에 있다는 <화엄경>의 중중무진연기(重重無盡緣起)사상이 있다. 성덕태자가 채택한 삼경의 하나인 <승만경(勝鬘經)>에는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비축하지 말고 모은 재물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잡보장경(雜寶藏經)>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모르고 지내왔는데, 복의 씨앗을 뿌릴 밭인 공양의 기회를 보고 신앙심이 일어나 아까워 남 주기 싫은 마음을 버리고 베풀었던 것이다. 진정한 부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메이지30년(1897년)에 불교지 <명교신지(明教新誌)>에는 불교는 해탈종교에서 사회적 종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창됐다. 또, 불교의 자비관을 근대사회 가운데 자리매김하면서 '자리이타일여(自利利他一如)의 여래(如來)'에 의한 자선으로서 포착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불교적 복지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불교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지닌 동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리이타불여의 여래에 의한 자선'은 불교복지의 근본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

구미 경제학에서 복지는 초기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의 비참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국가의 힘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시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경제의 모든 초석을 다시 놓으려한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경제학이었으나, 그 귀결은 소련 및 동유럽의 실정에서 분명하게 실증해 보여주었다. 이것을 상기하면 위기신학의 칼 바르트가 사회주의 운동에 몰두하던 중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 증대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깨달아 영혼의 구제를 지향하는 신학자로 전환한 심경이 이해될 것 같다.

결국 불교의 복지는, 처음부터 이타(利他)와 영혼의 향상을 목표로 했던 것에 오늘날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㉝ 쇄신(刷新)

운전에 바빠 주유소 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리더십 워크숍에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청중을 향해 물었다. "여기 운전하기 바빠서 주유소 들릴 시간이 없다는 분 안계십니까?" 청중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중에는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일에 쪼들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한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인가? 몸의 건강만 건강인가?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사실에 눈을 돌려보면, 일이라든지, 현안에 매달려 정신적 건강이 피폐돼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주유소에 들려 연료를 재충전하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언젠가는 가솔린 탱크가 바닥나고 차를 길 한복판에 세워야 하는 일이 오는 것처럼, 건강도 이를 쇄신하고 재충전하는 일을 계속 미룬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건강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했지만, 코비 박사는 자기리더십(Self Leadership)의 명제로서 네 가지 측면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이를 쇄신하라고 말한다. 신체 · 정신 · 영적 건강의 쇄신, 그리고 관계(Relationship)의 쇄신이다.

신체적 쇄신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체력 조건에 맞추어 매일 적당량의 운동을 빠짐없이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빠짐없이'라는 것이 주도성(Proactivity)을 시험하는 큰 도전이 된다. 두 번째 노력은 영양소의 투입인데, 일반인의 경우 나이 40세가 넘어서면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많은 효소가 있다 하며, 이 중 필수적인 효소, 미네랄 등은 외부에서 확보하여 투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적 쇄신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가솔린 탱크에 남은 연료의 양을 눈금으로 표시해 주는 계기(計器)가 없기 때문이다. 이 탱크의 충전은 주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의 리스트를 만들어 시작하라는 것이 쇄신을 위한 실질적 충고이다. 달라이 라마의 충고처럼 적어도 일 년에 한번은 이전에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눈에 띄는 대로 리더십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것 등도 정신적 쇄신을 위한 좋은 처방이다.

수행을 하는 불자의 경우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명상, 참선하며, 또한 여러 가지 봉사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세계를 늘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거나, 참선 · 명상의 기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사명서(Personal Mission Statement)를 만들고, 이를 새롭게 하는 일 등을 영적 쇄신을 이루는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경우 매일 108배를 끝내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좌선하는데, 신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의 쇄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관계의 쇄신인데, 이것은 나와 내게 소중한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잔고를 늘여나가는 작업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만의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양을 잔고로 하는 계좌가 하나씩 생겨나는데 이를 코비 박사는 '감정은행계좌'라고 명명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 배려, 호의,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는 것,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사과,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의 흉을 보지 않는 행위 등은 이 계좌에 예입(預入)하는 행위가 되고 그 반대는 인출(引出)이 된다. 관계의 쇄신이란 이 계좌에 뜻하지 않은 인출이 생기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고, 끊임없이 예입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쇄신은 지렛목을 옮겨 힘의 효과성을 높이는 일, 활의 시위를 당겨 팽팽하게 하는 일 등과 같은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는 일이므로, 나무꾼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톱날을 가는 일'에 비유된다. 이 일의 중요성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어떤 일과 비교해보아도 그 우선순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긴급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미루게 된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네 가지 분야의 쇄신을 실행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한 독자가 있었다 하자. 그가 오늘 결심한 쇄신의 행위를 며칠이나 지속할 수 있을까? 길어야 3일이라는 것이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이 있는 연유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행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삼일 마다 작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쇄신을 통한 자기 발전은 언제나 결심-실행-좌절-결심-실행이 되풀이되는 나선형의 향상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선지식들이 '정진(精進)'을 권면하는 말씀을 그처럼 많이 남기실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 한국코칭센터 고문





갈 곳 잃은 조계사 '반야심경'

사찰 문화 공간 활용 마인드 빈약 드러낸 대표 사례



조만간 조계사에서 철거될 예정인 미술가 이종섭의 '반야심경'.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인근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과 불교를 알리는 포교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조계사는 불자 · 비불자의 구분 없이 도심 속에서 불교의 향취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조계사에 가면 설치미술 작품 '반야심경'을 볼 수 있다. 경전을 현대예술로 표현한 조형물이라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사찰에서 만나는 예술작품인 까닭에 조계사를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반야심경은 작년 10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조계사 경내에 설치됐다. 미술가 이종섭씨가 <반야심경> 260자를 쇳물로 써내려간 가로 14m, 세로 7m의 대형 조형물이다.

이씨가 2년 여에 걸쳐 제작한 작품으로, 특별한 장소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전시형식이다. 이씨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작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해 생경스러움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반야심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관심이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의 행보에 대해 더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유는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은 설치조형물인 까닭에 한번 작품을 설치하고 해체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며, 규모도 큰 편이어서 전시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계사에서 철거하면 이전해서 전시할 공간이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미아 신세가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조계사 스님들이 애당초 경내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며 "조계사의 이런 태도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홍보팀 관계자는 "주지스님이 작품을 철거하라고 한 것은 맞지만, 계약했던 시간보다 더 연장해 전시를 이어왔고, 당장 작품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는 없고, 단지 땅이 녹는 봄쯤이 되면 작품을 철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작가는 "12월 초까지 전시 예정이었다. 예상외로 조계사를 찾는 분들에게 호응이 좋아 지금까지 계속 전시해오고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의 전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교 팝 아티스트 김영수씨는 사찰이 문화공간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스님들은 사찰 건물 조성 시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찰에 불교조각공원 같은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보는 시각이 닫혀있다. 불교도 이제는 열린 눈과 마음으로 문화를 함께 향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사찰은 대체로 부지가 넓다.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산사음악회나 문화축전 등을 통해 불교미술제, 현대불교미술 비엔날레 등을 개발해 불교도 알리고, 불교를 토대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립 시 친환경적인 녹지시설과 함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까지 마련한 것은 현대인들이 환경과 문화적 공간에 점차 관심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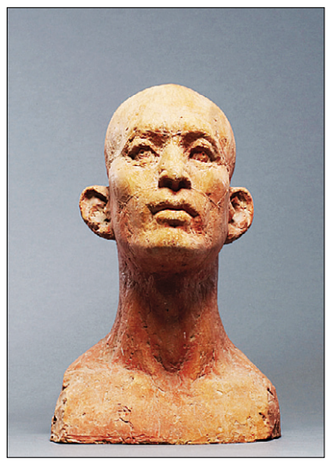
이번 조계사 '반야심경' 해체 건은 사찰의 문화공간 활용 마인드가 불교계에 부족함을 반증하는 한 예이다.

교계 한 전문가는 "불교문화는 '옛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불교가 오늘을 사는 대중에게 다가서려면 사찰부터 불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공 사상 투영한 '원형감정' 적용

국립현대미술관 28일까지 '권진규' 전… 졸업작품 첫 공개



故 권진규의 대표작인 '자소상'.

한국근대조각의 거장 故 권진규(1922~1973)의 유학시기부터 말년에 이르는 작품들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은 2월 28일까지 '권진규'전을 열어 조각 100점, 드로잉 40점, 석고 틀 1점 등 총 1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총 6부로 구성돼 학창시절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세계 전체를 조망한다. 반세기만에 처음 공개되는 졸업 작품을 비롯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그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시의 마지막 부분은 권진규의 스승인 시미즈 다카시(淸水多嘉示, 1897~1981)작품 12점과 부르델(E.A. Bourdelle, 1861~1929)의 부조작품 5점이 함께 소개돼 권진규 작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권진규는 1948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전신인 무사시노 미술학교 조각과에서 조각을 공부했다. 1953년 이과전에서 특대를 받았고,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1959년 귀국했다. 귀국 후 그는 테라코타와 건칠을 주재료로 한 조각 작품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이룩했다. 주제에 있어서는 남녀인물, 동물, 추상 등 다양한 주제를 전개했고, 작품의 영역은 환조, 부조뿐만 아니라 회화, 드로잉 등도 제작했다.

특히 권진규는 드로잉과 조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많이 다뤘는데, 그는 모델과 작가와의 관계를 '모델+작가=작품'이라고 생각했다. 모델의 내적 세계를 투영해 작품에 담고자 하는 원형감정(原型感情)을 통해 주로 작품작업을 했으며, 이러한 사상은 작품뿐 아니라 그의 삶에도 적용됐다.

권진규의 이런 독특한 원형감정은 공(空)사상으로서, 불이(不二)의 경지를 나타내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1969년~70년경에 제작된 작품 '자소상'은 비구상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중첩시켜 무언가를 갈구하는 구도적인 차원의 작품을 표현했다. 자신의 마지막 이력서에 대표작품으로서 '자소상'을 꼽고 있을 만큼 권진규는 예술가로서의 소신을 자소상으로서 펼쳤다.

'권진규'전은 이미 일본 도쿄국립근대미술관과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자료도서관과 함께 기획해 일본에서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반세기만에 처음 공개되는 졸업 작품과 그 동안 보기 힘들었던 작품들을 통해 권진규의 새로운 면모와 불교적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02)2188-6062

이은정 기자

다향 그윽한 문경에선 축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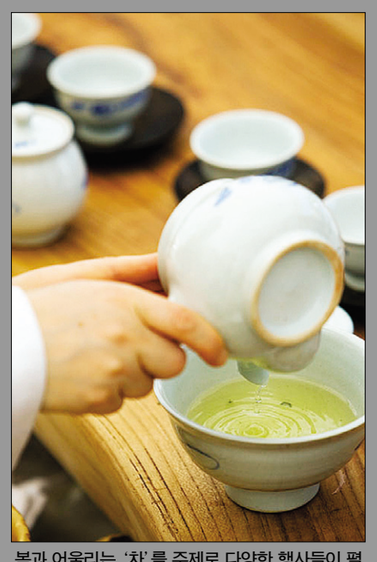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천년의 숨결 차의 향연' 4월 30일~5월 9일

어느덧 봄의 기운을 알리는 입춘이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봄과 어울리는 향기로운 차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문경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주제를 '천년의 숨결 차의 향연'으로 정하고 4월 30일~5월 9일 축제를 연다. 행사는 찻사발 국제교류전, 문경전통도자기 명품전, 전국 도예명장 특별전 등 기획 · 전시행사와 문경 전통발물레 경진대회, 망댕이가마 불지피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경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찻사발축제에 앞서 7회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을 열기로 하고 참가작을 8일부터 5일간 받는다.

전통 장작 가마를 고집해 천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문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찻사발 공모대전은 우리 민족의 찻사발과 다기를 대상으로 접수하며 출품료는 작품당 3만원이다.



봄과 어울리는 '차'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 밖에 국립국악원은 입춘을 맞아 4일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악계 인사 500명을 초청해 '신년입춘다회(新年立春茶會)'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무사태평을 빌고 국악이 차 향기처럼 그윽하게 퍼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자리로, 차를 대접하는 '접빈다례'와 휘호(揮毫)가 어우러진 '연회다례'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대 앞에서 사군자 중 매화와 입춘대길(立春大吉)을 휘호 하는 모습을 실시간 무대 영상으로 보여줘 입춘을 맘껏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더했다.

이은정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학점은행제)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귀의 삼보하옵고 2009년 9월 30일 영산재의 문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 범음대학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수한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입 및 수료과정의 학인스님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시~7시	이기봉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시~7시	마일운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시~7시	조인각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1시~7시	한해사	30
불교실기(의식)	시련/대령/관욕등	목	오후1시~7시	조인각	재학생졸업생
이 론 Ⅰ (범패의전승계보)	범패의 전승 계보	화	오후1시~7시	심만춘	30명
이 론 Ⅱ (영산재행위전승학습)	영산재의 행위전승 학습	화	오후4시~7시	한활안	30명
불교일용의식	불공/시식/예불	수	오후1시~7시	이기봉	30명

편입학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 일	시 간	교 수 진	모집인원
각 배	각 배	목	오후1~7시	마일운	약간명

학점은행제모집 (2010 학년도) 2010년학년도 1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모집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사물실습	조인각	목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과정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응 시 자 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

(2) 수료및 졸업과정
1.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3) 학점은행제 과정
1. 고졸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2.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3.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 주민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4부

(4) 편 입 과 정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전형일정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② 2010년 1월 25일 ~ 2월 19일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특 혜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급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입 학 문 의

전화 02) 392-3234 / 팩스 02)392-323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부처님 전생담에서 배워봐!

자타카 18편 영한대역으로 실은 '자비의 샘'



어른 · 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쉽게 부처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부처님 전생담인 <자타카>를 영어로 번역한 책은 동화 같은 옛이야기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영어를 동시에 익히게 한다.

책은 영문과 우리말 번역문을 함께 실어 영어에 서투른 사람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우리말 번역에서는 가능한 영문의 의미와 구조를 살렸다. 어려운 단어는 그 뜻을 간단하게 달아서 쉽고 빠른 영어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자타카>는 '현생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전생 이야기'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말한다. <자타카>는 <쿠다카니까야>에 속하는 초기불교 경전으로 도덕과 윤리를 깨우치도록 도우며, 불가에서는 인성개발의 중요한 지침으로 여겨왔다. 책에 실린 <자타카>의 내용들은 원전의 내용을 각색해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어린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려운 설법이 아닌 왕상인 도둑 동물 등으로 표현된 부처님 생애를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놓았다.

또 사성제 팔정도 업 삼십삼천 아수라 마라 등 기본적인 불교 용어를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의 어원과 함께 영어로 제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외국어 학습을 돕고 있다.

<자타카>는 예로부터 출가수행자와 재가법사들이 설법에 널리 인용해 왔다. 이미 100년 전에 서구의 팔리경전학회에서 영어로 번역돼 널리 읽혀져 온 <자타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설명할 때 예로 많이 인용됐다. <자타카>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알려준다.

책은 자타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불교와 영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과 자제, 관용과 같은 인간적 가치와 마음의 평정을 찾는 선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다.

이번 <자비의 샘>은 이런 <자타카>이야기를 국제 포교사 이추경씨가 옮겨 2009년 1월에 출간한 <지혜의 샘>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한 책이다.

자비의 샘 | 이추경 옮김 | 불광출판사 | 9000원

이은정 기자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그 산맥은 호랑이 등허리를 닮았다

옛이야기 통해 우리 삶을 재발견하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옛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 년에 한두 번 꺼내 입는 한복이나 추운 겨울을 실감나게 해주는 한옥 같은 우리 옛것들은 단지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아련한 향수의 대상일 뿐일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옛것은 불편하고 빨리 버려야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한복, 한식, 한옥 같은 옛것들은 우리 삶의 뿌리여서 현대를 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해준다.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묻는 세계인들에게 우리 옛것들은 때로는 활기차게 때로는 수줍게 사람들 앞에 자태를 뽐낸다. 우리의 '옛이야기'도 전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설화는 민중의 기대를 반영한다. 우리 땅에서 싹을 틔워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과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설화다.

경인년 호랑이해에 백두대간을 타고 살아 숨 쉬고 있는 설화들이 환경운동가 김하돈 시인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김하돈 시인은 십 년이 넘도록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벌여 온 환경운동가다. 그가 여러 해 동안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며 수집한 설화들 중에 '백두대간을 꼭 빼닮은' 설화 50편만을 추렸다.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설화들인데 백두대간을 따라가며 읽는 설화들이 시간을 거슬러 어제가 오늘인 것처럼 실감나게 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지만 갈 수 없는 곳 북녘은 비워 둔 채, 군사분계선부터 지리산까지 산맥을 따라 내려가며 구수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다. 백두대간의 숱한 설화 중에서 이 책에 실은 설화 50편은 이야기의 완성도나 재미를 떠나 백두대간과 얼마나 더 어울리는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그래서 설화의 무대를 찾아가 보고 싶어 할 이들을 위한 안내 글도 빼놓지 않았다. 설화를 소개하고 이어 사진을 곁들여 설화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는 해설이 따르고, 끄트머리에 설화의 무대를 중심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백두대간 여행하기'가 나온다. 그래서 설화를 통해 백두대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살갑게 다가올 수 있도록 했다.

설화도 읽고 백두대간 여행정보도 풍성

강원도 오세암 설화는 다양한 예술 장르로 소개되어 익숙하지만, 설화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이야기가 가감되는 특성이 있어 독자들이 알고 있는 설화와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백두대간의 끝 지리산 마고단의 마고할미 설화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기 바란다. "아득한 옛날 천신의 딸 마고선녀가 지리산으로 내려왔다. 마고선녀는 이 땅을 두루 관장하고 다스릴 신들을 낳기 위해 배필을 찾았는데 마침 반야봉에서 도를 닦던 반야를 만났다.…"

백두대간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이익과 이권에 따라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다. 지은이는 환경운동가로서 정부의 개발 정책에 맞서 비판하는 강연과 글쓰기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상처를 다스릴 방법으로 '케케묵은' 우리의 옛이야기를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로 살리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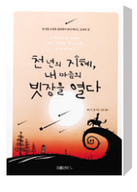
백두대간은 사람은 물론이고 뭇 목숨붙이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깃들여 있는 백두대간이 더 이상 파헤쳐지지 않고 마지막 원시서정의 생태 공간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지은이의 간절함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리라 믿는다.

그 산맥은 호랑이 등허리를 닮았다 / 김하돈 지음 / 호미 / 1만3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심리학으로 재해석한 고전이야기

정신의학자 셸던 콥, 고전에 임상사례 덧붙여 풀이



저명한 정신의학자이자 순례자인 저자 셸던 콥은 삶의 미로를 헤매는 이들에게 저마다의 내면을 성찰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다양한 고전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심리학의 틀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일반적인 서구 정신의학에 근거하지 않고, 노장사상과 불교, 주역과 같은 동양사상까지도 넘나들며 자신의 경험과, 임상실험 등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특히 이 책은 열한 가지 고전에 나오는 다양한 순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경>에서는 손상된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여성의 순례를, <싯다르타>에서는 삶의 궁극적인 비밀을 밝혀내는 순례를 보여주며, <캔터베리 이야기>는 사랑과 정의, <맥베스>에서는 맹렬한 권력추구 등을 풍부한 임상사례들을 곁들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나갔다.

고전의 주옥같은 경구와 이야기들이 곁들여진 심리학적 순례는 우리를 싯다르타로 만들기도 하고, 맥베스처럼 탐욕적인 모습을 드러내게도 하며, 돈키호테처럼 열정이 넘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여정은 저자 자신의 순례이며, 그와 함께했던 많은 환자들의 경험이었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거나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저자인 셸던 B. 콥은 New School of Social Reseach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여러 교도소와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을 도왔으며, 오랫동안 워싱턴 D.C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다.

천년의 지혜, 내 마음의 빗장을 열다 | 셸던 B. 콥 · 김훈 옮김 | 여름언덕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죽음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났다"

정휴 스님 '떠나기 좋은 날이 따로 있느냐'서 선사들의 해탈 담아

누구나 오늘을 살고 어제를 추억하지만,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각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삶이 언제 마감하게 될지 몰라 불안해한다.

책은 이런 삶을 죽음에 이끌려 가는 삶이 아닌, 죽음에 다가가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이야기한다.

저자인 정휴 스님은 선사들의 입적기를 다룬 <전등록(傳燈錄)>을 탐독해 열반의 경지에 이른 선사들의 임종을 주시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일인 듯 홀연히 세상을 떠나는 선사들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틱하게 연출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 속에서 저자는 버리고 비워야 근원이 드러나듯 참된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 육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설악산에 입산해 죽음이라는 생에 가장 절실한 화두를 들고 명상을 거듭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저자는 서문에서 "삶 속에서 죽음을 완성한 사람일수록 임종에 다다라 삶의 여유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희언 선사는 임종에 다다라 자신의 육신을 깊은 산 속에 버려 굶주린 짐승들의 요기거리가 되도록 하라고 유언했고, 봉암사를 중창한 지증 국사는 제자들과 차를 마시다가 앉아서 열반을 맞이했다"라고 소개한다.

선사들이 이처럼 죽음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삶과 죽음이 완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책은 적고 있다.

저자는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마음에 비원을 간직한채 간절히 기다린다"며 "이 글을 쓰면서 죽음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됐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삶속에서 죽음을 완성해야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정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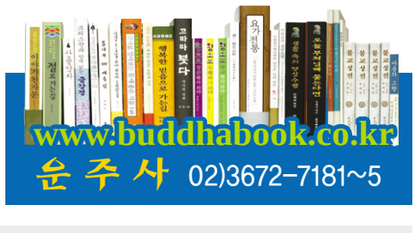
떠나기 좋은 날이 따로 있느냐 | 정휴 스님 지음 · 백종하 사진 | 랜덤하우스 | 1만 1800원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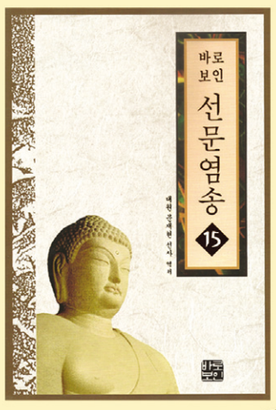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
2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5	열두 달 절집 밥상	대안	웅진리빙하우스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8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9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금강	불광출판사
10	5분참선	현담	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15권 출간! 앙산, 향엄, 임제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이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찜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황금빛 찜질로 건강 100세!
황금불가마 사은 이벤트
2010.2.1~ 2010.2.20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뜸 · 찜질 체험 •
• 삼마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장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과동요법, 유해파 중화 기능 •

사랑하는 분께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세요

event 1
황금불가마 2세트 구매시
_황금슬림불가마 1세트 무료증정



event 2
황금불가마 1세트 구매시
_핫패드 2박스(60장) 무료증정



event 3
황금슬림 불가마 1세트 구매시
_핫패드 1박스(30장) 무료증정





(주)동성웰빙홈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새벽이 되자 흰 눈이 나붓나붓 내렸다. 아직 산자락은 어두웠지만 공방 마당은 흰 광목을 펼쳐놓은 듯 하얗게 변해 있었다. 입춘이 며칠 지난 뒤였으므로 추위는 매섭지 않았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는 중이었다. 공방 마당가에 옮겨 심은 매화나무 꽃망울은 며칠 전부터 동글동글 부풀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공방 나무난로에 불을 붙였다. 방으로 들어가 잠을 더 잘 수 있지만 작업대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작업대 위에는 가을에 만든 달항아리가 한 점 놓여 있었다. 장작가마에서 1350도의 고온을 견딘 순백색 달항아리였다. 화산의 용암처럼 액체 상태로 갔다가 고체가 된 달항아리는 도자기 수집가에게 거액을 제시받았지만 대연 거사는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 담당자가 찾아와 감상하고는 미술관에 전시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한 작품이었다.

물론 전혀 갈등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궁핍한 개인사정을 개선하려면 당장 매매해야 했다. 그러나 작품을 돈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비참해지고 화가 났다. 생계만을 위해 도예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현실은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척추 통증으로 병원에 당장 입원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장좌불와를 아무렇게나 불규칙하게 해온 후유증 탓이었다. 의사는 그의 두개골이 목뼈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하고는 방치하면 전신마비가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나를 불구자로 만들지도 모르는 장좌불와를 계속해야만 할까.'

같았다.

'이뭣고.'

처음 나타난 화두를 중얼거리자,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장좌불와 하는 것이 이뭣고!'

대연 거사는 벌떡 일어나 합장했다. 자신이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대연 거사는 자신도 모르게 해인사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엎드렸다. 미소굴에 지금도 혜암 스님이 계신 듯 삼배를 하고는 중얼거렸다.

'아, 나는 장좌불와 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장좌불와를 했구나. 장좌불와가 정진의 방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집착해 왔구나.'

대연 거사는 혜암 스님의 말씀을 그제야 깨달았다. 당신께서는 정작 평생 장좌불와를 했지만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장좌불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대연 거사는 달항아리를 보자기에 쌌다. 달항아리가 놓여 있어야 자리는 미소굴이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달항아리지만 자신의 마음을 격동시킨 혜암 스님을 생각한다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지금 원당암으로 갈 것이다. 달마선원에 입실하여 '장좌불와 하는 것이 이뭣고'를 궁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장좌불와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것이다.'

대연 거사는 달항아리를 오동나무 상자에 넣은 뒤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아침을 먹지 않은지 오래이므로 머뭇거릴 필요는 없었다.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대연 거사는 장좌불와에 대한 혜암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을 찾기 위해 원당암 달마선원으로 발걸음

대연 거사는 가끔 회의해보지만 아직은 원당암에서 만난 그 노스님의 '장좌불와를 하면 도인이 된다'는 당부가 떠올라 그런 생각을 접곤 했다. 앉아 있기조차 고통스러우면 공방을 나와 산길을 무작정 걸으면서 척추 통증을 잊어버리곤 했다.

대연 거사는 공방에 연기가 차 창문을 열었다. 연통에 검댕이가 가득 찼는지 연기가 잘 빠져 나가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지만 견딜 만했다. 찬바람 끝은 이미 봄기운으로 무디어져 있었다.

때마침 쌍봉사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가 들려왔다. 범종 소리가 창문을 넘어 공방 안 깊숙이 밀려와 공명했다. 여운이 공방의 공기를 떨게 했다. 종소리는 그의 머릿속도 헹구었다. 복잡한 생각들로 얽혔던 머릿속이 갑자기 텅 비워졌다. 그런 머릿속은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다.

순간 대연 거사는 머릿속에 무엇이 하나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원당암 달마선원 기둥에서 보았던 화두였다. 화두는 어둔 바다를 홀연히 밝히는 등대 불빛

해인사는 대연 거사가 사는 산중보다 더 따뜻하여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공방에서 3시간 만에 해인사 일주문 앞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적광전으로 갔다. 원당암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적광전은 혜암 스님이 살아생전 해인사 방장 때나 조계종 종정이 됐을 때 대중들에게 상당법어를 내리던 법당이었다.

대연 거사는 새삼스럽게 법당 기둥에 걸린 주련을 읽었다.

부처님 크신 광명 사방에 두루 하니
온갖 만물 더 없이 맑고 곱네.
오색구름 온 누리에 가득하듯
곳곳마다 부처님 덕 기리는 소리일세.
빛이 있는 곳에 넘치는 환희여
중생의 모든 고통 씻은 듯이 사라지네.
佛身普放大光明
色相無邊極淸淨
如雲充滿一切土
處處稱揚佛功德
光相所照咸歡喜
衆生有苦悉除滅

〈화엄경〉 비로자나품에서 대위광동자(大威光童子)가 두 번째 부처님이 된 바라밀선안장엄왕(婆羅密善眼莊嚴王)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이 일어나 설한 게송 중 일부였다. 법당 안에는 열댓 명의 신도들이 비로자나불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다. 대연 거사도 법상에 혜암 스님이 법문하고 계신 듯 절을 올렸다.

신도들의 얼굴은 맑고 평온했다. 주련의 구절처럼 비로자나불을 향해 절하는 모습이 더없이 고왔다. 어떤 신도는 절하는 동안 무언가를 확신한 듯 얼굴에 환희심이 넘쳤다. 고통이 사라진 듯한 표정을 짓는 신도도 있었다.

대연 거사는 법당 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서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낯익은 스님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거사님."

"아, 스님. 오랜 만입니다."

원당암에 갈 때마다 늘 미소로 맞이해주는 원각스님을 시봉하는 스님이었다. 체구가 작은 시자스님은 마주친 노스님에게 먼저 합장한 뒤 대연 거사에게 말했다.

"큰절에 일이 있어 왔어요. 원당암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거사님도 올라가실 겁니까."

"예, 원당암에서 계속 머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달마선원에 들어가셔야죠."

"감원 스님께서도 잘 계십니까. 감원 스님께서 허락하시면 입실하려고 합니다."

대연 거사는 감원 스님의 안부부터 물었다.

"지금 올라가시면 만나 뵐 수 있을 겁니다."

주차장으로 간 대연 거사는 시자스님을 태우고 무생교를 지나 원당암으로 올라갔다. 그런 뒤, 대연 거사는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상자를 꺼냈다.

"미소굴 단에 올리려고 가져온 달항아립니다."

"거사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귀한 거니까 감원 스님이나 원주스님께 보여드리고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소굴에 어울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진영에 꽃다발을 올리는 분도 더러 있으니 용도가 그만입니다."

시자스님이 말하는 용도란 헌화한 꽃다발을 꽂는 헌화용 화병을 뜻했다. 꽃다발을 단에 놓아두면 곧 시들고 말겠지만, 물을 담은 달항아리에 꽂아두면 더 정성스러운 꽃공양이 될 터였다.

마침, 염화실에서 나와 종무소로 들어가려던 원주스님이 대연 거사를 반갑게 맞았다. 혜암 스님의 시자로서 입적 전후를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스님이었다.

"미소굴로 바로 올라가시죠."

미소굴 안팎은 여전히 정갈했다. 비질 흔적이 또렷했다. '공부하다 죽어라'고 쓰인 주장자 같은 큰 기둥도 변함없이 박혀 있고, 토굴 안에는 혜암 스님의 사진과 유품이 몇 달 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저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연 거사는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었다. 원주 스님이 보자마자 감탄했다.

"큰스님 마음처럼 넉넉하게 생긴 항아립니다!"

"혜암 스님을 모셨던 스님께서 좋아하니 다행입니다."

원주 스님이 단에 놓인 백합꽃 한 다발을 달항아리에


그림 · 최문정

'장좌불와 하는 것이 이뭣고!'

꽂았다. 그러자 백합꽃 향기가 미소굴 안에 진동했다.

"큰스님께서는 꽃을 좋아하셨습니다."

"진즉 가져올 걸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대연 거사는 원주 스님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합장했다. 그러자 원주 스님이 점심공양을 걱정해주었다.

"벌써 점심공양 때가 됐네요. 공양은 절에서 해야죠."

"달마선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거사님께서는 장좌불와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들고 있는 화두가 없다면 감원 스님께 타십시오."

"고맙습니다."

입실도 가능하고 화두도 하나 마련됐으니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대연 거사는 혜암 스님의 행자시절처럼 불같이 용맹정진하리라고 다짐했다. 그때의 혜암 스님처럼 일주일 안에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죽겠다는 신심으로 좌복을 지키고 싶었다.

대연 거사는 원주 스님이 공양간으로 내려간 뒤에도 미소굴에 남았다. 불자(拂子)를 든 혜암 스님이 사진 속에서 튀어나와 '참선하다 죽어라'고 사자후를 토할 것만 같았다. 대연 거사는 미소굴 바닥에 앉아 가부좌를 틀었다. 그러자 스님의 오도송이 고막을 찢을 듯 귀를 먹먹하게 했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부수니
해가 돋아 하늘과 땅이 밝도다.
迷則生滅心 悟來眞如性
迷悟俱打了 日出乾坤明

그때부터 대연 거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스로든 화두 '장좌불와 하는 것이 이뭣고'에 빠졌다.

〈계속〉





Dr. 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❺ 골반의중요성

불균형 증상의 시작점인 골반

골반은 중추신경인 척추를 지탱하면서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골반 불균형의 이상 증상은 상 · 하체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인체의 중추적인 기관이면서 불균형 증상이 유발되는 시작점입니다.

스커트를 즐겨 입는 여성이라면 치마가 돌아가 있거나, 옆선이 앞쪽을 향해 있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골반 변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 골반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에서 골반을 교정하면 변비가 개선되고, 소화가 잘 되며, 임신도 된다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의사는 기억에 남는 기적 같은 경험을 몇 차례 하기 마련입니다. 저에겐 그러한 경험 중 하나가 골반 교정으로 임신을 한 환자의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체형 교정이 보편화되지 못한 국내의 의료계 상황 상, 저의 관점이 의학계의 많은 불신과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국내 유명 산부인과에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골반을 촉진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골반이 심하게 뒤틀어져 있었으며 동시에 다리 길이도 5cm이상 차이가 나고 척추도 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과 발은 차가워 만지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에게 차가운 심신의 순환을 돕는 하루 15분의 반신욕과 골반의 회전 방향을 분석해 골반 교정 운동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6개월 무렵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반 교정이 이분의 임신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저를 만난 후 운 좋게 된 건지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분은 소중한 딸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골반 균형운동이 임신에 영향이 준 것 같다는 말을 남기면서 감사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의사라는 직업에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과도한 하중이 골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허리디스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서서 다니기에 우월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대신 쉽게 골격이 변형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기 시절의 좌상 수험 생활과 장시간의 인터넷 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체중의 하중으로 골반 구조가 정상적일 리가 없습니다. 즉, 비틀어지고 휘어진 골반을 갖기 마련입니다.

골반 뼈는 엉덩이 중간 부분에 선골(sacrum)과 엉덩이 양쪽 부분에 납작한 두 개의 장골(iliu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골과 선골 사이를 연결하는 두 개의 천장관절(SI joint: sacroiliac joint)부분이 틀어지면 척추를 제대로 받치지 못해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면, 척추 또한 S형으로 비틀어지면서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의 불균형 증상을 바르고 균형 잡히게 교정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신의 체형 교정이 가능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전신의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때 복근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골반의 균형에 도움이 되며,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골반에 좋지 않습니다.

골반의 불균형 증상을 균형 잡히게 교정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신의 체형 교정이 되며, 그로 인하여 전신의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복근 강화 운동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골반의 균형에 도움이 되며,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골반에 좋지 않습니다.

PnP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골반 교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구분 동작입니다. 1. 바닥에 바른 자세로 누운 후 오른발 무릎을 90도로 구부린다. 2. 왼발 역시 90도로 구부린 후 오른발 허벅지에 걸친다. 3. 오른발 허벅지를 두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당기면서 왼발은 아래쪽으로 살짝 밀어준다.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골반이 틀어지거나 뜨지 않게 합니다.)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❺

도교와 문파 무술의 성지 무당산

무당산(武當山)은 예로부터 도교의 산과 무술의 성지로 인정되는 중국의 명산입니다. 많은 도교 명산 중 무당산을 으뜸으로 칩니다. 중국의 쿵푸는 소림무술과 무당무술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무술의 강력한 메카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멋진 배경 역시 이를 더 부각시켰는데, 해발 1612m의 정상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봉우리들이 일렬로 400km나 뻗어있고, 72개의 산봉우리들이 배알하는 듯한 모습을 해서 무당산은 예로부터 신선의 산으로도 인정되었습니다. 외에도 중국 고대 의학서적 본초강목에 기재된 1800여 종의 약재 중 무당산에 400여 종이 있어서 약재고로도 불립니다.

무당산에는 당(唐)조 때부터 청(淸)조까지의 건물 500여 채가 있고 방 숫자는 2만여 칸에 달합니다. 역대의 황제들이 무당산을 황궁의 암자로 여겨 저마다 많은 건물을 지었고, 특히 명(明)조에 이르러 북경에는 자금성을 짓고 남쪽에는 무당산에 건물을 짓는다는 원칙으로 큰 공사를 벌여 무당산에 궁전 9채, 도관 9채, 암자 38채, 절 72채, 다리 39개, 정자 12개, 도교건물 33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당산에는 5리에 암자 하나, 10리에 궁전 하나씩 있었으며, 푸른 벽과 기와를 사용해 건물이 호화롭고 영롱합니다.

중국 본토 종교인 도교는 1,8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현재 무당산에는 공식 도인 100여 명이 있는데, 그들은 각자 도가 음악을 배우고, 혹은 경서를 연구하고 혹은 무술을 배웁니다. 무당산의 도인들은 결혼



명(明)조에 이르러 무당산(武當山)에 궁전 · 도관 · 암자 · 절 · 다리 · 정자 등을 지었는데 아직도 그 역사가 담긴 몇몇의 건물이 존재한다.

할 수 없고 채식만 해야 되고 육류 외에 오신채(파 · 마늘 · 부추 · 달래 · 무릇) 같은 것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교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흔히 우리나라 승려들은 위의 5신채와 더불어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본 승가는 밥 한 끼 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가 보시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승려들의 식탁에는 고기 대신에 콩으로 만든 콩고기를 먹는데 차라리 고기를 먹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계율에는 고기 먹지 말라는 항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절에 부엌이 없고 탁발로만 식사를 해결했고, 탁발만 하는 뜻은 중생들에게 성자나 청정 승려에 '보시 공덕'을 쌓게 하려는 연민심에서 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다른 말로 복전(福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 불교에서는 탁발을 금지해 각 절마다 부엌이 있고, 탁발의 다른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시를 권유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일부의 승려들은 보시를 권장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탁발의 변형된 형태를 '하심(下心)'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듯 중생들을 향한 연민심이지, 부끄러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복전들은 7가식(7집에서 한가지씩 음식을 얻어서 식사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복전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탁발 중에 어떤 집에서는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시주들이 보시를 위해 고기를 들고 나올 때, 그 복전은 "어? 나 고기 안 먹어요!"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제바달다가 고기 먹지 말란 계율을 제정하자고 해도, 중생들의 복전의 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고기, 나를 위해 잡은 고기 등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5신채를 먹지 말란 조항 역시 근본 계율에는 없습니다. 5신채 중에 하나인 '마늘을 먹지 말라!'는 조항은 있는데, 5신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당시의 수행자들이 마늘이 있는 집을 자주 방문해 생긴 조항입니다.

도교에서 5신채를 금하는 이유는 '날로 먹으면 장기(臟器)를 상하고, 익혀 먹으면 음심(淫心)을 동한다.'라고 해서 금지했는데, 현재 과학으로 볼 때 이는 터무니없는 말 같군요. 아마도 이 채소들의 잘 지워지지 않는 역한 냄새 때문에 청정해야 할 도인들의 풍모에 해를 입히게 되기에, 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❺

'두통 · 기미' 원인 알고 치료하자

기미(chloasma)

얼굴 특히 눈 밑이나 이마에 발생하는 갈색의 색소 침착 현상으로 갈색 반점이 뺨이나 관자놀이 이마에 나타나는 것을 기미라 한다. 갱년기 호르몬 분비 불균형에서도 오지만 여성의 경우 경구피임제를 사용할 때 많이 볼 수 있다.

그 형태는 표피형, 진피형, 복합형 3가지가 있다.

표피형 – 표피의 멜라닌 색소 증가에 의함

진피형 – 진피 내 색소 세포 증가에 의함

기미의 원인으로는 임신 및 피임약 장기복용, 자외선 노출 과다, 갑상선 기능 이상, 자궁 종양이나 질환, 흡연 또는 음주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학설은 없다. 그러나 건강 능력이 향상되어 피부가 건강해지면 기미는 없어진다.

⑴괄사법

<전신 괄사>

괄사유를 충분히 바른 뒤 매회 120분씩 주 2회 전신을 꼼꼼히 세밀하게 괄사한다.

<부분 괄사>

1. 매일 두피 전체 괄사하기
2. 머리 뒤쪽 경추 부위 괄사하고 튕기기
3. 팔꿈치 바깥쪽
4. 내 복사뼈 3cm 위 부분
5. 외 복사뼈 3cm 위 튕기기
6. 무릎 슬개 안쪽 튕기기
7. 오금(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부분) 튕기기
8. 무릎 앞쪽(족삼리) 부위 튕기기

⑵괄사판

1. 학여울, 2. 달오름, 3. 미모사 4. 보라매 소

⑶유의 사항

1. 전신 괄사 시 괄사유를 반드시 바르고 괄사한다.
2. 부분 괄사는 그 부위를 밀기와 긁기 수법을 한 뒤 튕겨 준다.
3. 튕기기를 할 때는 3~4회 긁고 튕기면 좋다.

두통(headache)

두통은 머리가 아픈 질환의 하나로 독립된 병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이다. 그래서 이를 가볍게 생각해 일반적인 약물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뇌는 모발부터 시작해서 두피, 두께 6mm의 두개골, 경막, 지주막, 연막, 액체로 된 뇌수까지 7겹 속에 싸여서 보호를 받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두통은 흔히 스트레스나 피곤함, '술을 먹었더니' 하고는 '며칠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알아서 두통관리를 하면 머리 아픈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두통을 감지하는 두피 부위와 두개골 내부 조직은 머리뼈를 덮고 있는 조직의 대부분이 된다. 그중 뇌동맥동, 정맥동, 뇌바닥 경질의 일부, 삼차신경, 혀 인두신경, 미주신경 등이 아픔을 감지하는 부분이 되니 광범위한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다 하겠다.

두통의 정도도 머리가 띵하다든지, 무겁다든지 하는 수준부터 구토를 일으키는 중증 정도까지 다양하다. 흔히 열날 때, 감기로 코, 귀, 편도선에 염증이 생길 때, 고혈압 등에서 오는 두통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견병이라 하겠다.

⑴괄사법

<전신괄사>

주 2회 120분씩 괄사 하기

<부분괄사>

1. 두통에 따라 괄사부위가 다를 수 있다. 아시혈(阿是穴:통증 부위의 압통점이나 반응점)을 따라 괄사한다.
2. 두피 전체를 사법(속도가 빠르며 힘을 줌)이나 평보평사법(힘을 가감하며 하는 괄사법)으로 10분 정도 괄사해 주면 많은 도움을 받는다.
3. 얼굴도 두피와 함께 괄사하면 상견병(성홍열 모양의 약진, 하계 피부염)의 두통은 거의 가라앉는다.

⑵괄사판

1. 달오름, 2. 미모사 3. 해오름 4. 학여울 5. 보라매소, 6. 보라매대

⑶유의사항

1. 괄사를 여러 번 해도 두통 해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2. 주 2회 정도 전신괄사를 실시하면서 얼굴과 두피 괄사를 매일하면 두통은 거의 없다. (02)557-1628 ~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지도함.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사주와 영가를 배움)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051)333-3258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리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역학 속성지도 30년
자격, 교수 법납
역학 10년이상 기타
인연보살, 종단 최고어른
20~30억
재력가능 회수 확실
02)907-5858
010-2693-7712

원 정 맥 연 구 소
• 분원모집합니다 • 전국어디든 가능함.
• 사찰매점도 가능함 • 풍수와 사주에 능한 분 환영
• 타종교인도 가능함(원하시는대로 금,분양 직접 그려드려요)
원정맥연구소에서 만드는 가장 양명한 가나오는 도자기 작품으로
1.갤러리형 고급카페 2.갤러리형 저렴한식당 3.갤러리형 포교당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원정맥바꾸기를 겸하고
옆에는 갤러리를 운영하실 분
홈피 : 원정사. kr | 무료기치료.kr
상담 : 010-5790-2351 원정합장

역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기초에서 응용까지
• 개인 및 단체 강의
• 용신(격국) 중점 강의
• 저렴한 비용
유심명리학원
011-711-5072

동양 철학 배우실 분
명리학 성명학 주역 (육효)
배울 곳 : 경북 구미
숙식제공 가능
054)972-9872
010-6208-5555
원장스님 직접 강의

수강생 모집
철학반, 승도반,
무속반, 치유반
도건불교대학
042)526-1123
010-3452-1123

미국에서
부전 수행 할
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인연을 찾습니다
만 50세 비구스님 입니다.
같이 불사를 하실 분이나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0-6564-8088

비구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충남 부여
041)835-3933
010-8353-33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
010-3088-3133

비구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포천시내, 4-50대
010-9269-8445

공양주 보살,
여자 종무원,
행자(男)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 종교학 (불교문화 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이상, 경북 문경
016-638-3664 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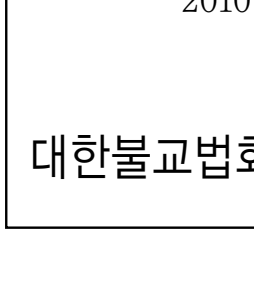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염불 역학
조용한 산사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스님, 예비스님,
법사, 사찰운영자
염불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
011-716-3811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뉴욕, 감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세속 나이 60
개인사찰
부전자리 찾
천일기도 할 자리
019-59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불암
- 대표자 : 권이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291

위 동민 일동은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 (무속인은 제외) 등록서류 : 본종의 소정양식을 우편물이나 팩스로 전송해드림
- 입종서류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사진4장, 법당 내,외사진 각 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좋은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매일
이강옥 교수의 체질
"당신도 날씬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체중감량이 된다는 2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
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
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
www.choro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위치 : 제주	●위치 : 논산	●위치 : 부산
●법당 : 30평	●법당 : 20평	●법당 : 25평
●요사 : 40평	●요사 : 34평	●요사 : 24평
●부지 : 500평	●부지 : 240평	●부지 : 50평
●가액 : 1억 7천	●가액 : 1억 8천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위치 : 강원	●위치 : 경기광주	●위치 : 충남
●부지 : 400평	●부지 : 300평	●부지 : 2300평
●법당 : 20평	●법당 : 20평	●법당 : 20평
●요사 : 30평	●요사 : 30평	●요사 : 40평
●가액 : 1억 1천	●가액 : 6억 5천	●가액 : 3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근교 30분 거리
- 총평수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530평+밭 550평+임야
- 법당 15평,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 (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양도가 : 4억원

부산 바닷가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총 50평
- 3층건물 중 2층 전체
- 방2,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055)328-2509
019-549-3521

포교원안내

- 위치: 구미 북삼 사거리
- 평수 60평
- 현 법회중
- 3층 건물 중 2층
- 주차 시설 양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시설비 별도

054)972-9872
010-6208-5555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 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태화동 소재
- 평수 45평
- 시설 완벽
- 총가액: 3천 700만원

011-542-0982
010-6278-6508

절터(복지원)

- 위치: 동서울IC→ 95km→ 대로에서 700m
- 대지 : 500평
- 건평 : 120평, 3동
- 가액 : 3억 (융자1억)

011-712-912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현재 법회 기도중
- 서부 정류장 지하철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70평
- 주차장 시설 완비
- 제반 시설및 모든 집기일체
- 스님 공찰임명 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시설비 절충

017-501-2438

단독건물사찰안내

- 위치: 대구 최중심지 (지하철역 근처)
- 건물 (3개층) 및 주차장 옥상
- 포교, 교육, 종무원 적지
- 시설(법당, 종무소, 황토방 등 최고)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상담후 조절가

010-6780-6271
053)428-113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다실별도1
- 2,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2억

017-572-3714
011-419-3714
051)556-9530 (야간)

포교원안내

- 위치: 중남 천안시 대흥동 천안역전 앞
- 평수 50평, 현재 법회중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상담실 및 실방, 목욕탕,거실, 방2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일체 시설비 1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41)567-03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1억 5천만원

010-8675-4088

대나무숲속고요한절

- 위치: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11평
- 법당 18평, 굴법당 있음
- 요사채 큰 2동,
- 각 42평, 45평
- 가액: 4억

010-9798-1091
영주불사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지하철 1분거리
- 3층, 총 32평
- 방1, 공양간 1,법당
- 가액: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재래시장 버스 종점,
- 위치는 최상급. 몸만 오실분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중심지역
- 대지 90평, 건평 260평
-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지하1층(문화센터), 1층(종무실) 2,3층(법당), 4층(요사채) 5층(삼성각)
- 가액 : 16억 5천만원

010-8853-3843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 땅 250평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765-53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막리동
- 평수 :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 원목단, 동불, 삼존불, 공양간, 방2, 시설완벽,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9-9382-05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대지 : 8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채, 방4개
- 현재 임도,삼림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공사중. 약수있음.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및팬션 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순흥면
- 약1천여평. 건축허가 유
- 토목공사. 수도전기 완료.
- 소수선원 인근
- 가액 : 1억 5천

010-3697-2290

포교원 안내

- 위치: 동대문구 내. 최요지
- 4층 건물 2층. 약 40평.
- 시설완벽
- 보증금 2천만원, 월9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714-0325

사 찰 안 내

- 경북 고령 국도접 대구-30분
- 대지: 약230평. 건평 70평(복합건물)
- 법당 : 25평, 삼존불 방7개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5500만원 (융자 900만원 안고)
- 진정하게 운영할 분 (융자안고) 분할가능
- 노령요양 및 사리불 안치도 가능함

053)471-3123
017-501-2315

사찰(

- 위치 : 밀양시 무안 5분거리, 국도변 위
- 대지: 230평, 주차
- 요사채: 적벽돌 슬 최고급 원목 실내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
- 가액: 2억 4천 5백만원

010-

참숯가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1208평 ●건
- 시설: 참 숯가마 7개, 파
- 지하수 350m이상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 가액: 현 시세 22억 (모든시설포함) 급
- 현재 영업중이며

010-
010-

포 교

- 위치 : 부산시 수 1번출구
- 법당 50평 ●관음보 방2칸, 주방, 화장
- 가액: 전세 1500만 시설비 상담

010-

사

- 위치 : 강촌IC에서
- 부지: 9630평 (15
- 한옥신축대웅전, 산 조립식건물+산신
- 추가건축허가유(사
- 바로앞 홍천강 경
- 가액: 15억

011-

사찰

- 위치 : 인천시 남 (대단지 아
- 실평수 108평. 법 가스 보일러실, 방
- 보증금 2천만원,
- 스님 사정상
- 시설비 : 답사 후 결

032)
010-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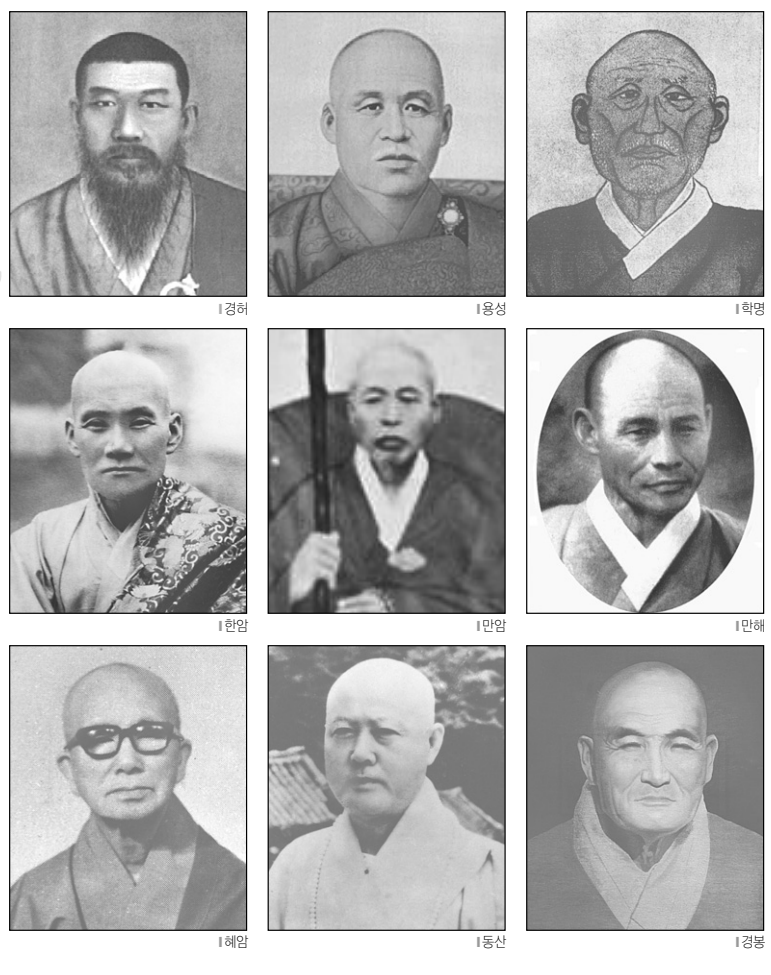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한암 | 만암 | 만해
혜암 | 동산 | 경봉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

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약은 자비심

강 사 : 청전 스님
일 시 : 2010년 2월 2일
주 제 : 현대사회를 향한 달라이라마의 메시지
장 소 :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만해 NGO센터'
주 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모자람 없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을 모른다. 어딜 가나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지만 마음은 허하다.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화를 내고 있다. 자연히 얼굴 표정도 굳어 간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국민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종교를 갖지만 종교인들이라고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까? 청전 스님은 "오히려 성직자들이 더 혼탁해졌다"고 일침을 놓는다. 또 스님은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명'이라는 검은 천을 제치고 불성을 발견하는 방법은 꾸준한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의 2월 리더스 포럼 강사로 나선 청전 스님은 진정한 불교 수행은 무엇이고,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법문했다. 그 향기 나는 길을 따라가 보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을 바란다

불교의 진리는 사성제(四聖諦)에 있습니다. 사성제의 바른 견해 없이는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45년간 8만4000법문을 설하시면서 왜 사성제를 제일 앞에 두셨는지를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에는 사성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방스님들이나 큰스님들께 "사성제를 아느냐"고 물으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기법'과 '존재의 규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하는 질문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나는 왜 있는가?' '너는 왜 있는가?' '우주는 왜 있는가?'의 질문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뭇 생명들은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고 말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법', 모두 행복을 바라고 불행을 원치 않음을 알고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함 내밀기를 좋아합니다. 통성명의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자라면 그 직함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불교를 알고 불교신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이성 잃지 않고 법에 준한 생각해야
고통 벗어날 수 있는 약은 착한 마음 · 사랑 실천의 준비



청전 스님은 한국불교가 실제 수행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부처의 깨달은 후의 모습만 보고,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전생부터 해온 수많은 고행과 자비 · 선행 · 희생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영혼에는 때가 묻어있습니다. 과학의 편리함 속에 불편함 없이 살고 있어 내재된 힘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풍요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나의 스승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가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광경이 아직까지도 제 수행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중국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했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려 들지 말고, 다르마(法)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상식장은 눈물바람이 됐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법에 준한 생각과 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티베트 내에 캄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캄족은 네팔 히말라야 부근에 기지를 세우고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 캄족의 공격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네팔 정부는 캄족을 빌미삼아 달라이 라마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캄족을 찾아가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 속에서 캄족 대장은 부하들에게 "총을 버리고 집에 갈 사람은 가라. 나는 여기서 자결 하겠다"고 말하며 게릴라전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생에서는 흔들림 없이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실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했다가도 그 마음이 정점에 이르고 난 후에는 하향곡선을 그리기 마련입니다.

저는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신지 23년이 됐는데 아직도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저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1993년 카일라스(티베트 산)에 순례를 갔습니다. 티베트는 지형이 높고 산소도 희박해 한계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번 뗀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카일라스에서 제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의식이 흘러 어느새 도솔천에 갔습니다. 그곳에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달라이 라마 스님, 그 밖에 무한한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식의 진행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는 아미타 부처님과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제게 와서 티베트 종교의식에 쓰는 작은 종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며 하찮게 여기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카일라스에서 그런 경험을 한 후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를 향하면서 "이 신기한 경험을 달라이 라마에게 여쭤야 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마자 달라이 라마가 먼저 "너 이런 경험 하고 그거 물어보러 왔지?"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는 제게 "신심이 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해야 할 수행법을 일러주셨죠.

그 후로도 지금까지 의식의 신비한 체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내적인 수행체험까지 달라이 라마가 다 알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 착하고 맑아야

종교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수행은 착함과 배려입니다. 나를 맑혀 타인을 배려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삶의 동기가 맑아야 합니다. 뿌리가 약인 나무는 줄기 · 잎 · 꽃이 모두 약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독인 나무는 전체가 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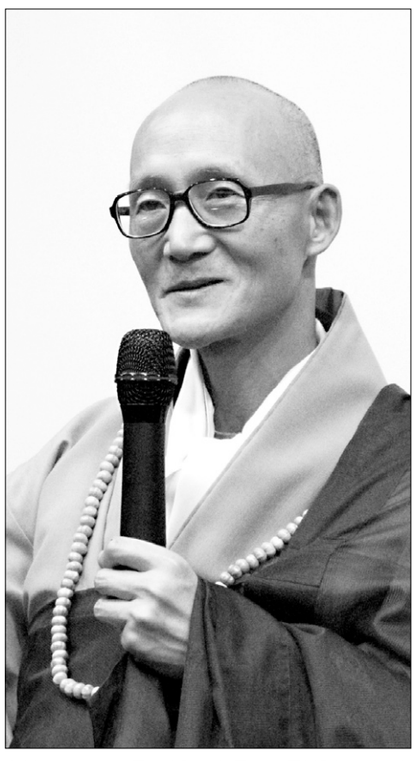
미국에 있는 한 기관은 어떻게 하면 위 · 심장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결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약은 착한 마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고 합니다. 웰빙(well being) 식품을 뛰어넘은 진정한 웰빙은 자비심이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매일 수행 정진하며 자신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개개인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첫번째는 자기의식의 규명, 즉 깨달음입니다. 인간존재자로서 내 안에 숨은 영적 에너지를 깨워야합니다. 인류에게 있어 산업개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발달하면서 인간은 혼탁해 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가장 화를 냅니까? 바로 남이 자신을 험담할 때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귀에 들려오면 격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자신를 헐뜯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쿤달리니(영적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개발이 한국에 오니 상업화돼 있어 정말 놀랐습니다. '새로움 · 단기간' 이런 말로 홍보하는 것들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한국에 편재해있는 아바타프로그램 등은 성스럽고 심오한 것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놓아 우려스럽습니다. 숨은 인간의 혼, 영혼의 힘의 계발에 힘써야 합니다.



신부가 되려고 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던 청전 스님은 송광사를 찾았다가 '전생(前生)'이 화두가 되어 출가했다.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 착하고 맑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야 말로 몸 안에 숨어 있는 에너지가 깨어나고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몸을 비틀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맑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1981년 대구 동화사에서 한 노스님이 법당에서 108배 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하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108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절하시는 분들 실제로 행복합니다. 정신적으로 맑고 잔잔한 것, 그것이 평화 아닐까요?

불제자로서 무언가를 쉽게 바라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인간은 탐 · 진 · 치가 뿌리입니다. 또 탐 · 진 · 치는 무명에 쌓여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무명을 뿌리 뽑아 자기가 행복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불제자입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 e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24 일지암시고

차는 군자의 성품처럼 삿됨이 없다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草衣禪師, 意恂, 1786~1866)는 조선의 다도(茶道)를 재정립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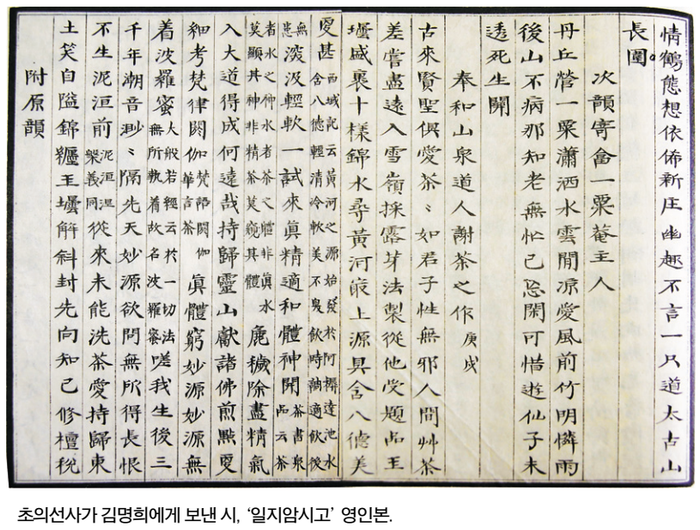
그가 지은 <동다송(東茶頌)>에는 차의 역사와 차나무의 품종, 제다(製茶), 차를 끓이고 마시는 방법, 차의 생산지와 품질 등 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 담겨있다. 그는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차를 만들어 불교적 '선미(禪味)'를 차에 담아내는 행선을 몸소 실천했다. 이러한 차 이론의 정립과 실천의 겸병은 당시 영락했던 차문화의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와 같은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교유하면서 점차 자신의 차 이론을 공고히 했다. 추사 김정희의 동생 산천 김명희(金命喜, 1788~?)는 '초의차'를 받고 시를 지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초의선사 역시 다음의 시를 지어 화답했다.

예부터 성현(聖賢)은 모두 차를 사랑했으니
차는 군자의 성품처럼 삿됨이 없어서라네.(중략)
맑고 가벼운 물 길러다가 (차를) 달이니
좋은 물과 차가 서로 어우러져 (차의) 신(神)과 체(體)가 열리네.
추함과 더러움을 다 없애야 (차의) 정기(精氣)가 드러나니 대도(大道)를 이룸이 어찌 멀다 하랴.
영산에 가지고가 부처님께 바치는데
차 달이는 법, 다시 (불가의) 법도를 상고하네.
알가(閼伽)(차)의 진체(眞體)에 오묘한 근원을 다하면 오묘한 근원은 집착이 없는 바라밀이라.(후략)
(역:박동춘)

한국의 산자수명(山紫水明)한 풍토성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정서가 함의된 우리의 차는 시원한 맛과 활활한 기운 속에 '투명함'과 '맑음'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제 시기에 딴 찻잎을 올바르게 덖어 보관하고 좋은 물로 우려내어 '중정(中正)'을 잃지 않은 차는 다도의 극치에 이른다. 이러한 차를 95℃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달이면 냉한 기운은 중화되고 오묘한 향과 함께 따뜻한 열감이 발끝까지 전해진다. 식기 전에 마시고 입안에 남은 후미(後味)를 즐기게 되는데, 이 때 소엽종을 쓰는 우리는 중국과는 달리 여러 번 우려내는 재탕법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잘 우려진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하고 상쾌해져 이내 맑은 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차를 만드는 법의 원론이 '중정(中正)'에 있다면 다도(茶道)를 사상적으로 표현한 말은 '전다삼매(煎茶三昧)'이다. '차를 통해 삼매의 경지로 들어간다'고 한 김정희의 표현은 차(茶)와 선(禪)의 경지가 둘이 아님(不二)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또한 한잔의 차로 고요한 선경(禪境)에 드는 경지이다. 결국 차는 청아한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지기(知己)'였으며, 이러한 정신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매개물이 된다. 몸과 마음이 열리고 비어진 찻잔에 향기가 담기듯 깨끗한 마음에 지혜가 담기는 것이다.

지난 6개월간 24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옛 그림을 통해 차를 사랑한 선인들의 삶을 소개했다. 예술작품을 통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차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고자 했으나, 해야 할 말들이 글이 미치지 못한 곳에 머문 듯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 동안 부족한 글을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연재를 마친다.


次韻寄畬一衆菴主人
長圖
情鷗應想依佛新庄幽趣不言一只道太古山
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 庚戌
古來賢聖俱愛茶、知君子性無邪人間艸茶
丹丘嘗一衆瀟洒水雲間凉愛風前竹明憐雨
後山不病那知老無忙已忘閑可惜遊仙子未
透死生關
差嘗盡遠入雪嶺採靈芽法製從他次題品玉
壚盛裏十樣錦水尋黃河根上源異含八德美
愛甚 西域乳雲清冷軟不鬼飲時滿適飲後
無患 水之神非精水者茶之體非眞水體其
淡汲輕軟一試來眞精適和體神開 茶書衆
者水茶之體非眞水體其美顯其神非體
入大道得成何遠哉持歸靈山獻請佛煎點更
知考梵律闍伽 梵語華言闍伽 眞體窮妙源妙源無
着波羅蜜 無般若經云於一切法無所執着故名波羅蜜 我生後三
千年潮音到、隔先天妙源欲問無所得長恨
不生泥洹前 泥洹同涅槃義 從來未能洗茶愛持歸東
土笑白隘錦纏玉壚解斜封先向知己修檀祝
附原韻

초의선사가 김명희에게 보낸 시, '일지암시고' 영인본.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21 미황사 매화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다. 겨울이 깊어지는 만큼 봄 또한 다가오고 있었다. 봄은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그 기다림은 계절의 연속성 속에서 다른 계절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과는 다른 의미의 기다림이다. 다른 계절의 기다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습관적인 기다림이라면 봄에 대한 기다림은 당연히 올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급한 마음의 기다림이다.

달력에 표시된 입춘이란 두 글자는 조바심치며 참아온 기다림의 첫 번째 표시다.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꽃이 피는 완연한 봄이 아직 온 것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에 권태스러워진 마음 한 귀퉁이에는 이미 봄이 온 것이다.

이태 전 이른 봄에 서울에는 아직 피지 않은 봄꽃을 찍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갔었다. 그리고 땅끝 마을 미황사의 돌담 위로 이제 막 꽃잎을 틔운 매화를 담아왔었다. 우리는 이토록 늘 애달프게 봄을 기다리고 있다.

옛 판화의 세계

민왕이 도를 묻다(閩王問道)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의존(義存) 스님이 민월 지방에 근거해 나라를 일으킨 민왕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이다. 석의존 스님은 천주사람으로 민현에 행각하다 설봉산에서 법을 설하고 있었다. 민왕은 승단에 재를 올리거나 사찰을 짓게 되면 반드시 스님을 청해 물었던 신심 높은 왕이었다.

어느 날 민왕은 의존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지금 절을 짓고 복을 닦아 보시하며 스님을 공양하고 악한 것을 막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의존스님이 말했다. "그것 가지고는 아직 성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작위함이 있는 마음일 뿐 모두가 윤회하는 일입니다." "어떤 과보를 얻게 됩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게 되고 복 받고 장수하는 과보를 얻게 됩니다."

왕이 말이 없자, 스님이 왕에게 말했다. "견성하면 그것이 부처입니다." "장차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모든 업장의 바다는 모두가 망상에서 생깁니다. 만약 참회하고자 한다면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컨대 실상을 알고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성불합니다." 이에 왕이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생사의 큰일을 개시해 주십시오."

스님이 말했다. "진여의 불성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의 경전이 모두 왕의 본성 안에 스스로 구족돼 있습니다. 이는 또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꼭 스스로 자신이 구제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상대하여 구제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부처가 되려거든 마땅히 스스로 제도해야 합니다. 만약 유일한 진여의 자성만 깨닫게 된다면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용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도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오직 본성만을 비추어 보십시오. 만약 환하게 본성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 달통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복을 짓는 과보는 극락에 태어날 수 있으나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함을 일러 주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알고 스스로가 깨달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민왕문도(閩王問道).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경인년 제2차 선칠 용맹정진
(7일 용맹정진)

◆결재일 : 2010년 2월 21일 오후 7시
◆해재일 : 2010년 2월 28일 사시

대한불교 조계종 매월선칠수행도량
묘실상선원
042)585-0778 / 010-6555-6696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 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금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 02)742-0172 대구법당 : 053)425-3063
포항금강정사 : 054)261-2231 울산법당 : 052)211-2161
부산법당 : 051)514-3566 대전법당 : 042)862-5539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더불어 밝아지고 싶어요

문 : 마음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니 상대의 마음도 밝아지고 온 세상을 다 얻을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나태해져서 그런지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부끄럽지만 사실 저의 정성이 부족해서 조상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재에는 정말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더불어 조상님이 다 같이 밝아지기를 발원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까요?

답: 여러분은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소린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원통에서 나오는 것 원통에다 되놓는다면 스스로 굴러서 스스로 자동적으로 엽렵하게 나투면서 돌아갑니다. 어머님 만날 때도, 자식 만날 때도 그렇게 여여하게 만나도 나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조상의 탓이니 뭐니 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부모는 살아서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건만 죽었을 때도 겉껍데기만 생각하고 자식들은 부모 탓을 하죠. 영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못된 마음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디 깨질세라, 부딪힐세라, 죽을세라, 못 먹을세라, 어떻게 굶지는 않았나, 몸이나 아프지 않나 걱정해 주시는 아리따운 그 한 방울의 눈물을 어찌 그렇게 소홀하고 가볍게 보십니까? 조상의 탓을 하다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탓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딪침도 오는 것이지, 자기가 나지 않았다면 무슨 부딪침이 있으며 무슨 만날 게 있으며 무슨 상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불법을 그렇게 기복으로써 어지럽힌다면 일체제불의 뜻이 그냥 허무하게 어지럽혀질 것입니다. 고상하고 여여하고 신비하고 당당한 그 법을 그렇게 모르다니요! 여러분이 부처인 것이요, 그대로 부처 자리에 한자리 한 것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을 용(用)하는 것이요,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견성성불이지 어디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두고서 항상 가로 그어 놓고 세로 그어 놓고 자꾸 걸리는 거예요. 가로 그어 놓으면 자기가 거기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애를 쓰고, 세로 그어 놓으면 세로 그어 놓는 대로 빠져 가지고 또 일어나질 못해서 애를 쓰고. 참 답답합니다.

깨닫고 안 깨닫고 모든 걸 놓고 가세요. '빨리 하겠다. 이게 느리다. 아, 조금 되더니 아주 캄캄하잖아!' 이러는데요, 캄캄한 것도 놓으세요. 왜? 캄캄하고 환한 걸 둘 다 다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캄캄하고, 꺼지고 켜지는 거를 두 개를 사용 안 한다면 어떻게 살림하십니까? 여러분, 들어가면서 불 켜시죠? 그리고 그 방을 쓰지 않을 때는 불을 다 끄고 나오신단 말입니다. 이런 작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작용이 바로 끄달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재라는 것은 이 모든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니 오늘,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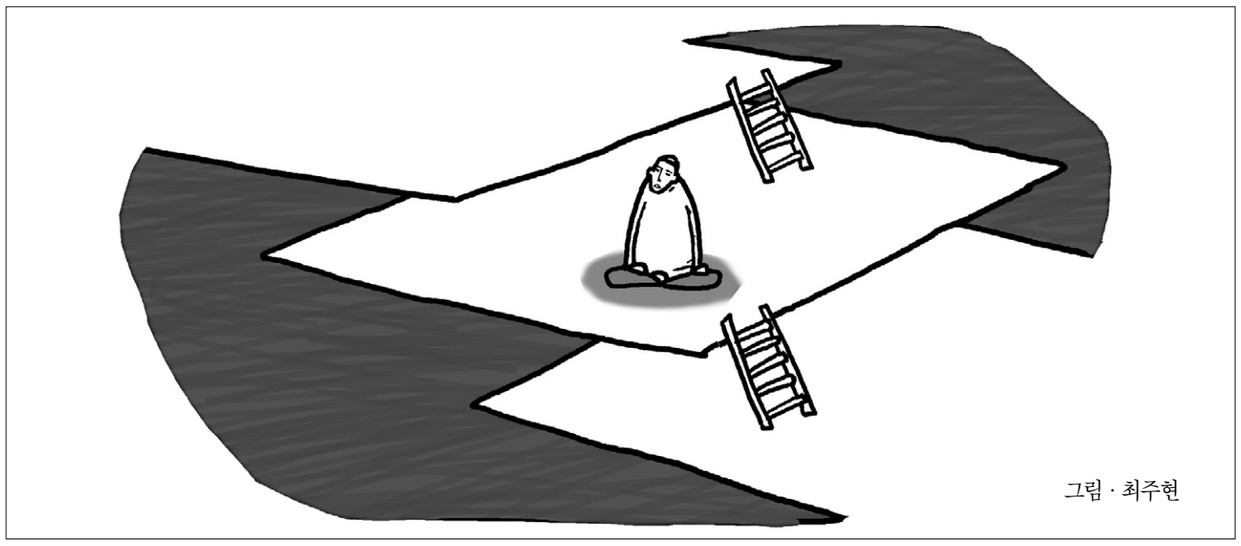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나 자식을 위한다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닥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둘 아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섭류를,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지고, 바뀌지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식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하거나 욕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조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열심히 뛰는데도 안된다거나 이런다면 그것도 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밝아지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런다면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이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은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든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림 · 최주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문 : 저의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벌써 팔십이 넘어 구십이 돼 가십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살아생전에 고향을 꼭 가 보는 거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빨리 통일이 돼서 저의 할아버지 같은 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답: 이 통일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보지만 우주 삼라만상에는 다 통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지금으로 치면 회의를 해서 적합하다 할 때에 하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야 어느 사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주 많이 팽창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니까 3차 대전이 벌어질 거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그러면 이쪽에서 3차 대전을 일으킬 리는 없으니까 저쪽을 그렇게 좀 나누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 얘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제자들더러도 "어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한 뜻이라면 우주간하고도 통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통신이 돼서 이 만물하고도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소소한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르바초프면 고르바초프, 뭐 누구를 어떻게 잡는다 이러면, 즉 말하자면 모든 하는 일에 대한 법 줄기를 갖다가 그리로 대죠. 모자라는 거를 채우면서.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미친 사람으로 됩니다, 이게.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미친 사람, 돈 사람으로 생각 되게끔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빨리 서둘러서 꼭 이걸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한데 그 위태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공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아니 삼분의 일은 공해로 인해서 생기죠. 지금 원기 그 자체라고 할까. 너무 이렇게 압축이 돼서요, 지금. 오존층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압축이 되니까 얼음이 만약에 다 녹는다고 해 봅시다, 땅덩어리는 파산이 되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모든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마음, 이 자리밖에는 우주하고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풀려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가고 하는 문제들도 지금 우리들의 마

☞26면으로 계속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우편 · 팩스 · 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

buddhanews.com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

☞25면에서 계속

음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먹고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문 : 얼마 전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서 근근이 꾸려나가던 셋방살이도 힘든 지경입니다. 먹고사는 일이 왜 이다지 힘든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스님,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답 : 어떤 사람이든 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있는 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생기고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병이 났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의학적으로는 30%밖에 충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70%는 누가 보충합니까? 모두 각자 마음들이죠. 거기는 그런 약하다 힘 있다 이런 게 붙질 않아요. 만약에 이 진리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힘이 없다 있다 그게 붙을 수가 있나요? 그런 도리를 넘어서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붙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생각도 들고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약하다 하는 그 생각마저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근본 자기가 둘이 돼서 약한 게 따로 있고 약하지 않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한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한군데다 넣고 한군데다 맡기고 한군데서 나고 든다 하는 거를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라는 말입니다. 여지껏 살아오신 거 누가 살아오셨습니까? 본인이 살아오셨지 않아요? 아무리 고초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서 자기가 결정짓고 자기가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죠. 약하든 약하지 않든 말입니다.

잘살든 못살든 그래도 이 몸은 부지런하게 뛰고 있으니 다 먹고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을 해서 병이 들고 그러면 외려 식구들한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장본인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본인은 누굴까요, 자기 운전수죠. 그 운전수가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자기 차를 끌고 다니게끔 하는데, 기름을 조금 넣는 것도 거기요, 많이 넣는 것도 거기요, 가득 채운 것도 거기요, 또 기름이 없어서 못 넣는 것도 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알아서, 모두가 운전수 알아서 할 탓이니 이 몸은 부지런하게 뛰되 속상하고 힘든 거를 그렇게 속상하게 만든 그 장본인에게 모두 맡겨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게 주인공 그 한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넣고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 나고 든다 하는 거를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놓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거든지 풀리지 않을 게 없고 자유스럽지 않을 게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지금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그대로 믿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외계생명체가 있는 것인지요?

문 : 외국의 어떤 유명배우가 '외계인 종교'의 열혈신자가 되거나 'UFO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곳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가족과 직장을 다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다 정신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기는지, 진짜 외계생명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 만약에 다른 혹성에서 마음세계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이러는 것을 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지구를 방문을 해서 모두 돌아보고 가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발되지 못하면 아마 송두리째 다 뺏겨도 그런 줄도 모르고 뺏길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뺏긴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빼 가도 여러분은 어디다가 호소 한마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다 빼서 자기들은 마음으로 한생각에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몇 십 년을 연구해서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건 물질과학이지만, 그들은 심성과학이기 때문에 한생각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말을 중지하면 말이 끊어지고 없어지듯이,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내리면 없어져요. 그것뿐입니까? 자기를 만 가지 모습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없고, 실상이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해롭게 하려면 한없이 해롭게 하고 이익하게 하려면 한없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도리다 이런 소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자리냐. 그게 아닙니다. 깨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습으로 탄생하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구처럼 사계절이 온기와 공기 등 모든 게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체가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대로 자기다 이거죠. 그것은 공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뜨거워도 뜨거운 게 없고, 차도 찬 게 없고, 공기가 있으나마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실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동물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체로 나오진 못했어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울 일이 너무도 많이 앞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만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도 우주적으로 봐서는 작지만, 우리나라로 봐도 손가락 반쪽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들이 공부를 해서 잘된다면 땅을 더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세계적으로도 융성하게 되고 참,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보고 배울 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조그마한 나라지만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 모든 게 주인공 한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 거기다 넣고 맡기고
> 거기서 나고 든다 하는 걸
>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항간에 모습을 해 가지고도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6 · 25 때 저는 똑똑히 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비행기 접시도 봤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지구 안에서 생기지 않은 건데 어디서 났을까요? 둥글둥글하고 또 이것이 고슴도치처럼 생긴 것도 나타났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있다가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거나 그러면 그냥 없어져요. 지금 비행기 뜨는 것처럼 쭉 가서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불이 퍽퍽 나면서 뜨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환하게 눈이 부셔서 그냥 그쪽을 볼 수 없게 하고 없어지는 그런 자체. 그건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한 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든지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헛되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얘기를 중간에 넣는 겁니다. 사실대로요. 그때가 스물세 살 땐데, 참 잠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똑똑히 보지 않은 건 말 안 합니다.

우리 손에 손가락이 다섯 개 있다고 하나, 우리 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손 아닌 손은 이 손가락 하나를 떡 올리면 저 다른 혹성에까지 그 손가락이 가요! 가선 이렇게 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자비라면 그렇게 해서 옮아 와도, 죽여도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아! 이놈의 물체들은, 물체 없는 물체들은 말입니다, 그렇질 않아요. 빼 먹어요. 힘을 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서 힘을 다 빼 먹고, 꺼내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다 꺼내서 뗄 거 때고 그런다면 자력과 광력은 어디서 다 나며, 우리가 인구는 점점 늘어 가는데 어디서 나서 다 먹고 살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리, 부처님 도리의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도 육조 대사께서도 혜가 대사께서도, 어느 스님 쳐놓고 대덕이신 스님들은 면벽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면벽을 했다고 해서 꼭 어디 죽치고 앉아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줌 누고 밥 먹고 똥 싸고 움죽거리면서 움죽거리지 않고 면벽을 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이 무르익어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무라면 제 나무에서 제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수 있고 만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 않은 열매라면 한 가지 맛이나 낼지 말지 그렇죠. 한 가지 맛을 내가지곤 아니 됩니다. 이천칠백 공안도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선 대답해 봤자예요, 그거는.

정말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뿌리 없는 기둥을 자루 없는 도끼로 다듬어서 받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발 없는 발이 두루 할 거고, 손 없는 손이 두루 할 거고, 말 한마디 아니 하고도 한마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무수히, 땅 속이나, 물 속이나, 들이나, 허공이나 도대체 이 실체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제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집을 비워 놓는다면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그 속에 들어간 놈이 주인이 돼서, 온통 괜히 신경질나게 하고 말입니다, 차분한 사람을 괜히 그냥 신경질나게 하고, 막 그냥 달아나가게 만들고, 답답하게 해서 나가서 바람 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집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딴 놈이 들어와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니 그걸 알고 절대 그러지 말라 이 겁니다. 속지 말고.

그러나 '주인공! 만 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놈이니까.' 하고선 용광로에다 넣는다면 거긴 그냥 한 놈밖에 없어요. 그 한 놈도 여러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한 놈도 한 놈이란 말을 못하리만큼 돼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평소에 이러한 마음 도리를 항상 새기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밝히는 데 매진하셔야 어떤 것이 와도 둘이 아닌 줄 알아 그렇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금을 잃어버려서 속상해요

문 : 스님,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에 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차비를 하라고 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처님 전에 보시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절에 왔는데 보시함에 넣기도 전에 어디서 흘려버렸어요. 부처님한테 바로 보시해야겠다 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왜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답 : 이거 봐요. 그래도 댁은 그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으니까, 아무가 가져갔든 잊어버렸든 그런 걸 생각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 생각지 말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가져갔든지 어디 빠트렸든지 간에 그것은 댁이 부처님 앞에 보시한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로 그건 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값어치는 또 돌아올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알았죠?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아드님의 그 아리따운 마음씨. 준 사람, 받은 사람, 갖다 흘려버렸던 사람, 진정코 밉지 않은 못난 마음, 그것도 나는 알아요. 그게 못난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신도들이 돈도 없는데 남한테 빌려 가지고 천도재를 지내달라고 와요. 나는 알죠. 그 어려운 문제를 이자를 얻어서 가져왔다는 거를요. "이 이자로 인해 돈이 늘어 가니까 어려운 집에서는 갚기가 어려워. 이건 갖다가 그 돈을 도로 갚아. 내가 돈 생기면 천도해 드린다고 마음으로 주인공에 맡기고 그러고 살면 저절로 그런 돈이 생겨." 그러고 그 돈 갖다 갚으라고 도로 주죠. 내가 틀렸나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고통은 그 살아나가 본 사람이라야 다 알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우스운 얘기를 하면 모두들 웃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인생이 돌아가는 이 삶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닥치는 대로 좋은 것도 있고 언짢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살아나가려면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언짢으면 언짢은 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씨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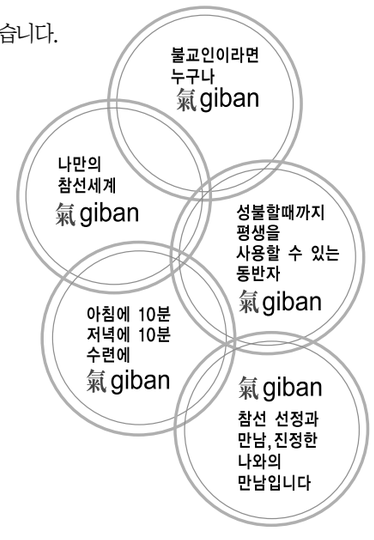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약사여래나 관세음보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등은 정확히 어떻게 구분 짓나요? 다 같이 깨달으신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구분 짓기 위해 편의상 부르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들인가요? 또 약사여래부처님을 계속 외우다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등 상황에 따라 바뀌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지요?

A 석가모니는 2600여 년 전 인도 석가족 출신의 성자로써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시지요.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중생제도의 한량없는 공덕을 믿고 따르며 스스로 부처되기를 서원하며 일념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갈등 대화로 풀고 싶은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상대의 모습 인정하면서 자기표현 기술 익히세요

관세음보살님은 산스크리스트어로 아바로키테스바라(Avarokitesvara)를 번역한 말입니다. 관자재, 관세음, 관음 등으로 음역하기도 한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하고 듣는다는 뜻이며, 사바세계 중생들이 괴로움에 허덕일 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 구원을 청하면 32응신으로 몸을 나투어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요.

약사여래는 정확하게는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이십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병을 다스리기 위해 간절히 약사여래부처님께 기도정진하면 정신적 · 육체적 병고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란 복을 바라며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지혜와 공덕을 찬탄하고 산만한 마음을 안정시켜 편안하게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고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대부분 사찰에서는 신도들의 올바른 신행생활 돕기 위한 불교 기본교리 강좌들이 개설돼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 가치관이나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해 결혼을 했는데 서로 다른 스타일로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뭐? 응?"이라고 말하거나 전혀 다른 화제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심각한 대화는 정색을 하고 불러다 놓고 말하며 들어주길 원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살아야할까요? 늘 같은 부분 때문에 남편과 부딪히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A 내담자께서는 진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대충 넘기려 하신다구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정말 훌륭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형태에는 비자기표현형, 직접공격형, 간접공격형, 자기표현형이 있습니다. 앞의 3가지는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쉽고 4번째 자기 표현형은 자신도 상대방도 다 옳다는 전제하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내담자께서는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쓰시는지요?

남편의 삶에 대한 태도나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걱정과 사랑에 의한 행동이라 해도 상대인 남편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직접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내담자분과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는 남편의 인식기능이 조화를 이루면 잘 맞는 톱니바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소유하려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도록 고치려 하기보다는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표현의 기술을 익히면 좋은 관계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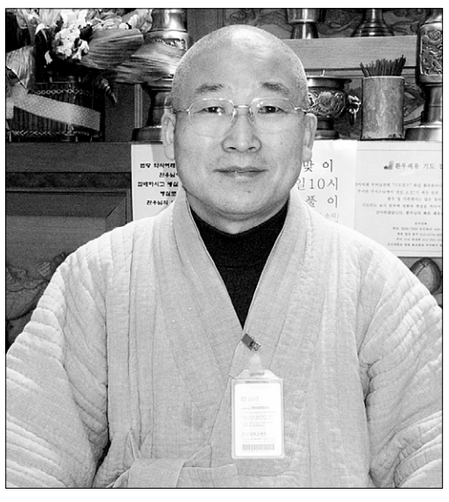
우리 법당은 산소방, 쉬러 오세요

자비법당 탐방

건국대 불교법당



법경 스님이 어린 환우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며 위로하고 있다.



법당 문 열면 수많은 이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 좋아
스님 활동에 감화… 병원서 법당 크게 조성해줄 예정

"기자님, 일루 좀 와서 이것 좀 해봐요. 이 그림을 이 화면에다가 옮기고 싶은데 잘 안돼네."

건국대학교 병원 법당(지도법사 법경)에 들어서 스님에게 합장을 하자마자, 스님은 대뜸 컴퓨터로 문서작성을 하던 것을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단순한 문서작성까지 스님이 손수 하시냐는 질문에, 스님은 "그럼, 내가 다하지, 나 진짜 바쁜 몸이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스님의 그런 투정어린말투에는 전혀 싫은 기미가 묻어나 있지 않았다.

5평 남짓한 건대병원 법당은 가톨릭과 개신교 등 다른 종교시설과 함께 옹기종기 붙어있다. 불상이 조성돼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해 보이는 좁은 법당 내부에는 벽 한쪽에 건물기둥이 박혀있어, 공간을 활용하기에 더욱 불편해 보인다.

"처음엔 왜 다들 안쪽 사무실을 쓰나 했지. 알고 보니 구석에 기둥이 있어서 그렇더군요. 근데 난 이방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 문을 열면 사람들 지나다니는 게 다 보이거든. 사람들이랑 자주 인사하고 말할 수 있는 위치인데 왜 다들 이 자리를 싫어했는지 몰라요."

스님의 이러한 태도와 말투는 정말 '쿨'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태연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계셨다.

"나는 다른 종교시설이 어떤 일을 하던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법당을 꾸려나가죠. 다른 종교에 비해 봉사자들도 턱없이 모자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법당을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개신교 신자였던 유석창 박사에 의해 건립된 건국대 병원은, 개신교 사상이 많이 배어있어 스님이 불교법당 지도법사로 일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았다. 처음 스님이 병원 법당을 꾸려나갈 시절에는 병원장, 직원 등 병원에 관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라 스님이 활동하는데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원내 사람들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라 힘들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제 방식대로 병원 법당을 꾸려나갔어요. 어떤 시스템이나 방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나름대로 '룰루랄라'하며 법당일을 해왔습니다."

개신교 신자들 틈에서 스님의 법당일은 더욱 특별해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스님은 "별다른 노하우가 없다"고 설명한다. "남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답한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스님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병원법당을 꾸려나가는데 플러스가 됐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환우들과 병원 일에 매진해 온 스님은 현재 다른 종교시설에 비해 더욱 왕성하게 포교활동을 해오고 있다.

스님은 "처음 자신에게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병원 관계자들도 내가 발 벗고 병원일에 동참하니, 그런 나를 더욱 인정해 주더라"라고 말한다.

스님이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 법당 일을 꾸려올 수 있었던 것은 20년 넘게 꾸준히 해온 봉사활동의 경험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법경 스님은 매년 500포대의 쌀을 사회소외계층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병원 측에서 지원금 한 푼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오로지 베풀고자 하는 원력만으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미 이런 스님의 행보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는 유명하다.

법경 스님의 이런 자비가 넘치는 행보는 결국 병원 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개신교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불자들은 드러내놓고 신행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님의 이런 활발한 활동 덕에 불자직원들이 뭉쳐 '불자연화회'를 만들고,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의 일종으로 병원 측에서는 4~5월에 법당을 전보다 크게 조성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 스님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법당을 '산소방'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경 스님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면서도, 불자들이 불교법당을 더 자주 애용해 주길 바라는 욕심은 버리지 않았다.

"불자님들이 병원에 불교법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즉시 말씀해 주는 게 저는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주저 말고 불교법당을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법당으로 출근해 4층부터 11층까지의 환우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위문하는 법경 스님. 스님은 "승복입고, 머리 깎은 스님이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포교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해,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할 몫"이라고 말한다.

국민 776-01-0013-511(예금주: 능인정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결혼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번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秘書가 될 것이다. 특히 여자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 올 力作이다.



이젠 천기를 누설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 신국판/청산 김성진 지음/35,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Ⅰ권 880쪽 Ⅱ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제1회 선재역사문화탐방-캄보디아

작은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부처님 나라

선재동자 되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화두

부영중·르위아초에 학용품 지원… 내년 네팔

동남아 불교국가 중 앙코르 문명을 꽃 피운 나라, 하지만 오랜 내전과 갈등 속에서 한국의 1960년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캄보디아로 어린 불자들이 '나'를 찾는 기행을 다녀왔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1월 20~27일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 '자신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제1회 선재역사문화탐방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과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1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화엄경>에서 53선지식을 찾아 길을 나섰던 선재동자처럼 일정 내내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고 자신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길을 열어가기를 염원했다.

일행은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다. 왕궁과 왓프놈 사원, 국립박물관, 킬링필드 역사 현장 등을 둘러보면서 수도라고 하기엔 초라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베어든 역사문화의 현장을 견학했다.

가는 곳마다 "기브 미 원 달러"를 외치는 어린 꼬마들의 애처로운 눈빛에 서글픈 마음도, 애잔한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들의 삶을 내 자신의 잣대로 행복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 일행은 그저 그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왓프놈사원에서 사람·생명·평화의 길을 염원하며 올린 108배는 일행에게 언제 어디서든 불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일행은 투어슬랭 형무소(옛 고등학교)에 들러서는 크메르루즈의 잔악한 고문과 학살의 모습들을 살필 수 있었다. "그 어떤 이념과 가치와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며, 뭇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사는 연기적인 관계가 아닐까?" 일행은 생각했다.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 붓다의 길이 됨을 확인했다.

프놈펜에서 씨엠립까지는 다섯 시간이 걸렸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캄보디아를 실현해가는 BWC(Beautiful World of Combodia)에 들렀다. BWC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로터스월드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이다. 드넓은 잔디밭, 아름다운 연못, 단정하게 자리 잡은 아이들의 숙소와 식당, 진료소,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법당에 이르기까지 BWC에는 1만5000여 평 부지에 아이들의 천국이 펼쳐져 있었다. BWC센터 방문 후 일행은 부영중학교와 르위아초등학교로 이동했다. 부영중학교는 부영건설이 건립한 학교로서 현재 1·2학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교사나 학생들이 건물 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영중학교 운동장에는 일행이 지원한 학용품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과 선운사 주지인 법만 스님이 부영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학용품과 축구공과 줄넘기 등을 전달하자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이어졌다. 이어 일행이 정성을 모아 4칸짜리 화장실을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진행했다. 한 달여 공사를 마치면 전교생의 근심걱정을 풀어주는 해우소가 탄생하니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르위아 초교와 인근 마을에도 학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이들을 보며 일행은 생각했다. "행복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데 있지 않다"고….

1주일 여가 걸려야 모두 볼 수 있다는 앙코르와트를 하루만에 살펴봤다. 바이욘 사원에서 관세음보살의 형상의 사면석불에는 모두 감탄사를 쏟아냈다. 일행은 톤레샵 호수의 수상가옥들을 보고 BWC 숙소로 돌아와 캄보디아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튿날,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 일행은 BWC센터에 기념식수를 했다. 그리고 태국으로 떠났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에서 태국으로 도보로 향했다. 태국에서 일행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200m가 넘는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황금암각불을 친견 후 108배를 올리기도 했고, 방콕의 2층 버스도 타보고, 파타야에서는 물놀이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매년 여름 어린이생태학교와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선재역사문화탐방을 열고 있다. 제2회 선재역사문화탐방은 2011년 1월, 히말라야왕국이 펼쳐진 네팔로 떠날 예정이다. (062)223-3623

이해모(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선재역사문화탐방 총괄진행)


①



④

① BWC센터에서 법일·법만 스님 등 일행이 기념식수하는 모습.
② 일행이 크메르루즈의 잔악한 고문·학살이 기록된 투어슬랭형무소를 돌아보고 있다.
③ 부영중학교를 찾은 일행이 학용품 등을 전달하고 찍은 단체사진. 학용품을 받아 쥔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표정이 밝다.
④ 캄보디아 왕궁 앞에서 일행은 권력의 무상함을 생각했다.



③


②

